

# 21세기를 둘러싼 질서



경쟁과 대안으로서 지역운동

이기호 지음



# 21세기를 둘러싼 질서

경쟁과 대안으로서 지역운동

# 21세기를 둘러싼 질서

경쟁과 대안으로서 지역운동

이기호 지음

이 책은 2019년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가 찾아가는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함께하는 성북마을과 공동주최한 시민자치와 민주주의 6강의 내용을 녹취하여 엮은 것이다. 민·학 거버넌스의 확대를 기대하며 강의 내용을 엮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한신대 이기호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 1강 우리가 살았던 20세기의 진실과 자화상

- 민주화, 산업화, 세계화 그리고 '국가'라는 발명품

09

[질의응답]

39

## 2강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한국 현대사

- 해방 정국에서 평창올림픽까지\_가족, 마을, 직장, 사회 그리고 국가

45

## 3강 아시아를 둘러싼 힘겨루기와 21세기 국제질서

-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극복과 21세기 아시아 질서 그리고 대국굴기

70

[질의응답]

100

## 4강 흔들리는 분단체제와 한반도 국가

- 북한 문제의 본질과 한반도 체제 모색

106

## 5강 지역운동과 새로운 정치

- 마을정치와 마을활동가의 리더십

136

[질의응답]

163

## 6강 토론

- 마을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체제와 대안으로서 지역운동

167

# 1강

## 우리가 살았던 20세기의 진실과 자화상

- 민주화, 산업화, 세계화 그리고 '국가'라는 발명품

안녕하세요, 이기호입니다.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정치학과 교수는 아닙니다. 현재 수유리에 있는 사회혁신경영대학원에서 재직 중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하다 보니 제 전공이 헛갈립니다. 저는 정치학 중에서도 특히 시민사회, 정치 변동을 공부했습니다. 지난 이십년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것 같지만 그중에서도 지역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역 시민들의 지역 자치 방법론에 관심을 이어 왔습니다. 또 제 활동의 다른 한 축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국제정치에 관한 겁니다. 남북 문제, 동아시아 평화.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랙 투<sup>track2</sup>’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하고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의결을 어떻게 하나갈 지를 논의하는 그런 활동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세기와는 다른 정치, 다른 공동체, 다른 사회를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담은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아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새롭게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주민들과의 대화가 항상 즐겁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섯 차례의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 자치의 기술적인 문제, 구체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정치의 흐름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강은 우리가 어떤 세계를 살아왔는지, 20세기를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2강은 20세기 중에서도 특별히 드라마틱했던 우리 한국 현대사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세계와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한반도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3강은 한반도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와 연결된 글로벌. 그렇게 시각을 확장해가며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과거를 성찰하는 3주 간의 시간을 갖고, 나머지 주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4강은 흔들리는 분단체제의 한반도 국가에서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겁니다. 5강에서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문제의식을 가져보는 시간을 보낼 겁니다. 마지막 6강에서는 여러분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제가 발제를 하고 여러분과 토론하며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 20세기는 어떤 시대였나?

21세기를 맞이할 무렵, 즉 20세기가 끝날 때쯤 많은 학자들이 20세기를 회고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20세기를 어떻게 돌아보고 21세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조지 오웰의 책도 그 중 하나죠. 1989년에 나왔던 책 중에 후쿠야마 Francis Fukuyama 라는 사람이 『역사의 종말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이라는 책을 썼어요. ‘The Last Man’, 즉 인간의 발전이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20세기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지요. 하지만 책이 출간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 틀렸다고 밝혀졌습니다. 어찌되었건 후쿠야마는 주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세기와 21세기가 어떻게 다른가? 20세기는 어떤 시대였는가? 이곳 강연장에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셨네요.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같은 민족일까요? 지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살면 흔히들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격차사회<sup>1)</sup>에 있기 때문일 거예요. 시대의 경험이 다르면 다른 사람인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류가 동시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BTS, 레드벨벳과 같이 호흡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과 조용필, 김광석, 이은미를 들어온 이른바 86세대, 그리고 우리의 부모세대 등 문화가 만들어낸 시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사고한다는 거예요. 또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난한 한국에 살았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의식이 없는 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시

1) 중류 계층의 붕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형 경제 사회 양극화 현상을 일컫는 말. 이러한 원인은 장기 경기침체와 함께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의한 세대간 소득 분배 악화, 핵가족화나 청년층 단신세대의 증가 등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한 가구별 소득 축소, 교육과 부의 대물림 등으로 분석된다.

대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세기의 자화상

20세기는 어떤 세기였을까? 20세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그냥 단어로 얘기해봅시다. 이념의 대결시대, 갈등, 대립, 국가주의, 신자유주의의 시작, 인터넷?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어떤 면에서 보아도 가장 다이내믹하게 변화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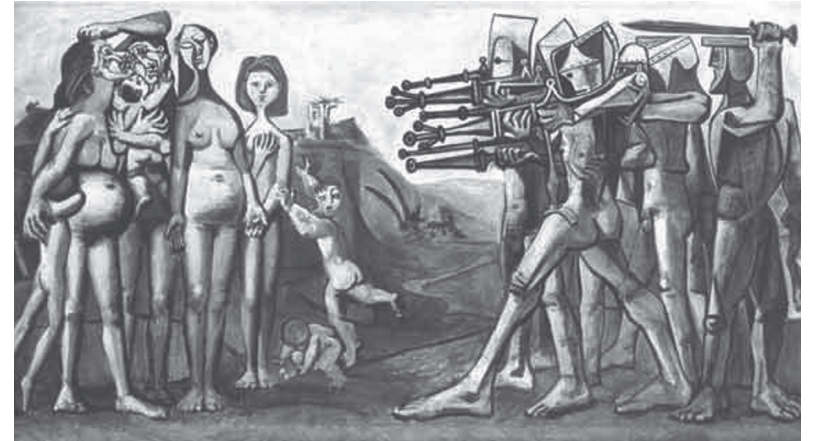
파블로 피카소, <게르니카>, 1937, 776x349cm, 캔버스에 유채, 마드리드, 국립소피아박물관 소장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 <게르니카-Guernica> 아시나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20세기를 상징하는 그림이자 피카소를 평화주의자로 만든 그림입니다. 1937년에 나치가 게르니카를 공습했습니다. 스페인 내전을 빨리 종결시켜 승리하기를 기대했던 독재자 프랑코가 나치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모순적이게도 자국민 폭격을 부탁한 거잖아요? 대량 학살입니다. 그 폭격으로 게르니카 주민의 3분의 1



이 죽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나면 스페인 내전은 곧 이어질 제2차 세계대전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충격에 빠진 사람들은 말을 잃고 분노를 표현할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요즘처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참혹한 기록을 남길 수도 없었죠. 이 광경을 피카소가 재현해낸 것입니다. 그림은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아도 증언을 통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훌륭한 전달력을 가졌습니다. 스페인에서 이 그림을 전시하는 게 금지되어 파리와 뉴욕에서 전시되었습니다. 그림은 프랑코 사망 이후인 1976년이 되어서야 마드리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게르니카는 바스크 지방 **Pais Vasco**에 속해 있는데, 바스크가 스페인에서 독립하려고 한다는 걸 생각하면 또 모순입니다. 최근의 카탈루냐 독립은 이 그림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20세기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엄청나게 국가주의적인 동시에 엄청나게 국가주의에 반대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 국가주의에 반대했을까요? 1920~1930년대 당시 대부분의 국가가 제국이거나 식민지로 넘어갔던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과 바스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 독립을 하려 했던 것이고, 카탈루냐 지역은 바르셀로나가 주도이긴 한데요, 그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을 엄청나게 해온 아나키스트들의 본고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나키스트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스페인 안에서 새로운 시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포데모스 **Podemos**라고 하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의 정당이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스페인의 정치구조는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EU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세계질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파블로 피카소, <한국에서의 학살>, 1951, 110x210cm, 패널에 유채, 파리, 피카소미술관 소장

위 그림도 피카소 그림이에요. 한국전쟁을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누가 누굴 죽이죠? 남과 북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양민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쪽에 있는 군인은 남일 수도 있고 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한국전쟁에서 200만 이상이 죽었는데, 여기 보시면 어린이, 임산부, 아기, 노인, 여성이 그들이죠.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피카소는 한국에서 평화주의자가 아닌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힙니다. 한국의 한 크레파스 회사가 제품에 ‘피카소’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 이름을 못 쓰게 됐죠. 피카소의 숨은 업적을 오히려 알리는 꼴이 되었지만요.

그림 하나 더 보실까요? 이 그림도 역시 전쟁에 관한 그림으로, 굉장히 잔인합니다. ‘20세기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게르니카나 한국전쟁처럼 사진 기록이 없어요. 물론 한국전쟁은 중군기자들이 찍은 사진이 훗날 많이 발견되긴 합니다. 오키나와 전투인데, 여기는 집단 학살이 아닌 집단 자결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



마루키 이리·마루키 토시, <오키나와 전도>, 1984, 500x800cm, 종이에 수묵채색, 사키야마미술관 소장

인데요, 유럽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일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1945년 5월 9일, 혹은 10일이죠. 독일이 자국에 항복한 날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영국이 하루 차이가 나는데, 그럼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는 해방된 8월 15일이죠. 중국 입장은 어떨까요? 중국은 전쟁을 어떻게 겪었는가 사실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중국에서는 9월 2일이 전승기념일입니다. 항복 문서를 그때 받았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날짜가 달라요.

중요한 것은 아시아 전쟁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자행했고 8월 15일에서 9월 2일 사이에 끝났는데, 유럽에서는 독일이 자행했고 5월에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날짜가 길게 차이 날 일이 아니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5월에 모든 전투가 끝나야 했습니다. 유럽과 일본이 패망하는 쪽으로 기우니, 포츠담을 비롯한 곳에서 전후 질서에 대한 논의를 이미 끝냈어요. 그래서 미국이 오키나와에 진주한 것이 4월입니다.

한 2, 3주면 일본이 다 정리될 거라고 미국은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전투가 8월까지 길어진 이유가 바로 이 오키나와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보병 전투가 아닌 바다 전투인데, 이는 항공모함으로 먼저 폭격하고 배가 주변에서 포격해서 초토화시킨 후 보병은 나중에 정리하러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것이 미국이 가진 우월한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오키나와 역시 그렇게 전투를 수행했습니다. 오키나와 안에서 포격을 1주일 동안 해대고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지형상 동굴이 굉장히 많고 지하터널이 많아서 전투부대, 주민들이 지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질 것을 예상한 일본 군대가 적들에게 잡히면 산 것만 못한 치욕을 당할 것이니 자결을 하라고 권해 순박한 오키나와 주민들이 서로 자결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 장면을 담았는데, 거의 지옥도죠. 여기 보시면 중학생이 자기 엄마를 죽입니다. 여기는 가족이 서로 목을 조르는데 힘센 사람이 약한 가족을 먼저 죽이니, 남은 사람이 얼마나 슬플까요. 잘 죽일 수나 있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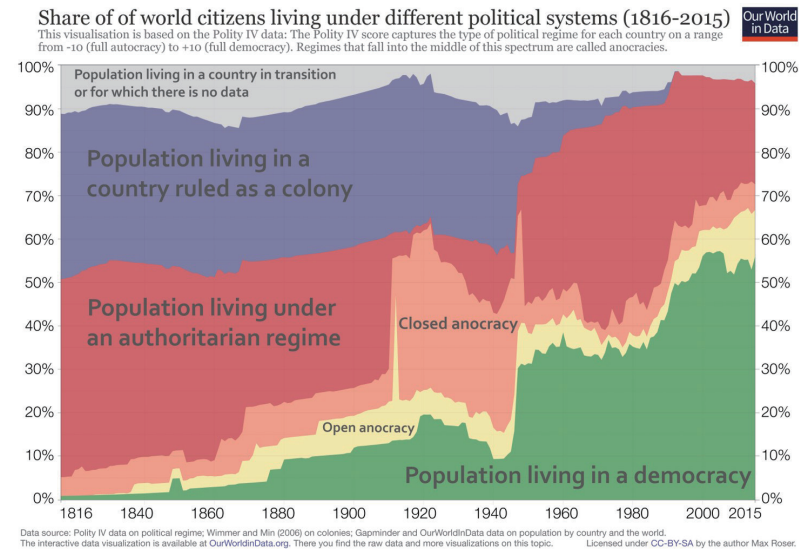
이 그림의 작가들이 히로시마 태생인데 그림을 그리러 도쿄에 자주 가는 바람에 원폭을 피했습니다. 사건 이후로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미안해 절필을 선언하죠. 그렇게 붓을 들지 않고 ‘남쪽으로 튀어’ 살다가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씩 듣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나서는 과거를 재생해내지 않을 수 없어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점의 그림을 통해 비극적인 역사들로 점철된 20세기의 자화상을 살펴보았습니다.

## 20세기와 민주주의

올해 2019년이 임시정부 100주년인데, 또 베르사유 강화조약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평화조약 이후 1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지만, 제1차세계대전 불과 20년 만에 제2차세계대전이 벌어졌고,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이 ‘전쟁’이 20세기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쟁이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 ‘전쟁 없는 시대에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던 시기가 거의 없거든요. 아시아에서도 전쟁이 없던 시기가 1954년에서 1955년 사이의 딱 1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열렸던 것이 1955년 반동 회의예요.

아래 지표의 녹색이 민주화가 된 비율입니다. 1900년 20세기에 국가가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한 것이 민주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



다른 정치체제 아래 있는 세계시민의 비율

처럼 민주화가 아직 60%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예요.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해서 그 사회가 불행하냐? 또 그렇게 볼 순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목놓아 부르죠.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쳐서 민주주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국가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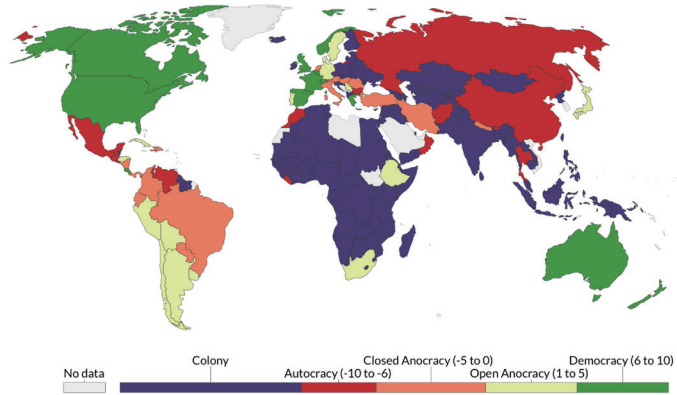
주홍색과 노란색이 있죠. 이 둘은 ‘아노크라시 anocracy’,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절충형인데 독재주의라고 하기도 어렵고 민주주의가 안 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네요. 개방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나눈 건데요, 이런 국가가 약 20%정도 됩니다.

빨간색은 전체주의를 의미합니다. 전체주의가 약 25%, 민주화가 55%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계속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십시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올해 딱 30년이 되었습니다. 1990년 무렵에 세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민주화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닙니다.

1910년부터 우리의 역사적 사건에 따라서 세계의 민주화 상황은 어떤지 살펴봅시다. 검색은 식민지입니다. 남반구는 대부분 식민지예요. 남미는 식민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전체주의이거나 혹은 민주적인 요소를 가진 전체주의를 경험합니다. 녹색은 당시 드문 민주주의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 영국, 프랑스, 베네룩스 정도고 독일은 아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식민지거나 독재국가였죠. 한국은 식민지가 됐습니다. 일본은 좀 특이하죠. 수상이 있었으나 선거제도가 있었고, 천황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천황제 아래에서의 민주정이 진행되고 있어 저렇게 애매한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 Political Regime, 1910

The Polity IV score classifies the type of political regime for each country on a range from -10 (full autocracy) to +10 (full democracy). Regimes that fall into the middle of this spectrum are called anocra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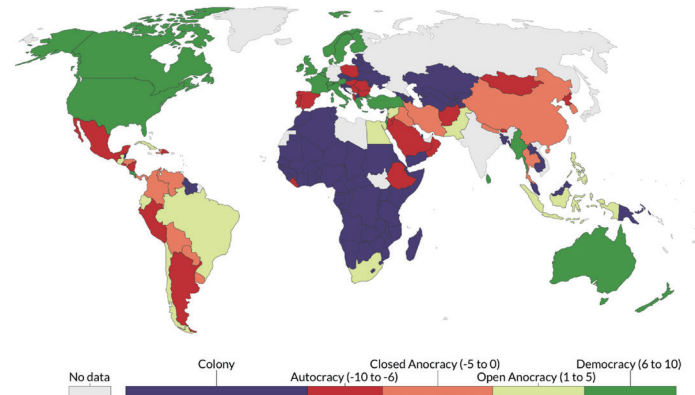
Source: Political Regime (OWID based on Polity IV and Wimmer & Min)  
Note: See the linked democracy entry for some discussion of the complexity in defining democracy and the limitations of this data.

CC BY

정치제도, 1910

### Political Regime, 1948

The Polity IV score classifies the type of political regime for each country on a range from -10 (full autocracy) to +10 (full democracy). Regimes that fall into the middle of this spectrum are called anocra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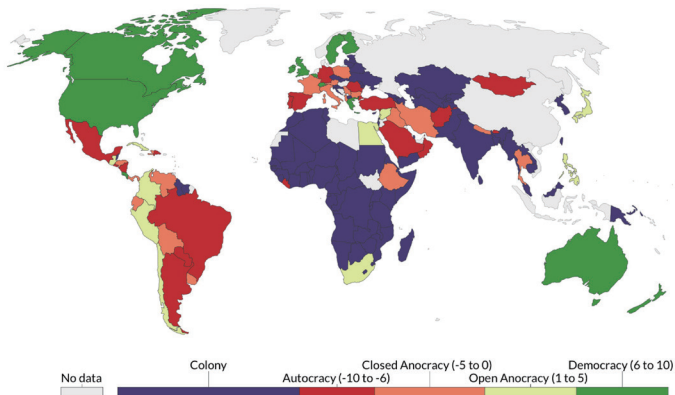
Source: Political Regime (OWID based on Polity IV and Wimmer & Min)  
Note: See the linked democracy entry for some discussion of the complexity in defining democracy and the limitations of this data.

CC BY

정치제도, 1948

### Political Regime, 1944

The Polity IV score classifies the type of political regime for each country on a range from -10 (full autocracy) to +10 (full democracy). Regimes that fall into the middle of this spectrum are called anocracies.



Source: Political Regime (OWID based on Polity IV and Wimmer & Min)  
Note: See the linked democracy entry for some discussion of the complexity in defining democracy and the limitations of this data.

CC BY

정치제도, 1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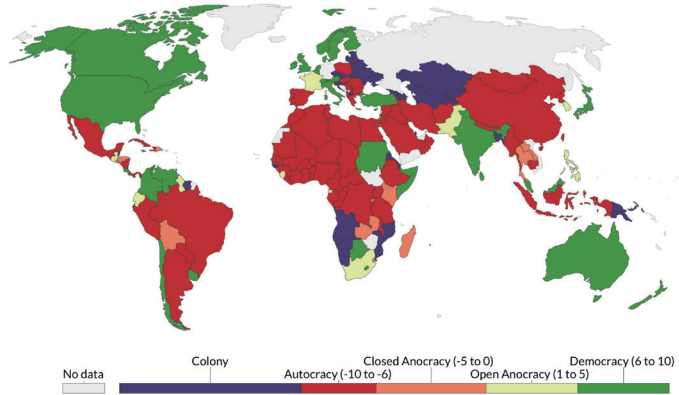
1944년은 우리가 해방되기 바로 직전인데요, 이 표를 만든 연구자도 이제 헛갈려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체제인지 표시를 못했어요. 식민지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었죠.

1948년에 우리는 독립은 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로 표기되진 않았네요. 제1공화국이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사실은 이 도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면밀히 이 표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그리고 아시아를 잘 몰라요.

1968년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열기가 가장 높았던 시기입니다. 68혁명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비틀즈의 전성기이기도 했죠. 음악뿐 아니라 평화의 아이콘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은 68혁명의 실패 이후 1969년부터는 히피운동 또는 청년저항운동의 방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69년 뉴욕주에서 ‘우드스탁’

### Political Regime, 1968

The Polity IV score classifies the type of political regime for each country on a range from -10 (full autocracy) to +10 (full democracy). Regimes that fall into the middle of this spectrum are called anocra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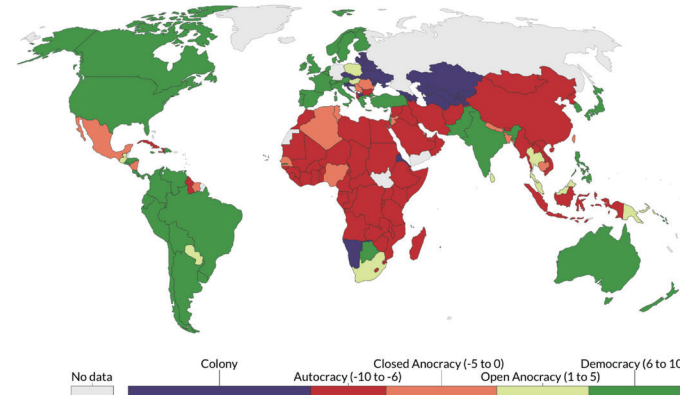
Source: Political Regime (OWID based on Polity IV and Wimmer & Min)  
Note: See the linked democracy entry for some discussion of the complexity in defining democracy and the limitations of this data.

CC BY

정치제도, 1968

### Political Regime, 1989

The Polity IV score classifies the type of political regime for each country on a range from -10 (full autocracy) to +10 (full democracy). Regimes that fall into the middle of this spectrum are called anocracies.



Source: Political Regime (OWID based on Polity IV and Wimmer & Min)  
Note: See the linked democracy entry for some discussion of the complexity in defining democracy and the limitations of this data.

CC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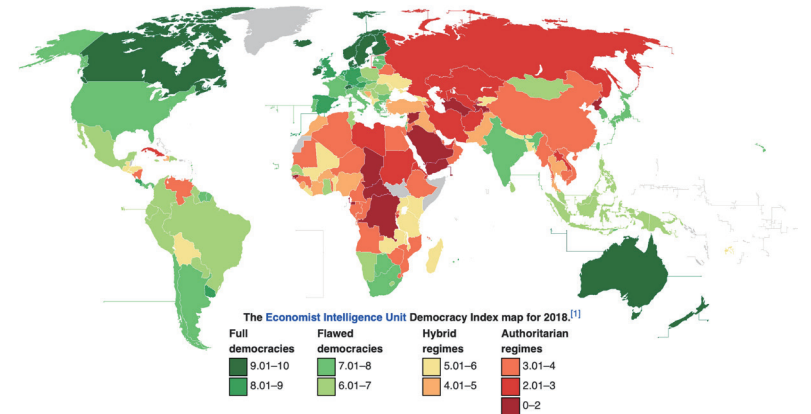
정치제도, 1989

이라는 엄청난 음악축제를 하죠. 비가 오면 텐트를 치고 즐겼습니다. 이 젊음의 축제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조금씩 확산된 와중에도 여전히 식민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동구권 등이죠. 1968년만 하더라도 아직 이런 시대입니다.

1989년이 되면 남미 국가들이 대부분 민주화가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국은 빨간색, 한국은 드디어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1987년 민주항쟁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늘날, 검색(식민지)은 거의 없어졌는데 여전히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의 정도는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하네요. 대만도 아시아 국가에서는 비슷해졌네요. 인도가 민주주의 국가인지는 조금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시스템이 자유주의 시스템을 갖췄다는 뜻일 겁니다. 이렇게 민주화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민주주의 지수 지도

그런데 민주주의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Good Enough Deal', 이 정도면 충분히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좋은 딜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이 자체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항상 살짝 삐끗하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조건은 무엇일까요? 만일 민주주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음 기회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혁명의 역사

이번에는 산업화와 근대화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세계사 시간에 근대화를 가능하게 한 3대 발명품 배우셨나요? 나침반, 화약, 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침반은 위치를 파악하여 공간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는 도구죠. 원시적인 GPS 시스템입니다. 화약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또 다른 초능력, 동력의 확장입니다. 종이는 인간의 시간을 축적 및 누적시켜 역사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 확장의 의미도 있지만 힘의 제약,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후세에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인디언은 동네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에게 2만 년의 역사를 기억시켜서 전수하고 또 전수한다고 합니다. 인간 자체가 메신저가 되는 거죠.

위 세 가지 발명품은 근대로 가는 출입구는 됐지만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이 등장합니다. 산업혁명은 철도를 통해 공간이동을 자유롭게 했어요. 나중에 다시 토론하겠지만 저는 남북 철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통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철도를 이었을 때의 효과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합니다. 이제 밤에도 일할 수 있게 됐고, 노동자들은 더 힘들어졌

어요. 18세기에 영국 노동자들이 시계를 다 부수는 운동을 했어요. 시계 때문에 각자의 생체리듬과 상관없이 출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가 근대 공간의 구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감옥, 백화점, 골목, 공장 등이 등장하지요. 이렇게 이제는 시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2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죠.

3차 산업혁명에 이르면, 이른바 IT조. 앞에서 제가 시대가 다르면 인류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요즘은 유튜브로 돈을 벌고,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BTS와 같은 한류가 발달한 것도 이런 사이버스페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시공간 자체가 새롭게 창출된 겁니다. 젊은이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공간에서 벤처도 운영하고 영화도 만듭니다. 이 공간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꼬리를 잃은 대신 휴대 디바이스가 인체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은 AI, 인공지능인데 시공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인간을 바꾼다고 하면 <육백만 년의 사나이>를 떠올렸지요. 귀가 밝고, 빠르게 달리는 인간. 신체의 형태가 바뀐다거나 ‘매트릭스’의 개념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에게 판단을 대신하게 하지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지만 조금만 더 지나가면 정말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20세기는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 우리에게 시공간과 인간(人間)의 개념까지도 변하게 했습니다. 동양적 개념인데, 저는 ‘간(間)’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라는 거죠. 틈이 있어야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 첫 페이지에서 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조건은 사람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시

대의 가장 흉악한 형벌은 사형이 아닌 시민이 아니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다. 살아서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다.

## 20세기와 산업화

인터넷에서 재밌는 그림을 봤어요. 산업화·근대화 문명의 이기들의 역사를 그린 건데, 여러분 어떤 특징이 보이세요?



한국근현대사박물관 특별전 포스터

우리의 생활 전체를 바꾼 가전들이 있네요. 가전이 무슨 뜻이에요? 가족이 쓰는 전자제품입니다. 가족당 하나 있으면 되는 게 가전제품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빠른 속도로 핵가족화되면서 가족의 수가 늘어나니까 전자제품 수요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산 증인들이세요. 장작도 써봤고, 갈탄, 조개탄도 다 썼잖아요. 우리 때는 연탄이

얼마나 신식이었는지요. 구들장에서 보일러로 옮겨가게 되었지만.

최근으로 오면서 특별한 가전제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전제품들이 생활환경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다 바꿔놓습니다. 여기의 제품들은 자연과의 관계를 바꿨어요. 80년대에 가끔 미군 부대로 생수를 나르는 트럭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물을 사 먹어? 물은 아무데서나 먹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먹는 물을 의심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개울에서 그냥 물을 떠다 마셨거든요. 요즘은 물도 공기도 사야 하지만요. 다들 집에서 공기청정기 돌리잖아요. 자연이 누구에게나 공짜로 제공하던 것을 이제는 전부 렌탈해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하고 1993년에 결혼을 해서 염창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1,500만 원짜리 방을 얻어서 살다가 일산 집값이 폭락하던 때에 일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염창동에서 살 때 집 앞에 있던 비디오가게, 빵가게, 중국집, 세탁소 등이 신도시에는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슈퍼에도 콩나물과 채소를 안 팔아서 마두역에 새로 생긴 대형 마트에 가야 했어요.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고 짐도 무거워 자전거를 한 대 샀어요. 그런데 마트에서 카트를 끄는 순간 카트가 찰 만큼 사게 돼요. 마침 1995년에 친구가 차를 바꾸면서 쓰던 차를 제게 주었어요. 그렇게 카트와 승용차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는 쓰던 냉장고가 비좁아 큰 냉장고를 사게 되었어요. 작은 냉장고를 쓸 때는 공간이 없어서 음식을 나눠 먹느라 이웃과 소통할 일이 많았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가전제품인지 개인전제품인지 방전제품인지 모르겠어요. 전자제품 시대가 우리 사회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렌탈의 노예로 만들었죠.

## 쓰레기가 되는 삶들

이렇게 살다 보니 쓰레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세기 산업화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쓰레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쓰레기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음식물은 가축 먹이나 밭의 거름으로 쓰고, 비닐이 귀해서 비닐봉지 하나 있으면 여러 방도로 활용했어요. 페트병 같은 것도 안 썼습니다. 플라스틱이 귀했잖아요. 휴지도 귀해서 누런 코를 달고 다녔죠. 신문도 잘 구겨서 휴지로 재활용하고, 옷은 항상 형제들끼리 물려 입어서 버릴 게 없었어요. 요즘 한국 사회엔 쓰레기가 특히 많아요. 쓰레기는 안 보이는 곳으로 가요. 고래 뱃속, 새 위장, 결국 우리 뱃속으로 와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환경 병 두 가지가 있죠. 미나마타병水俣病과 이타이이타이병<sup>イタイイタイ病</sup>. 미나마타에 사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아파 미나마타병이라고 부릅니다. 미나마타병이 해결되는 과정이 굉장히 놀라운데, 그건 나중에 지역운동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네팔 히말라야 해발 5,000m에 널린 쓰레기의 50% 이상이 컵라면 용기, 볶음고추장 튜브 같은 한국에서 온 쓰레기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플라스틱 소비량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아요. 왜 그럴까요? 배달 및 택배 문화가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과대포장 이슈도 있죠. 제주도에선 쓰레기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결국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쓰레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핵폐기물은 정말 버릴 데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정말 엄청난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 20세기와 세계화

이제 세계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5년 전쯤, 19세기와 18세기 지식인들 사이에서 누가 더 세계화가 되어 있는가, 더 세계화된 시각을 가졌는가를 논한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지식인들이 훨씬 더 세계화된 것이 아니냐’라고 누군가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한 중국 공산당의 외무부장관을 오래했던 저우언라이<sup>周恩来</sup> (1898~1976)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가, 일본이 학문적 근거지로 삼았던 영국으로 옮겨 공부하다가, 결국엔 프랑스 파리로 옮겨갔어요, 그의 궤적을 살펴보면 당시 세계질서의 핵심 지역을 알 수 있습니다. 저우언라이는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았던 거죠. 그를 따라 유학 온 후배가 덩샤오핑<sup>鄧小平</sup> (1904~1997)입니다.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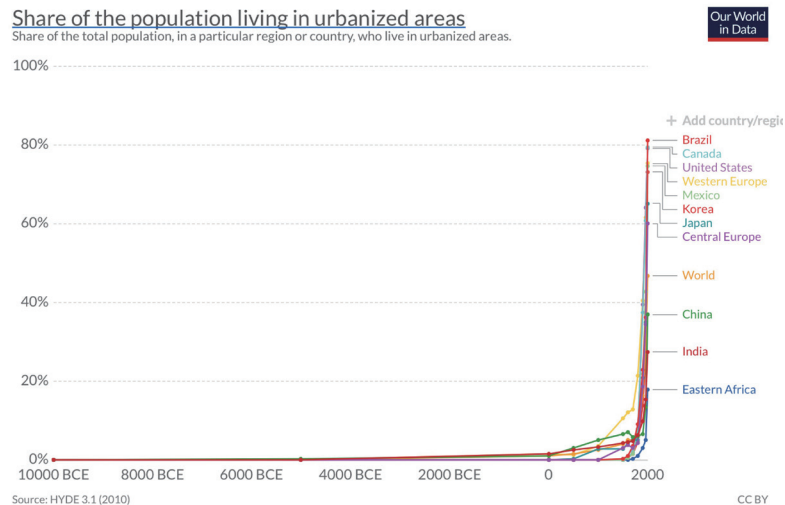
2017년 나라별 마스터카드 지출 통계



는 중국이 폐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도자들은 굉장히 개방적인 시대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중국이 가능한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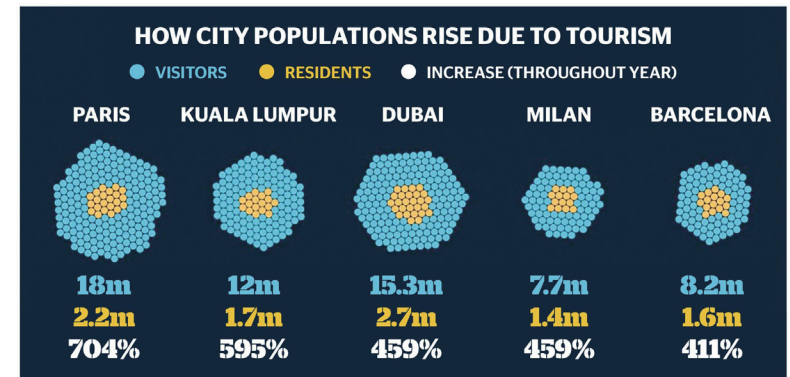
세계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흔히 자본의 이동을 많이들 말합니다. 유튜브에도 자주 등장하죠. 하이테크, 신자유주의 등이요. 위그림은 여행지에서의 소비량을 나타냅니다. 여행을 가서 돈을 많이 쓴 나라가 미국, 멕시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고 한국도 11위 정도 됩니다. 마스터카드가 카드 지출을 중심으로 낸 통계입니다. 누가 어디서 돈을 쓰는지 빅데이터로 드러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예인데,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화의 또 하나의 특징인 도시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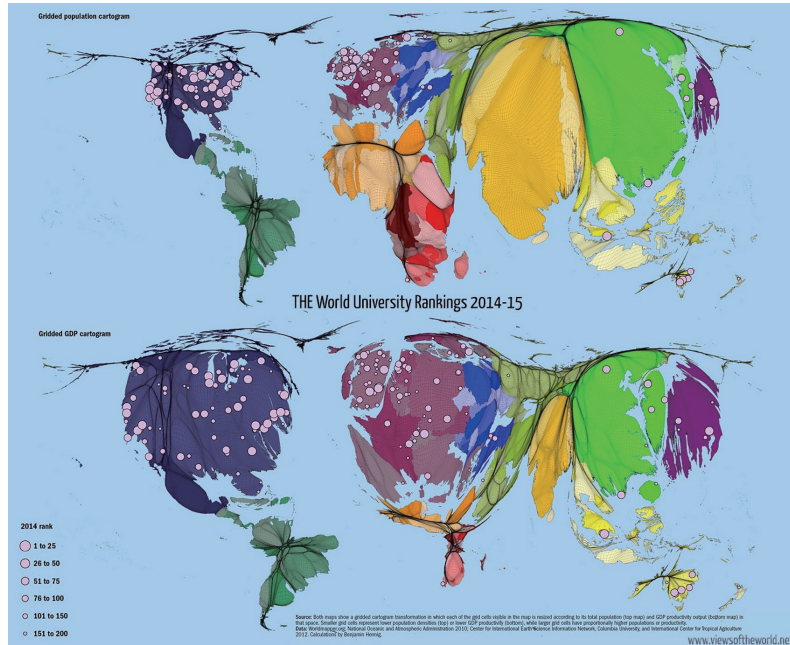
도시에서 거주하는 인구 비율

습니다. 한국은 85%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한국은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삶의 공간이 급속히 도시화되었고, 도시에 살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전제품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소비지향적 사회로 이끌어 쓰레기를 양산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관광으로 인한 도시 인구증가

이게 또 무슨 통계냐면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관광객이 인구의 일곱 배 이상을 차지하는데, 도시는 저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수용 능력을 떨어뜨려서 도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오버투어리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한중일은 이 문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관광객의 소비를 늘리는 데만 무서울 정도로 경쟁하고 있죠.



카토그램, 2015년 인구 데이터(위)와 세계랭킹 500위 대학(아래)

## 세계화의 지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의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화를 하면 할수록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으로 세계화라는 질서를 만드는 자가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룰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컨대 FTA가 그렇죠. 동네가 좀 발전한다 싶으면 스타벅스, 맥도날드 같은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상권을 망가뜨리잖아요? 결국은 승자독식 사회가 세계화의 하나인데, 경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지식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카토그램 cartogram’이라고 하는 건데, 지도에 육지 면적이 아닌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왜곡되는 면적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지도의 윗부분은 2015년 인구 데이터를 집어넣은 결과입니다. 우선 인도와 중국은 인구집계가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되지 않기도 했지만, 멕시코가 꽤 크죠. 미국은 그나마 괜찮은데 캐나다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유럽도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남미도 상단부는 잠자리처럼 쪼그라들었죠.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이 뚱뚱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의 아랫부분은 세계랭킹 500위 안에 드는 대학들을 입력해 도출한 것입니다. 미국이 엄청 뚱뚱해지죠. 미국이 지식 세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모두들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식 지식을 갖고 와서 한국을 설계하면 (이과는 큰 상관없지만) 국제질서와 관계된 학문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의 이해가 더 많이 개입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거대한 공룡인 넷플릭스에 <시크릿 시티>라는 호주 드라마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 드라마에 호주가 어떻게 미국의 ‘호구’가 되어가는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노라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어? 호주도 그래?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시 그림을 보자면 캐나다도 작고, 독일이 좀 크고, 영국이 큼니다. 영미권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자기들 안에 지식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한국도 조금 커지긴 했는데 이거는 아마 지표를 500위 안에 드는 대학으로 넣어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거의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3년 전에 스페인에 갔었는데, 그곳에 재미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어 번역본이 없었어요. 현지 교수들에게 “이런 책들을 영어로 번역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했더니 번역할 예산이 없대요. 하지만 그게 정확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엔 모든 자료들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을 것 같지요. ‘영어’라는 프리즘에 걸려진 지식사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 체계에서 공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틀을 형성해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 하나가 ‘전쟁’이라는 거죠.

## 20세기와 국가

여러분 혹시 <대굴굴기大國崛起> 보셨나요? 중국 CCTV에서 만든 역사 다큐멘터리인데, 2007년에 EBS에서 특별기획으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책으로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됐지요. 중국이 왜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도 박정희 정권 시절 조국 근대화 얘기를 많이 했지요. 일본의 경우엔 메이지유신 이후 패전하고서도 올림픽을 치르면서 큰 국가로 발돋움했지요. 중국도 2000년이 되면서 경제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대국으로 갈 수가 없다 생각한 거죠.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풀뿌리’예요. 조직이 아주 섬세하고 촘촘합니다. 그리고 중앙TV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KBS가 1, 2 채널밖에 없죠. 중국 CCTV는 채널을 10개나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대굴굴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쉽고 재밌게 만들었어요. 중국 인민들에게 저런 대국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주고, 대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목적에 충실한 다큐로 아주 대성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이 돼요. 9개 국가를 11편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이 9개 국가 중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일본입니다. 저는 수

업에서 아시아를 공부할 때 항상 학생들에게 일본 편을 보여줍니다.

비판적으로 보긴 해야 합니다. 1851년, 페리 제독 Matthew Calbraith Perry(1794~1858)이 와서 일본에 개방을 강요합니다. 당시 페리 제독이 가져온 증기기관, 나무가 아닌 철로 만든 배가 일본에게는 외계문명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때는 메이지 明治天皇(1867~1912 재위)가 천황이었어요. 요시다 쇼인 吉田松陰(1830~1859)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21살에 배에 잠깐 탔다가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배에 탔을 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근대문명이란 이런 거야,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밑에서 서양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제자 중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죠. 일본 개혁파의 대부분이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 일본이 근대국가를 만들기 1868년에 결정했는데, 문제는 근대국가를 만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국가를 디자인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1871년에 이와쿠라 사절단 岩倉使節團을 구성합니다. 1년 10개월 동안 배를 타고 당시 국가 예산의 2%를 쓰면서 세계를 돌아다녀요. 근대국가 학습에 오늘날 한국 외무부 예산을 쓴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와서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쓰고 일본을 설계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다스릴 거니까 너희들이 가서 열심히 배워서 와라. 이런 방식으로 만든 나라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하지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인상적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늘 자기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평생 동안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지 충분히 학습해왔다고.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좋아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경우는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5년 열심히 학습했는데 그 학습한 것이 공적 자산으로 남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끝나고 말았어요.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분인데도요.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그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로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일본

근대화는 이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일본 만 엔짜리 지폐 속 인물이 바뀌면서 일었던 논란도 등장합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1835~1901)에서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沢栄一)(1840~1931)로 모델이 바뀝니다. 사실 둘은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후쿠자와 유키치는 게이오대학을 설립한 교육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도 대표적인 정한론자(征韓論者)예요. 일본은 빨리 제국이 되는 것이 중요했고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아시아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업을 들여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잡아 칭하는 ‘공순이’의 일을 일본에서는 고관대작들 딸들이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굉장히 높게 준 거죠. 1880년이 되면 이제 웬만큼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본 헌법을 만듭니다. 천황 하에서. 그동안은 없었다가 헌법이 있는 국가가 되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1894년에 청일전쟁을 해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대만이 일본 식민지가 됩니다. 헌법을 만들기 전에 오키나와를 복속시키죠. 류큐 왕국을 오키나와로. 그 다음에 대만. 그리고 나서 1904년에 러일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TV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보셨나요? 1904년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인과 중국인 캐릭터가 없어서 참 희한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중국은 그 당시 졌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대인데 드라마에서는 빠졌죠. 그리고 나서 10년마다 전쟁을 해요. 1894년, 1904년, 1914년 제1차세계대전까지. 1945년까지 일본은 완전히 제국주의 국가로 돌진합니다. 이제 일본은 새로운 국가, 평화국가라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올해 2019년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새로운 100년을 꿈꾸자는 게 정부의 계획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마냥 우리가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남북 관계 문제도 있고, 한일 관계도 있고, 미중 관계도 있고, 또 한미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실타래가 20세기에

풀리지 않고 그대로 21세기의 과제로 이전되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엔 일본이 올림픽을 유치합니다.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죠. 한중일은 여전히 답답하게 ‘국가주의’를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있고요.

## 한국의 근대화 과정

민족국가(nation state)를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산업화, 근대화, 그리고 사람들을 모던(modern)하게 계몽시키는 것. 그 모던하게 어떤 거냐, 개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문제는, 민주주의가 정말 그것을 가능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근대국가는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예를 들어서 IMF에 당하지 않으려면), 경제력을 갖추려면 결국 부국강병이 되는 거죠. 부국강병의 가치는 한중일,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강성대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요한 건 다 ‘대국’이라는 점입니다. 모두 다 ‘대국굴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대국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앞에서 바스크 얘기를 했는데 바스크나 카탈루냐 같은 경우에는 대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소국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역국가(local state)로. 그런데 우리는 ‘local state’가 아니라 ‘nation state’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state’를 만드는 ‘nation’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가야죠.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신화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거죠. ‘nation state’, ‘modern state’, ‘capital state’라고 하는 이 요소들이 국가를 만드는 핵심적 기제로 작동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성실히 여기에 복무해왔어요. 아직도 길들여져 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박정희 정권 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했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에 앞장섰노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에게 조국 근대화는 거의 자기 신념이죠. 이런 슬로건이 담긴 우표도 많이 모아보셨죠? 1968년 1·21 사건 이후 박정희는 주민등록증을 만듭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그리고 국민교육헌장을 비롯한 전 국가 병영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비군 제도 도입, 그러니까 군 복무를 마쳐도 고을마다 향토예비군을 두어 모두를 평생 군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군단을 만들어서 교련 훈련을 시킵니다. 이 병영국가가 조국 근대화로 간다, 이런 프레임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 우리와 지금의 젊은 세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대화가 되려면 젊은 친구들은 이런 역사를 공부해야 하고, 우리는 지금의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인식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침반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나침반을 갖고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말이죠. 공간적 GPS가 아닌 역사적 GPS가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지금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만들어진 국가에 대해 의문을 한번 제기해보고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질의응답]

Q. 선생님은 왜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연결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통일되면 신의주 여행 가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A.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차는 사람만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화물도 싣고 다니잖아요? 현실은 사람보다 자본이 훨씬 빠르게 이동될 거예요. 혹시 ‘빨대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컨대 KTX가 놓이면 대구나 광주 같은 지방 도시가 발전할 거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지방의 사람들이 서울로 오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버스로 네 시간 거리에 있는 대구의 한 대학에 발령이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대구에 거주지를 구하고 주말에나 서울에 오겠죠. 하지만 KTX가 있으면?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등학생들에게서도 발생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빨대효과입니다.

남북 철도가 개설되면 사람들만 왕래하게 될까요? 예전에 어쩌다 시베리아 가스 회사 통역 일을 한 적이 있어요. 007 영화처럼 가스를 연결해 남쪽을 통해 일본까지 옮기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북한을 통해 연결해야 하는데 북한은 가스 소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동력이 안 돼서 본전을 못 뽑으니 북한을 통과해서 남쪽에 있는 가정 혹은 공장에서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피스 PEACE’, ‘Peace Energy and Clean Energy’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러시아 KGB 등 여러 단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남북 철도를 연결하면 다들 북에 가서 성장하려 하겠죠. 자본이 먼저 가게 될 텐데, 분명히 난개발로 이어질 거라 예상합니다. 우리 남쪽 자본만 들어갈까요? 미국이 광산자원에 얼마나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몽골처럼

될 겁니다. 캐나다와 중국이 대표적인 광산 자본 기업들이거든요, 그 기업들이 몽골에서 아주 싸구려 화약으로 광산을 터뜨리는데, 그게 몹시 유해해서 큰 강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강이 사라진 탓에 현재 유목민의 수가 급속히 줄어들었어요. 이게 벌써 10년이 된 얘기입니다, 제가 2007년에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답답해서 몽골 사람에게 왜 시위도 안 하나고 했더니 좀 기가 막힌 세 가지 이유를 말해줬어요. 첫 번째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망가지면 떠나면 된다. 두 번째는 몽골이 너무 가난해서였어요. 몽골 인구가 200만 명 조금 더 되는데, 그 큰 몽골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울란바토르에 살아요.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 땀감이 없어서 모든 걸 다 태워요. 미세먼지 생산 기지예요. 그리고 주범이 한국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중고차를 엄청나게 수출하거든요. 꺼먼 매연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문제는 한류도 있고 해서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글씨가 굉장히 세련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입한 중고차의 '삼양동 25번 버스' 표식을 그대로 남겨두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똑똑한 국민들은 다 해외로 떠났다고 합니다. 조직화할 친구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 몽골 인구 200만 명 중에 2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렇게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이죠. 몽골인들이 언어에 능하거든요.

남북 철도는요, 연결하는 순간 모든 자본이 북한에 빨대를 꽂을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지역 모델을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산업화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화도 마찬가지인데, 국가 차원에서 실험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새로운 실험을 이제 지역에서 해야 하는데 지역이 굉장히 유연<sup>flexible</sup>해져야 돼요. 마을 단위로도 사고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처럼 구 단위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동북4구처럼 권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서울'시' 단위로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된 크기에 맞

춰서 정치적 의사나 사회적 의사를 발의할 수 있어야 국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시는 '진지전'을 얘기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기동전'을 해봐야 피만 본다. 지금 우리는 기동전을 펼치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승자독식 사회이니까요. 그럼 뭘 해야 하는가? 장기전으로 가야 합니다. 장기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지역인 거죠. 그렇게 안 하면 국가도 죽습니다. 국가는 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몸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가 단위 사고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국가 단위적 사고로 바꾸려고 하면 대단히 어려운 거죠.

금강산에 가보셨나요? 처음엔 금강산 관광을 배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을을 조금씩 바꾸고, 북한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체력을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을 때 철도를 까는 것이 좋습니다. 부탄의 상황을 보세요. 부탄이 GNH<sup>Gross National Happiness</sup>라 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1년마다 제한을 뒀잖아요, 부탄 과학기술부장관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부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자본주의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인터넷 쓰고 싶고, 인프라 깔고 싶고, 스타벅스 이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겠어요? 부탄을 독재로 봐야 할까요? 신자유주의가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빗장 풀어" 하겠죠. 일본도 2004~2005년 고이즈미 집권 때 빗장을 풀었지요. 북한 문제가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에서 보여주신 민주화 지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지표들 가운데 지속 가능성, 개방성의 기준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근대국가 내, 21세기 서구 지식 체계 내에서의 민주화 개념에 의문이 듭니다. 가령 아프리카의 어떤 곳은 민주화라는 개념이 없어도 더 나은 사회일 수 있습니다.

A. 질문자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우리만 해도 인덱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집니다. 서열화를 하니까요. 얼마 전에 중소기업 상 주는 거 그거 전부 다 돈거래라고 심의한 거 보셨죠. 그런 일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많이 합니다. 「중앙일보」는 대학 서열도 매기지요. 권력을 행사하는 한 과정입니다. 위의 민주화 지표는 영미권에서 한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미국식, 서구식 기준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근대화’라든가 ‘정치 발전’이라는 표현에 반감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치 발전’이라는 수사를 굉장히 싫어했죠.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과 지하<sup>under</sup>에서 공부하는 것이 달랐어요. 학교에서는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든지 가브리엘 알몬드라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며 정치 발전을 다뤘는데, 그때 정치 발전의 핵심 키워드가 ‘경쟁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어떻게 공정하게 경쟁하는 룰을 만들 것인가’를 논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경쟁이 얼마나 피곤하니까.

어제 사회과학 학술제 토론회에 갔는데 학생들의 토론 방식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약점 잡기, 논리적 허점 잡기.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계속 사소한 것에 갇혀 있다가 끝났어요. 한국 사회는 늘 토론식 교육이 부족하다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학교 교육으로 전환되는 순간 본질이 변하게 돼요. 줄 세우는 입시가 되는 거죠. 입시를 통해 똑똑한 놈을 가려 뽑아야 하잖아요. 이게 걸러내는 filtering 시스템으로 기능하게 되니 학생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만들어진 걸 만약 보고 싶으시면 UN에서 만든 17개 지표를 참고해보세요. 2015년에 MDGs에서 SDGs로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지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안에 꽤 훌륭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덱스가 어떻게 반응이 될 건지는 전망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

우리 쪽에서 보려면 반동 선언에서 만든 10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10가지 원칙이 아주 훌륭하거든요. 참고하시면 우리가 인덱스를 새로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20세기가 굉장히 다이내믹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는 20세기보다 좀 덜 다이내믹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A. 21세기를 맞이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더 빨리 결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세기는 망하지 않았으니 다이내믹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더이상 다이내믹해지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봅시다. 본질은 후쿠시마 방사능을 쓰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국가주의적 nationalism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아베가 망신당했다. 싹통이다. 뉴스 보도가 그런 식이잖아요. 우리에게서 원전 25기가 있습니다.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원전 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었는데 2030년까지 원전을 100개 더 짓겠다는 겁니다. 원전은 냉각수를 사용해야 해서 해안가에 지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 해안가가 다 우리 서해안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의 기술이 부족해서 미국에서 파견을 왔었거든요. 대만은 건설 중간에 스스로 그만뒀는데, 독일의 웨스팅사에서 건설한 원전들을 아무도 한꺼번에 조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핵 기술은 미국이 쥐고 있어요. 미국은 끝까지 핵심 기술을 안 줄 겁니다.

미국의 헤게모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집중해서 관찰하지 않으면 너무 복잡해서 알아차리기 힘들습니다. 제가 1993년 북경에 처음 갔을 때 화장실에 문이 없었습니다. 천안문 광장에 중국 맥도날드 1호점이 생겼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맥도날드는 햄버거만 파는 곳이 아니라 미국인

이 전 세계를 다닐 수 있게 하는 민간인 베이스캠프다'였어요. 전 세계에 미국 군사기지가 약 800개 되거든요. 전 세계 국가 수가 220개쯤 되는데 맥도날드 매장은 2만 개쯤 돼요. 미국인들이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인프라가 깔린 겁니다. 중국에 그런 맥도날드가 깔린 겁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중국 식당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미국인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집이 우주정거장처럼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여행 다니는 데 지장이 없게 돕는 것처럼요.

지금은 중국에 스타벅스가 많지만, 94년도 제가 상해에 갔을 때 상해에서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스타벅스가 막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정원이 있는 근사한 찻집 앞이에요. 아무도 스타벅스에 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커피보다는 차를 선호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가 영원히 중국에 자릴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몇 년 뒤 스타벅스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시대가 다르면 다른 인류가 삽니다. 미국 문화가 깔린 환경에서 자란 젊은 세대들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도 스타벅스 1호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철도, 도로만이 인프라가 아닙니다.

지역이라는 공간을 폐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우언라이와 덩샤오핑이 누구보다 세계화된 중국을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새로운 인류가 계속하여 등장했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특히 지역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새로운 인류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2강

###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한국 현대사

- 해방 정국에서 평창올림픽까지 -  
가족, 마을, 직장, 사회 그리고 국가



이론적인 틀을 살짝 잡아볼까요. 클리퍼드 기어츠(Clifford James Geertz)(1926~2006)라는 저명한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3대 인류학자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사람인데요, 그의 역작 『네가라(Negara)』(1980)<sup>2)</sup>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는 다들 잘 알지만 ‘네가라’는 잘 모르시죠. 네가라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발리 지역의 원시공동체가 ‘국가’를 칭하는 명사입니다. 우리가 ‘국가’라는 말 외에도 ‘나라’라는 말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비슷하게 ‘공동체’라는 말도 있지요. ‘나라’와 ‘국가’가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다면 사실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어권에서도 ‘state’라고도 쓰고 ‘country’라고도 쓰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찬가지로 네가라는 공동체 사회, 특히 발리 지역에 있었던 원시공동체 부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학자가 발리에서 관찰한 네가라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의식’이었습니다. 흔히들 국가라고 하면 영토, 국가의 구성원, 제도의 순서로 떠올리기 마련이지요. 더 구체적으로는 헌법, 군대, 관료 등입니다. 하지만 네가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요소는 ‘세리머니’입니다.

사람들이 문화예술 행사, 페스티벌을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와 정신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는 이를 ‘극장국가(theatre state)’라고 옮겨 썼어요. 네가라에선 극장 무대를 통해 누가 통치자이고 누가 피지배자인지를 구분 짓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공유합니다. 이 개념은 널리 확대되어 극장국가를 분석하는 주요 도구가 됩니다.

2) 국내에서는 『극장국가 네가라』(김용진 옮김, 눌민, 2017)로 번역 출판되었다.

## 극장국가

대표적인 두 극장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첫 번째 국가는 북한입니다. 퍼레이드, 세리머니, 매스게임. ‘아리랑 공연’을 떠올려보십시오. 어버이 수령님을 외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연상될 겁니다. 2018년 남북 실무회담 때 북측 대표로 왔던 현송월 단장 기억나시죠? 현송월 단장은 북한 문화의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공연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가인 거죠. 어떤 학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일성 수령 정치의 핵심은 그리움의 정치다.”<sup>3)</sup> 김일성을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그 그리움을 그 후손으로,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이어가는 세습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무대장치에서 이뤄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대표적인 극장국가는 일본입니다. 사실 남한 사회도 극장국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극장이 있으면 무대가 있지요. 무대는 보여주는 장치예요. ‘보여지는’ 곳이지요. 무대 맞은편에 사람들이 쭈 앉습니다. 그리고 조명으로 무대를 비춥니다. 어떤 조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관객석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이 바뀝니다. 또한 무대에는 연출이 이뤄지는 후면이 있습니다. 국가의 형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연출을 하느냐? 어떤 철학을 반영하느냐? 어떤 조명을 쓰고 스포트라이트를 어디에 비추느냐?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더 큰 사건을 띄워서 이 사건에서 관심을 뺏습니다. 이런 게 바로 ‘무대의 장치’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극장국가의 무대가 우리 가운데로 옮겨졌죠. 마당극

3) 김윤애, 「영생하는 수령과 ‘그리움의 정치’: 김일성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유혼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2016, vol.56, no.2, pp.207-251.

처럼 무대의 후면은 없고 무대 안에서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무대장치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극장국가라고 하면 강연장처럼 무대와 관객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극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출과 각본이 존재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그래서 세리머니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세리머니와 의식과 문화를 컨트롤함으로써 국가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근데 이제는 관객 가운데의 무대로 바뀌었어요. 저는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을 여기에 빗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종의 메타포일 뿐 꼭 맞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극장국가 북한’, ‘극장국가 일본’이라는 식의 연구서는 이미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학자들이 기어츠의 네가라를 원형으로 분석한 학술 논문을 많이 발표해서 학계에서는 일본과 북한이 극장국가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 두 국가 말고 남한, 대만, 중국도 극장국가에 대입이 가능합니다. 한중일 극장국가 스타일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후반부에 한국 현대사를 언급할 때 다시 극장국가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simulation)’이라는 표현은 모두들 익숙할 겁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 실내에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연습하죠. 일반인들의 자동차뿐 아니라 우주비행사의 우주선 조종도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합니다. 우주선을 실제로 띄우려면 비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의 핵심은 가공의 공간입니다. 현실과 똑같이 꾸며 놓은 장치를 우리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전쟁에도 쓰입니다. 시뮬레이션 게임 들어보셨지요? 상황 설정을 그대로 가져와 하는 게임들을 보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는데, 군사 작전을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 여러 각도로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지요. 현실의 모사입니다.

얼마 전 타계한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1930~2002)라는 학자가 ‘시뮬라크르(simulacre)’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극장국가처럼 사람들이 시뮬레이션된 것을 현실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되는 공간은 바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로 현실을 전부 전할 수 없으니, 현실을 최대한 모사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요즘 무슨 일이 있었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론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을 이용해서 동그란 현실 세계를 평면의 무대로 만듭니다. 부르디외가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네모 혹은 별 모양을 읽으면 이 도형이 행동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이러한 도형으로 모방하는 순간은 ‘시뮬라시옹’이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의 현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그 형상이 진짜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현실이 된다는 의미에서 ‘시뮬라크르’라고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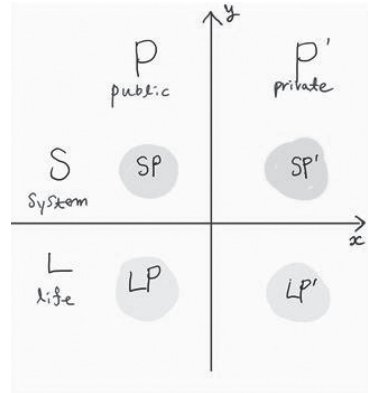
예컨대, 제 장인어른은 상당히 진보적이신 분인데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배포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 상당히 보수화가 되었습니다. 반~~반~~문재인 성향이 되셨어요. 받은 문자메시지를 저도 봤는데,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시뮬라크르를 확대 및 재생산하고, 그걸 믿음으로써 행동이 바뀌는 거죠. 현실을 정복하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론의 영역이 중요한 겁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현실은 불가지론입니다. ‘팩트(fact)’라는 표현 다들 좋아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팩트를 말하더라도, 머릿속에 스토리텔링으로 와닿지 않으면 팩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뮬라

크르가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극장국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극장국가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시뮬라크르로 공유하는 순간 이를 인식한 사람들은 이를 통해 영감을 얻고, 현실에서 활동하는 것이지요.

## 정부, 기업, 국가, 가족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현실에 적용하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기를 즐깁니다.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가로축에 퍼블릭public과 프라이빗private을 두고, 세로축에 시스템system과 라이프life를 두겠습니다. ‘공적인 시스템’과 ‘프라이빗한 라이프’. 여러분은 쉽게 구분하실 수 있나요?

시스템과 라이프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법의 영역은 모두 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대로 안 하면 처벌받는 거죠. 자, 그러면 법에 영향을 받아 법에 의해 움직이는 대표적인 공적 영역 단위는 뭘까요? 정



한국 현대사를 한 프레임으로 정리하는 사본면

부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프라이빗한 영역에 있는 중요한 행위자는 뭘까요? 대표적으로 기업이 있지요. 기업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도의 영향을 받죠. 회계 시스템도 있고, 감사제도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 프라이빗한 영역의 시스템이 더 발달해

서 협동조합도 들어가고 사회적기업도 들어가고 굉장히 다양한 것이 프라이빗 영역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공적인 것이기에 선거를 통해서 구성하거나 시험을 봐서 자격을 논하죠. 그런데 협동조합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명 이상 모이면 출자금을 내서 조직하면 되죠.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와 똑같습니다.

제도의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는데 공적으로 움직이는 기관들이 있어요. 뭘까요? 시민결사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 조직. 이 표현에 만족하지 않은 이들은 ‘사회운동조직SMO, Social Movement Organization’이라고 칭합니다. 항상 운동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O’에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두 다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NG’, ‘NP’, ‘CS’, ‘SM’. 느낌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NGO와 NPO를 구분 없이 썼어요. 시민단체를 싸잡아 NGO라고 했지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에 NGO와 NPO는 급격하게 다른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동북권NGO지원센터’ 아니죠, ‘NPO센터’예요. 왜냐하면 ‘Non Profit’이 되면 정부가 돈을 지불하기가 편하거든요. 퍼블릭한 영역이죠. 그런데 ‘Non-Government’가 되면 ‘정부가 아닌데 왜 자꾸 정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활동을 NPO라고 하고요, NGO라고 하면 보통 국제 활동 조직을 말합니다. 어쨌든 다 시민사회단체입니다.

그렇다면 프라이빗하면서 생활 세계life에 속한 영역은 뭘까요? 네, 가족이에요. 위의 그림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입체적으로 이해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예요. 예를 들어 대학교는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기업하고 비슷한가요?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국립대학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갑자기 국립이라고 하니깐 정부에 해당될 것 같죠. 그럼 이걸 어때요? 삼성이 성균관대학교를 샀어요. 성균관대학교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비인가대학교 혹은 대안학교는? 한유총한

국유지원총연합회는? 국가가 사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만일 'Life-Private'에 들어간다면 한유총 주장이 다 옳은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가족이고 프라이빗인데 왜 정부가 개입해? 요즘에 이 영역이 굉장히 애매해지고 있어요. 예전엔 부부싸움을 하면 프라이빗 영역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정폭력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영역들이 허물어지고 있고,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영역, 네 개의 사분면을 좀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드라마틱한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사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을 인터뷰해보세요. 전부 다 영화감이에요. 영화 <국제시장>이 관객 1,000만 명을 달성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그 영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아버지, 장인어른만 봐도 다들 너무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어요.

1945년부터 시작해볼게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됩니다. 그 다음의 중요한 사건은 뭐가 있었을까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1950년 한국전쟁, 1960년 4·19, 1961년 5·16, 1948년 4·3, 1953년 7월 27일 휴전,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10·26, 12·12, 1980년 5·18, 1987년 6월 항쟁, 1988년 서울올림픽. 또 우리 역사를 바꾼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1988년까지는 정권이 정상적으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합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간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 취임 1998년 2월 25일

을 넣겠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게 역사적으로 중요할까요? 네, 오늘 논의할 주제 중 하나입니다. 1988년 노태우 정부 출범. 1993년 김영삼, 1998년 김대중, 2003년 노무현, 2008년 이명박, 2013년 박근혜,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것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판단해주세요.

1964년 베트남 전쟁 파병, 1965년 한일 협정,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2년 한중 수교,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 1997년 OECD 가입, 2006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5년 호주제 폐지, 2008년 금융위기, 2008년 촛불, 2016년 촛불.

해방 후 3년, 5년, 8년으로 나눠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0년대에 해방 전후사를 공부했다면 이런 단위로 나뉘어 봤을 겁니다. 1960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한 번 끊고요, 1979년~1980년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죠. 1987년~1988년도 한 번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1997년에 신자유주의가 전파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럼 199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같은 맥락에 있을까요? 어디가 기점이 될까요? 2008년 광장 촛불이요? 촛불을 다룰 때는 2002년부터 다루는 것이 정설입니다. 촛불로 인해 정권이 교체된 2016년이요? 2002년과 2008년, 2016년, 세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 '승리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의 의견에 따라 2016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좀 잘라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간만 많다면 얼마든지 더 추가할 수 있지요.

제가 어쩌다 이 사분면을 고안하게 되었냐면, 박사과정 중일 때 학기 초에 문제를 하나 주고 한 학기 내내 수업을 안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기말에 학생들을 모아 문제에 답하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한국 현대사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오라는 것이었어요. 고민을 많이 한 결과가 이 사분면이에요.

## 1940년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우리에게엔 정부가 없었어요. 정치권력의 종류를 일곱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 하나는 ‘외세’입니다.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Foreign Power라고 하니깐 F라고 씁시다. 남한에서는 USA겠죠(F-USA). 이 당시의 시민단체는 동전의 양면인데, 지금처럼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면 사회봉사단체처럼 느껴지지만 정치가 엄중할 때는 사실상의 준정치 역할을 했어요. 우리 한국사에서 독특하게 존재하는 ‘재야’라고 하는 공간이 있죠. 국회에서 정치를 더이상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나온 정치인(대표적으로 김대중, 김영삼)이 재야와 제도권을 오갔지요. 그 재야 정치인들과 민중 지도자 혹은 학생운동을 합친 것을 재야 정치 세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이 초대 재야 세력들은 이 ‘F-USA(사분면의 SP)’만 좀 빠져나가주면 위로 올라가고자, 정부를 구성하고자 했던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정치 지향적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945년부터 1953년까지의 시민사회 세력은 좌와 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했던 겁니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지리적 분단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때는 DMZ가 아닌 38선이었어요. 말뚝 하나 박고 그은 것이 전부였어요. 위에는 소련이 밑에는 미국이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는 왕래를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박헌영을 비롯한 이른바 남로당 지도부가 있었고요, 우리가 중도좌파라고 하는 여운형, 김규식 등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김구와 이승만을 비롯한 우측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권력이 압도적으로 켜었어요. 그리고 기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화신백화점의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 친일파로 몰려서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1945년, 김원봉이 김구와 함께 단독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 김일성을

만나러 북으로 갑니다. 김구는 돌아오고 김원봉은 그곳에 남습니다. 사람들은 김원봉이 월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문서를 보면 김원봉은 노동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어요. 북한에 남았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 정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노동당원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회색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김원봉을 사회주의자로 알고 있었어요. 당시 대표적인 사회주의자 여운형이 암살당했으니 자기가 귀국하면 암살당할 것이라 직감해서 남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 김원봉을 언급해 화제가 되었죠. 영화에서도 짧게 등장합니다. 영화 <암살>에서 배우 조승우가 단역으로 출연하죠. 영화 <밀정>에서는 배우 이병헌의 배역이 김원봉을 연상시킵니다. 앞에서 극장국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무대 위에서 이런 담론이 살짝 고개를 내미는 겁니다. 김원봉은 임시정부 당시 지금의 국방부장관에 해당되는 직위에 있었어요.

1945년 이후 한국 사회를 버티게 한 것은 가족의 영역입니다. 모든 걸 가족이 해냈습니다. 집안에 명민한 형 하나 있으면 전부 형한테 배웠지요. 교육의 영역뿐입니다. 사회 재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를 가족들이 책임지고 운영했어요. 게다가 의료도 가족이 해결했어요. 제 할머니는 딱 두 가지를 항상 지니고 계셨어요. 갑오징어뼈와 빨간약.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만병통치예요. 민간요법이죠. 제 어머니는 한 세대 뒤니까 거기에 안티푸라민 추가. 여드름이 생겨도, 발목이 삐어도 안티푸라민을 발랐어요. 이러한 상태가 197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1948년 제주도에서 4·3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제주도 남로당이 일으킨 반란이 맞습니다. 당시 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국회의원 선거에 등록한 정당 수가 미등록까지 합하면 서울에는 300개가, 지방에는 150~200개 정도의 정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에는 남로

당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제주도는 오랫동안 설움이 많았던 곳입니다. 대표적인 귀양지였죠. 여러분 혹시 제주 ‘알뜨르 비행장’을 아세요? 일본 비행기가 떴던 곳이에요. 피해자지만 가해자가 된 것 같은 불쾌함과 불편함을 주는 곳이죠. 그래서 제주도에는 민중의 지지를 받던 정당이 남로당밖에 없었어요. 토지개혁, 반민특위 등으로 당시의 민의를 대변했고 그것이 제주도의 이해관계와는 잘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4·3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5·10 선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해서 4월 3일 남로당이 중심이 되어 집회를 열었던 겁니다. 다만 남로당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3분의 1이 학살되었습니다. 많은 유해가 제주공항 밑에 묻혀 있습니다. 제주도에 어떤 국어선생님이 쓴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의 시조새들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바닥을 할퀴며 차오르고/ 찢어지는 핑음으로 바닥을 짓누르며 내려앉는다”<sup>4)</sup>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장면을 묘사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면 “잠시 두 발을 들어올린다”고 합니다. 미안해서요. 뭐 그런 분도 계십니다.

1948년으로 넘어가면 사분면에서 외세의 자리는 없어지고 여기에 정치 세력들이 들어섭니다. 기업은 여전히 작고 가족이 아직도 많은 것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 1960년대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승만은 6·25 때부터 인기가 없었어

4) 김수열, 「정뜨르 비행장」, 『바람의 목레』, 애지, 2006.

요, 투표하면 질 수밖에 없어서 부정선거를 반복했던 거죠. 한국전쟁 때 모든 국민이 당했잖아요. 안심시켜 놓고 혼자 피난했죠.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도망치려고 했더니 한강 다리를 폭격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죠.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승만은 권좌를 유지했지만 이미 암살 천국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테러가 중요한 정치적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테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약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투쟁수단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가들도 다 테러리스트죠.

1960년으로 넘어가면 경제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0년과 1961년은 굉장히 다릅니다만, 권력도 점점 확대돼가고 있었어요. 물론 4·19 즈음에는 이 권력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8월에 시작된 제2공화국 내각은 불뚱이 없었어요.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당대의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이 정부로는 안 된다”, “너무 혼란스럽다” 같은 말들이 남아 있어요. 어르신들 몇 분을 인터뷰해보면 5·16 군사정변을 환영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불안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난 지 7년밖에 안 된 혼란 정국이었어요. 북한보다 가난했고 군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전쟁이 날까 불안한 거예요. 1965년 한일 협정에 대한 저항감도 컸다고 합니다. 6·3 세대의 어원은 1964년 6월 3일 한일 회담 반대를 시작한 데서 기인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참 독특한 게 어떤 계기가 되면 보이지 않던 시민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와서 폭발적으로 시민의 힘을 보여줬다가 싹 사라집니다. <미스터 션샤인>에서 묘사된 의병정신을 정말 갖고 있죠. 아마 DNA가 그런 것 같아요. 의외로 우리는 평등하지 않으면 못 참는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DNA를 갖고 있어요. 정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협심이 굉장히 강해요. 평생을 별 짓 다하다가도 일단 한번 아니라고 생각하면 들고 일어나는 독특한 기질이죠.

1960년 4·19 혁명은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내각제는 정당정치를 위한 거잖아요. 윤보선 대통령하고 장면 내각이 들어섰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퍼블릭’의 영역에 군부가 들어서는 거죠. ‘Military power’, 박정희가 등장합니다. 박정희 등장 이후로 기업이 점점 커지고 가족이 줄어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제개발에 다 빨려들어 가는 거죠. 딸들은 다 도시로 가 여공이 됩니다. 1970년의 전태일 열사 분신사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시스템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들은 제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시스템, 즉 노동법을 지키라고 목숨과 바꿔 얘기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안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 먹고살기 위해 구성원들이 공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족의 크기와 가족 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60년대가 되면 서울의 인구가 쭉쭉 늘어나 여관이 늘고 빈민가가 형성됩니다. 김승옥의 소설이나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같은 작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삼양동 빈민촌이 1960년대 만들어진 거예요. 지역의 가족들이 해체되고 도시의 새로운 가족들이 빈곤한 형태로 탄생되는 거죠. 가족이 형태화(形骸化)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가진 자원은 가족 자원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60년대 국가가 가족 자원을 동원하는 전략을 쓴 거죠.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사람을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가발, 신발, 심지어 쥐로 만든 쥐털 코트를 만들어 수출했어요. 제3세계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곳의 남자들은 립펜처럼 지내요. 중국 서남쪽에 간 적이 있는데, 여성들이 빨래를 비롯한 집안일도 하고 돈도 벌어요. 남자들은 소주 먹고 노름하고 낮잠 자고. 지역사회에서 남성 문화가 가부장적 문화 속에 안주하는 실태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 개발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1960년대 여

공의 탄생이 결국 가족의 해체와 연결됩니다. 1963년~1964년이 되면 많은 남성들이 독일에 광부로 진출합니다. 배운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요. 일자리가 워낙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은행원, 택시 운전사가 일등 신랑감이었어요. 택시 운전사는 지금의 비행기 조종사급이었어요. 문명의 이기를 조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내재되어 있었죠. 근대의 ‘아이언맨’ 같은 거예요. 기계 안에 들어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죠. 두 시간 만에 가야 하는 길을 10분 만에 가는, 굉장히 새로운 문화 중에 하나였죠. 여공은 무척 중요한데, 이 여공을 제공한 주체가 가족이었고 그로인해 가족 형태에 변화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963년 12월,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정부 민정 이양을 수행합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역임하면서 민정 이양을 약속했거든요. 스스로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돼서 자기가 자기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연출을 하죠. 지금의 ‘동물 국회’도 웃기지만 우리나라 정치사가 좀 특이해요.

1964년엔 나라에 비행기가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이 박정희는 돈을 꾸러 해외로 나갑니다. 그가 1917년생인데, 존 F. 케네디도 1917년생이에요. 박정희는 1961년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케네디는 1960년 11월 선거를 통해 미국에서 가장 젊고 신선한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케네디는 미남이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하버드를 졸업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충실했죠. 케네디의 형제 모두 제2차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유일한 가톨릭 신자, 기근으로 이주했던 아일랜드 집안 출신이에요. 케네디는 이러한 후광이 있었고, 당시는 미소 냉전논리가 아주 강력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박정희가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도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 쿠데타를 빠르게 승인해준 덕에 박정희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어요. 박정희에게는 국가 경제개발과 공산당이었던 개인적인 콤플렉스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케네디에게 돈을 꾸러 갔는데, 케네디가 군사 쿠데타 정부에게는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우방인 줄 알았던 미국이 돈을 안 빌려주니 박정희는 평생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박정희와 미국은 관계가 나뉩니다. 박정희는 미국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북한처럼 핵 개발을 한 거예요. 김정일과 같은 논리예요. 20년 후의 미래가 과거에 섞여 있는 거죠.

박정희의 고민은 종장돈을 어디서 빌리느냐 하는 거였어요. 하나는 굴욕적인 한일 협정을 맺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독일에서 빌리는 거였죠.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은 죄의식이 있어요. 일본과 독일은 맥락이 좀 다르지만, 독일은 전후 민주주의라고 해서 보편적 보상을 하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보통 전쟁이 끝나면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을 보상하거든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있었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참석을 하지 않아 일본과 개별적으로 조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박정희는 1964년에 돈을 꾸러 독일로 갑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없어 미국 신세를 져야 하는데, 미국이 비행 일정이 안 맞다며 비행기를 안 내줍니다. 대단히 치욕스러웠겠죠. 그래서 독일에 편지를 써요. 너희 비행기로 좀 날 태워다 줄 수 있겠니 하고요. 동경에서 독일로 가는 루프트한자가 일부러 서울에 들러 박정희 일행을 태웁니다. 이러한 맥락을 알면 박정희가 왜 그렇게 조국 근대화를 종교처럼 여겼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사관학교 출신, 군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피를 흘려 나라를 지켰다는 거죠.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들이 모두 징집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을 때예요. 스탕달이 쓴 소설 중에 『적과 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계급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두 가지 직업을 색으로 말한 겁니다. 적과 흑. 적은 군인, 흑은 신부입니

다. 종교에 귀의해서 신분을 바꾸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는 사관학교에 군인이 되는 거, 그리고 공부를 잘 해서 명문대에 가서 성공하는 길이 있었죠. 한국은 지금도 아무리 돈이 많고 정치적 뒷배가 있어도, 입시 부정과 군 복무 비리는 안 봐줍니다. BTS라도 용서 안 할 거예요. 1960년대 군인에 대한 생각이 지금과는 다른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박정희는 쿠데타 성공을 기념하여 사관학교 생도들의 환영 퍼레이드를 기대합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팡파르를 울리는, 극장국가의 세리모니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장인 강용운(노태우 정부 때 국무총리)이 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조용히 까만 지프차를 보내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육사 11기 전두환이 박정희를 찾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도들은 제가 다 꼭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군사 퍼레이드는 가능해집니다. 무대 후면에 전두환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죠. 그렇게 하나회가 형성됩니다.

박정희 취임 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전쟁을 치른다는 걸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박정희를 욕보였던 케네디는 1963년에 델러스에서 암살당해요. 그 몇 년 뒤에 박정희 본인도 암살당할 줄은 몰랐겠죠. 역사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 베트남 전쟁

그런 가운데에서도 미국은 전무후무한 호황을 누립니다. 국민의 90%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래서 70년대 초에 미국 이주 붐이 일어납니다. 아메리칸 드림. 하와이에 간 사람들을 이민 1세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재미교포 1세대는 1970년대 초반에 떠난 사람



들입니다. 그들이 지금의 LA타운을 형성했습니다. 어쨌든 1960년대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형성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케네디가 암살된 이후 잔여 임기를 부통령이 이었습니다. 존슨 Lyndon Johnson(1908~1973)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2미터쯤 되는 엄청난 거구인데 이 존슨이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설움을 많이 겪었어요. 베트남 전쟁을 필두로 미국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아시아에서 거칠게 일어났습니다. 존슨은 가는 곳마다 달걀 세례를 맞았습니다. 아주 절망스러운 상태로 한국에 도착했는데, 박정희가 미리 손을 써 학생들을 김포공항에 깔아놓은 겁니다. 존슨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시간 반이면 가는 길을 일일이 답례하느라 세 시간 걸려서 갔거든요. 강렬한 환대였죠. 박정희는 미국을 꼭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박헌영은 반미 운동가일까요? 1945년에 해방됐을 때 박헌영은 미군정에 가서 손을 잡자고 제안합니다. 화요일火曜會 들어보셨어요? 사회주의 성향의 학술단체죠. 조봉암, 박헌영, 임원근 등이 주요 멤버였습니다. 박헌영이 화요일회에서 공산주의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열심히 독학합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당시는 미소 냉전체제가 아니었고 미국에 대한 환상이 남아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두고 봤더니 예상과 달랐던 거죠. 배신감을 느낀 박헌영이 위조지폐를 만드는 등 격렬하게 반미 투쟁을 합니다. 박정희도 그런 맥락을 갖고 있어요. 정치가 이성의 영역인 것 같지만 감정적인 거예요. 존슨한테는 베트남 파병이 필요했고 박정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존슨의 환심을 사고 미국의 허가 됐지요. 미국은 아시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는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승전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를 해방시켜 줄 이유가 없었죠. 심지어 일본이 차지했던 나라에 가서 침을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이런 상

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반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사회주의를 선호합니다.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 때문이죠. 미국은 베트남과의 전쟁이 모든 아시아 국가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라는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 대 아시아의 전쟁이 아닌, 공산당과 자유주의의 싸움이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물라크르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대단히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참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시아에 없는 거예요. 일본은 군대가 없잖아요. 대만과 중국은 내전 때문에 군대를 동원하기 어렵고요. 아시아에서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군대는 전쟁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인 거예요. 문제는 국가가 참전 군인들의 일당을 받아서 써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박정희가 인건비로 장사를 한 거죠. 병사들의 생명수당을 굉장히 높게 쳤어요. 미국은 의도한 프레임을 만들려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박정희는 그 돈을 경제개발에 쓴 거죠. 그럼 온전히 다 경제개발에 들어갔느냐? 부정부패, 파친코 사건, 별 사건이 다 났지요. 이후락이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묻는 법이다”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우리나라 여론은 파병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파병을 도운 자가 바로 전두환이죠. 전두환의 1사단과 노태우의 9사단. 그렇게 전두환이 맹호부대랑 청룡부대를 이끌고 돈을 벌러 갑니다. 우리는 몸 팔아서 돈 받은 거예요. 광부, 간호사, 군인. 그래서 한국 경제사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요.

## 1970년대

70년대에는 돈을 벌러 어디로 가나요? 네, 중동에 갑니다. 중동은 1

주일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기본 6개월이죠. 혹시 영화 <강남 1970> 보셨어요? 서울은 한국전쟁 때부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1970년대에 600만 명에 가까워집니다. 해마다 인구가 100만씩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곳이 없어 판잣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서울에 빈민가가 형성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하고 당시 ‘불도저 시장’이라고 불리던 김현옥 서울 시장은 강남을 개발해 서울을 넓히기로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강남에 이사를 안 가요. 강남이 뜨기 시작한 것은 88올림픽 이후입니다. 70년대에는 유흥가가 많았습니다. 사우디에 간 남편들이 번 돈으로 강남 제비들과 즐기는 이른바 ‘자유부인’들이 많았죠. 술한 비애의 가족사로 수놓인 70년대입니다.

우리는 권력의 영향력이 항상 강하고, 항상 대통령 중심제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권력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요. 대의제 정책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대의제가 성공적이었던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들이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하잖아요. ‘또 속아보자’라며 대의제를 선호하지만 시민사회도 만만치 않게 커요. 다만 전에 비해 지금까지 역사를 받쳐온 가족이 형태가 바뀌거나 무너졌죠. 유목, 사회적 가족, 싱글족 등 형태는 다양해졌지만 과거와 같은 식으로 무언가를 생산하지는 않죠. 가족보다는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좋고,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보아도 좋습니다.

## 기업 권력

한국 사회는 국가 권력이 강하고 시민사회도 강한데, 기업 권력도 강합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있죠. 1988년 정주영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여기도 10억 주고, 저기도 10억 주고”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정치하겠다며 국민당을 만들지요. 당시 돈 2,500억을 털어 당을 생성합니다. 한 지역당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경조사비 등을 포함해 5억 정도 든다 생각하면, 넉넉잡아 100개 정도면 전국당으로 충분하거든요.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당은 제1여당과 제1야당밖에 없어요. 100개 정도의 지역구 1년 유지에 500억, 4년을 유지해도 2,000억이예요. 이렇게 돈으로 정당을 할 수 있는데, 전두환은 쓰고 남은 돈이 5,000억이었으니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지 대충 그림이 나와요. 정주영이 인생에서 실패가 없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유일하게 정치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기업인이 권력을 잡는 방법은 푼푼한 놈을 부하로 쓰는 거라는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 뒤로 삼성이 바뀝니다. 삼성 고위 간부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삼성의 세련됨을 보세요. 삼성경제연구소에 좌파, 우파 다 있어요. 지인 중에 운동권 출신인데 2000년 전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일한 사람들이 많아요. 월급이 세거든요. 교수보다 훨씬 많죠. 평평 쓸 수 있는 법인카드도 주고요. 그렇게 서울공화국이 강남공화국이 되고, 강남공화국이 삼성공화국이 됩니다. 권력이 이동합니다.

무대 위에 누가 올라갔는지,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물밑에선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지. 보시는 것처럼 정치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았던 개인들도 드라마틱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내 정치뿐 아니라 세계질서가 예측 불가하게 바뀌니까요. 무대는 다 아시겠지만 KBS, MBC, 그리고 TBS입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는 하나회 군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 뒤에 있으니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조명 몇 개를 켜는 거죠. 비추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무대 뒤로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 중 하나가 ‘유신헌법’이라는 제도입니다. 장충체육관을 무대로 만드는 거죠.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체육관 정치.

아침에 국기 게양식을 할 때 국민의례를 하잖아요. 5시가 되면 국기 하강식을 하고. 사람들이 가다가 서서. 우리의 몸을 규율해서 우리의 신체가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1995년까지 이어집니다. 왜 1995년까지냐 하면, 그 해에 처음 자치단체장 선거를 해요. 1991년에는 의회 선거만 하고. 그전까지는 모든 통제를 내무부가 했습니다. 새마을운동도. 올림픽을 앞두고 군부정권에서 향락 산업을 엄청나게 벌이기 시작합니다. 삼청교육대에 건달은 잡아넣었지만, 섹스는 굉장히 풀어줬어요. 통행금지를 해제하고, 3S(스포츠, 성풍속, 영상물)를 향유하게 합니다.

박정희는 1968년에 1·21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간첩을 경찰이 아니라 어부가 발견해요. 김신조가 넘어온 것도 누가 발견해요? 나무하러 갔던 나무꾼이 발견한 거예요. 박정희는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군인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며 향토예비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더불어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합니다. 교과서 앞쪽에 우리의 탄생 목적이 써여 있어요. 당연히 외워야죠. 안보논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국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체제를 만듭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를 비롯한 구호가 그 당시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불심검문해서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바로 구치소에 집어넣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발도 다 집어넣죠. 미니스커트, 막걸리 다 안 돼요. 그리고 ‘돌격’이라는 구호 아래 국가를 건설합니다. 군대 동원령과 국가 건설이 같은 메커니즘이예요. 한국 사회는 돌격 군대, 병영국가 체제로 완전히 재편성됩니다. 박정희가 친절하게 하루에 뭘 해야 하는지, 아침 9시에 뭘 해야 하고, 5시에는 뭘 해야 하는지 하루 일과표와 달력을 만들었어요. 매월 1일, 15일, 25일, 27일. 저축, 민방위 훈련, 쥐 잡기 등. 매일 아침 ‘내 집 앞 쓸기 운동’ 기억하세요?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안 했다고 하면 선생님께 야단맞고. 코 흘리게 돈을 모으면 얼마 안

되지만 초등학생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저축하게 교육시켰죠. 이처럼 계몽주의적 군주 역할을 박정희가 엄청나게 합니다. 네가라 의식이죠.

1998년에 오사카에 갔다가 장애인운동단체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때 만난 일본의 장애인들이 “일본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느냐. 불량품이라고 본다. 너희들은 불량품이기 때문에 국가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다. 불량품이니 조용히 있어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커녕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전쟁 국가였고, 장애인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맥락의 사고방식은 경제 건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반공이냐 친공이냐, 반공에서 더 나아가 멸공이라고 했어요. “공산당을 박멸하자.” 인간이 아니라 바퀴벌레 같은 존재로 격하한 거죠. 극장국가의 의식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의 욕구를 풀어주며 다른 쪽에서 조작하는 거예요. 조명을 비춘 곳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80년대로 가면 극장 틀 자체가 원형 극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희생되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시대와 세대의 문제인데, 이 시대의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는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세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가 하는 세대론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호명당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과 거부감이 있습니다. ‘88만원 세대’라고 해서 측은하게 생각하다가 ‘N포 세대’라고 부르며 노력이 부족한 의지박약으로 대하잖아요? 이태백, 이십대 태반이 백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공교롭게도 88년에 태어난 세대들이 2008년에 20세, 88만원 세대가 됩니다. 한국 경제가 곤두박질친 금융위기를 겪지요.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써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너희 청년들 아픈 건 당연한 거야’라고 하니

청춘들이 화를 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나아야지 계속 아프라고? 이런 반감을 갖죠. 그리고 어떤 책들이 쏟아졌나? ‘괜찮아’로 시작하는 제목의 책들. 그런 책들은 이른바 여러분 세대가 쓴 책들이에요. 2010년에 고대 경영학과 김예슬 씨가 자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붙이기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청년들에 의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세대논쟁들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찰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촛불 시대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누적의 결과입니다.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여성 문제나 가족 문제를 가족사를 축으로 고찰해볼 수 있어요. 시민사회도 하나의 축으로 쓸 수 있지요. 노동자 조직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육전’ 조직도 들어보셨나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도시빈민협의회(전빈협), 전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대협)을 육전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나 조직운동이 중요했던 거죠. 조직 합법화 운동. 이런 시민사회 영역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 다음에 정치 영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따로 보셔도 재미있어요.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책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말뚝을 박겠다”는 말을 했었어요. 이명박이 대통령 되자마자 말뚝 다 뽑아버리잖아요. 그것도 아주 무서운 속도로.

사분면에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사를 한번 대입해보세요.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1980년 5·18 당시에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반 친구 하나가 부모님 따라 독일에 다녀왔어요. 독일

에서 광주항쟁 보도를 보고 그걸 등사기로 돌려서 나눠줬어요. 고등학생들은 도시락 갖고 다녔잖아요. 주로 엄마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빼는데, 그 갱지를 도시락 가방에 넣은 친구의 아버지가 하나회 소속 군인이었어요. 고등학교에 안기부 직원들이 들이닥쳐 가방을 전부 다 수거하고 주모자를 남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2박 3일 만에 친구는 풀려나왔지만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토론 시간에 적극적이던 똑똑한 친구였는데 눈치를 보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논리적이고 공부를 잘 했던 친구였기에 고시를 준비해서 판검사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백수로 수유리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 현대사는 아주 드라마틱한데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현대사를 세계사와 연결해보겠습니다.

# 3강

## 아시아를 둘러싼 힘겨루기와 21세기 국제질서

-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극복과 21세기 아시아 질서  
그리고 대국굴기

오늘의 주제는 세계사의 흐름과 최근의 아시아 질서입니다. 요즘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미중 무역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오늘의 주제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미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닙니다. 아시아 질서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 미중 갈등과 아시아 질서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 4월 미중 회담을 가집니다. 만남 이후 중국과 미국은 미묘하게 다른 회담 결과를 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중국은 회의를 'G2'라고 표현했어요. G7 Group of 7 아시죠? 우리나라는 G20까지는 가야 포함돼요. 'G' 얘기를 잠깐 하면 사실은 G7이 G8, G20가 되고, G20가 G2가 되는, G20와 G2가 같이 가는 미묘한 양상을 보입니다. G7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다 기억하세요? G7이 본격적으로 가동돼서 세계질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유럽에 세 챔피언 국가가 있어요. '영프독'이죠. 그 당시에는 소련이 안 들어가고요.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이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북미 두 나라와 유럽의 네 나라, 그리고 아시아의 일본이 G7을 유지합니다. 그러다 G7이 더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시사상식 퀴즈입니다. 부상국 '브릭스 BRICS'라고 하면 어디예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죠. 브릭스가 들어가면서 G7이 더이상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G20가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데, 의사결정이 어려워집니다. 실제로는 초일극주의로 미국이 혼자서 결정해왔는데 2013년에 시진핑이 G2라 표현하면서 미국의 일방적 독주에 제동을 건 겁니다. 물론 미

국은 'G2'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China'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G2', 또 하나의 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시진핑 집권 전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의 임기가 각 10년씩 됩니다. 덩샤오핑에서 장쩌민,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넘어왔습니다. 덩샤오핑 세대의 아들 세대가 나라를 맡게 되었죠. 아버지 세대의 가치관은 도광양희(稻光養晦), 빛나는 칼을 가슴에 품어 잘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칼을 보여주지 않고 몰래 발전해야 불이익을 면한다, 센 것을 들리면 얻어맞을 수 있다, 그런 의미죠. 하지만 아들 세대는 칼을 숨기지 못합니다. 시진핑은 칼을 뽑은 겁니다. 그렇게 미국과 유일하게 맞짱을 뜨는 나라가 됐죠. 어떻게요? 앞에서 맥도날드 얘기했죠? 그랬던 중국이에요. 맥도날드도 없고, 뭐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고 대신 자연이 아름답던 나라였어요.

요즘 호텔에서 계산할 때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신용카드 기준이죠. 중국 호텔에서는 그걸 안 받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뭘 받을까요? 유니온페이로 받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써요. 왜 그렇게 많이 쓰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전부 쓰거든요. 예를 들어 기축통화라는 것, 무역을 하다 보면 기준이 달라잡아요? 그런데 기축통화 말고 그에 준하는 통화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유로화라든지 일본의 엔화라든지. 이것들은 자산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대체효과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사올 수가 없으니 굉장히 불안한 거죠.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면서 주식을 달리로 바꿔 가면 달러가 유출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호환성이 있는 경제단위가 줄어들 겁니다. 중국은 위안화가 아시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요즘은 화폐를 많이 안 쓰고 카드, 혹은 암호화폐를 쓰잖아요. 20~30년 사이에 화폐의 형태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환율이

중요하지 기축통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중국 안에서도 유니온페이를 쓰지만, 해외에 나가서도 중국인들이 유니온페이를 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인프라를 까는 겁니다. 중국 사람의 소비력이 워낙 커지니까 우리도 다 유니온페이를 받죠. 1970~1980년대에는 한국 사람들도 카드를 잘 안 썼어요. 그나마 카드를 받는 곳은 비자, 마스터카드 마크를 붙여놓고, 조금 폼 잡는 곳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붙였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 유니온페이를 통해서 전 세계 기축통화를 사실상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 중국에서는 일찌감치 구글과 페이스북을 못 쓰게 했어요. 모든 사업 구조가 디지털화되면서, 미국이 만든 글로벌 플랫폼에 편입되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바이두'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개발한 거죠. 화웨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캐나다에서 회장 딸 잡혀가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미중 간의 신경전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10~25% 세율을 높이겠다고 으름장을 놔어요. 그런데 중국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환율을 강제로 낮추면 되니까요. 예컨대 중국의 환율이 15% 떨어지면 미국이 워낙 싸게 사가니까 거기에 25% 붙여도 가격 차이를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환율에 국가가 마음대로 개입하는 국가라고 오래전부터 이미 미국한테 찍힌 나라예요. 한국도 찍혔다가 지금은 '주의국'으로 바뀌었죠. 한국도 정부가 환율에 많이 개입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시장의 덩치가 커져 불가능하지만요.

군사력은 중국이 미국한테 압도적으로 쳐잡니다. 실제로 그 둘이 전쟁할 이유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이 튼튼하다고 해도 14억 인구나 2~3억밖에 안 되는 인구가 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을 하는 건데 트럼프가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컨대 아이폰이 중국에서 인기가 많아 500억 달러 정도가 팔린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옛그제 칭화대학 중국 경제학자가 그랬습니다. 미국이 25% 관세를 올리면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첫 번째 앞서 얘기했듯이 환율을 바꾼다. 둘째 미제 수입금지령을 내린다. GPS를 미국에서 사용하려면 핸드폰에 GPS가 있어야 하는데 GPS는 미국의 항법장치예요. 그걸 전 세계가 공유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 좋은 인프라를 공짜로 공급해준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런데 중국은 ‘베이도우(北斗, 북두)’라는 인공위성 항법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오차범위가 10c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 팔리는 모든 휴대폰은 GPS가 아니라 베이도우를 탑재한다고 해요. 그만큼 중국이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거죠. 2015년 9월 2일에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행사를 크게 했는데(유럽에서는 5월 9일이 전승기념일입니다. 나치가 일본보다 훨씬 일찍 항복했거든요), 전에 없던 행사였어요. 전승국가라고 하기에는 좀 계면적었죠. 1945년까지도 부분적으로 식민지 국가였잖아요. 사실 중국은 아주 떳떳한 승전국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기념하지 않다가 2015년에 아주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른 겁니다. 이 행사에 좌청룡 우백호처럼 푸틴과 박근혜를 세웠어요. 자유주의 세계와 사회주의의 양대 축이었던 러시아와 북한의 자리에 한국이 왔다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었죠. 또 거기에 전 UN 사무총장 반기문도 있었어요. 군사 무기를 동원해 엄청난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썼던 것이 인공위성항법장치입니다. 그걸 이용해 비행기 에어쇼를 했어요. 그렇게 중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멧집이 좋습니다. 세 번째 중국이 스마트폰 생산에 핵심적인 자원이자 전 세계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을 안 하겠다 하면 미국은 곤란해집니다. 과거에는 중동의 석유가 중요한 자원이었지만 현재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의 대부분을 중국이 컨트롤하고 있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애플타이저였습니다.

## 역사는 반복된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 하는 건 지금의 아시아 질서가 만들어진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올해가 2019년이니까 1969년이 딱 50년 전인데, 역사가 돌고 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지난 과거와 미래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얘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제2차세계대전을 세계대전이 아닌 제국 간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1918년, 제1차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이를 ‘유럽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유럽 안에서만 전쟁을 했으니까. 그런데 유럽에서 세계로 확대가 됐어요. 제2차세계대전은 일본이 참전했고 태평양이 전장이 되었고 미국이 개입했어요. 제 시각에서는 이것을 제국 간의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제국이 졌느냐에 따라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쓰입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일본은 ‘패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주 중립적으로 ‘종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 중 일부는 해방되었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이 아니라 ‘해방’인 겁니다. 제국으로부터 해방은 했지만 아직 자기 나라를 못 세웁니다. 그리고 제국은 딱 둘로 나뉘죠. 패전국과 승전국으로. 그래서 중국은 뒤늦게 승전기념일을 즐겼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해방된 국가는 독립을 해야 하고, 승전국들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합니다. 패전국들은 강화조약을 맺어서 전후 처리를 하는 문제가 남았죠.

유럽까지 다루면 복잡하니까 아시아를 먼저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

는 해방되었지만 북에는 소련, 남에는 미국,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분단됐는지 혹시 아세요? 독일은 동서로 나뉘어졌죠. 그런데 사실은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4개국이 분할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베를린은 여기서 또 분단이 돼요. 다시 말하면 베를린은 동독 안에 있던 땅입니다. 베를린은 동독인데 여기서 베를린과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독에서 탈출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리고 독일은 타국과 전쟁했지, 내부의 전쟁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내부 전쟁을 했고 군사분계선, DMZ가 있죠. 뭐 분단국가가 여러 가지예요. 예컨대 지금도 키프로스라고 하는 분단국가는 수도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또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단의 형태가 지구상에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1950년 전쟁을 시작하죠. 중국과 대만은 1949년 분단되고 오키나와도 분단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본은 1951년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오키나와를 미국에 줍니다. 1972년까지 오키나와는 미군이 점령합니다. 굉장히 기만적인 거죠. 베트남도 북과 남이 나눠져 있었죠. 이 분단선을 누가 그어요? 미국이라는 제국이 그은 겁니다. 1945년 이후에 제국의 질서는 굉장히 심각한 질서라 아시아 전체가 나눠집니다. 연합국이 많은 분들의 생각처럼 좋은 나라였다면, 전쟁이 끝나고 빨리 독립시켜줬겠지요. 하지만 오히려 지배권을 강화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독립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지가 많았던 아프리카는 1960년대까지 독립하지 못합니다. 아시아의 인도차이나 같은 경우에도 1950년대 중반에나 독립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알제리의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재권력이나 일본이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전기고문, 물고문 같은 것을 똑같이 해요.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렇다면 아시아-태평양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953년에 이른바 휴전협정을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52년에 미국과 일본의 신안보조약이 발효가 됩니다. 이 안보조약이 발효가 되는 시점이 한국전쟁 중이었고, 그 배경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에요. 둘 다 샌프란시스코에서 9월에 같은 날 맺어진 조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일란성 쌍둥이 조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날 쌍둥이처럼 만들었거든요. 지금의 동북아시아 체제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도 부릅니다. 그 핵심은 연합국과 일본 간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한 것인데 그 논의 과정에 참석했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 체코, 폴란드가 도장을 찍으려고 보니까 너무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든 조약인 거예요. 그래서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일본에 실제로 침략을 받았던 아세안 국가들인 대만, 중국, 한국은 전쟁 중이라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중국도 한국전쟁에 참전했죠. 그래서 일본에 침략당한 국가들은 하나도 참석을 안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 피해 당사국이 빠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지금껏 역사가 흘러온 겁니다.

지금껏 힘이 없었으니까,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켰으니까 미국을 믿고 그냥 따라왔죠. 그런데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지배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포르투갈하고 싸우고 뭐 영국하고도 싸우고, 여러 나라들하고 싸워요. 인도차이나 반도가 1954년에 독립을 하는데 여기 '보응우옌잡' *Võ Nguyên Giáp*이라는 베트남의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대장은 다 아시는 것처럼 호찌민 *Nguyen Tat Thanh* (1890~1969)이예요.



## 호찌민, 체 게바라, 마틴 루터 킹

1960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을 아셔야 합니다. 호찌민, 체 게바라, 마틴 루터 킹. 제가 굳이 이 셋을 꼽는 이유는 동양인, 남미인, 미국인이자 흑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60년대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954년에 베트남에서 보응우옌잡 장군이 성공적인 전략으로 승리를 하는데, 그가 바로 영화에 많이 나왔던 그 무원갑이예요. 이 사람은 프랑스를 격퇴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산에다가 병사들을 배치하고 땅굴을 파서 매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나치에 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프랑스가 작은 식민지 국가 베트남에 패전했다는 사실은 주변 국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체 게바라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체 게바라가 나중에 이 사람 얘기를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책에도 써요. 보응우옌잡 장군의 전투 얘기를.

아시아 전역에서 반성이 일기 시작합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1954년까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시아를 위한 질서가 만들어지기는 대단히 요원하다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국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세계질서를 다시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1955년 4월 18일 인도네시아 반등에서 수카르노 주도로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의 리더들의 회의를 합니다. 29개 국가가 모인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일단 그 시절에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겠어요.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쏟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반등 회의를 하기 전 1954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때 스리랑카 실론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이렇게 5개 국가가 모여서 미국과 유럽 중심이 아닌 아시아 중심의

질서를 만들자고 얘기한 게 1954년도입니다. 그 다음해에 중국과 인도가 국경 문제로 전쟁을 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고 인구가 많은 인도와 중국이 싸움을 하게 되니까 반등 회의는 첫 회의 이후에는 사실상 지속적인 구속력을 갖고 가지 못하죠.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아시아에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로운 비전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 전쟁과 분단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다시 분단을 경험하고 그 외 다른 나라는 외부로부터 냉전체제가 주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반등 회의의 핵심이었던 수카르노의 경우에는 1965년 9월에 자신의 부하인 수하르토의 쿠데타로 실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하르토가 정권을 잡고 나서 200만 명을 학살합니다. 한국전쟁 사망자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라는 명목으로 학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공 이데올로기가 미국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주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친미 정권에 의해서 재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남한도 똑같습니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여운형, 조봉암, 김구 등 극우에서 극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암살당하거나 사라졌죠.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가 그렇게 돼서 1950년대는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면 아시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좌절되고 제국 간의 미소 냉전체제가 가속화되는 것에 대해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들이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회 변화 속도가 제일 느린 게 지식입니다. 제일 먼저 사회 분위기를 읽어내는 건 뭘까요? 노래, 음악이예요. 음악은 사람들의 기분을 굉장히 빨리 읽어냅니다. 그 다음이 미술, 소설,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 중에서는 학생, 청년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움직

이고 그 다음에 언론이 움직이는 그런 식이지요. 이 당시 1950년대 그런 움직임을 읽어내면서 나왔던 음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지식으로 전환되기 전에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했던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1935년생쯤 돼요. 그의 음악을 우리가 무슨 장르라고 하죠? 로큰롤 rock'n'roll이라고 보통 부르죠. 엘비스의 음악은 신나고 영감을 주고 자극적이었죠. ‘록 rock’은 바위라는 뜻도 있지만 ‘흔든다’는 뜻이 있거든요. 체제를 흔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기존의 질서를 새롭게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1950년대 제3세계 지도자들은 과거 제국이 만들었던 식민지 유산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국가를 꿈꿨어요.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수카르노는 어떤 국가를 만들었냐면,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정도 되는 아주 큰 나라고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네가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연구 됐지요. 인도네시아는 아체 지역부터 동티모르까지를 횡단하면 비행기로 6시간을 가야 하고요, 인종도 다양하고 이슬람이 대부분이지만 말레이시아, 태국과 연결돼서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톨릭도 강하죠. 또 섬이라 교류가 없다 보니 다양한 부족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종, 종교, 부족 등 정말 모든 게 다양한 인류 백화점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네시아가 절대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제3세계의 맹주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카르노 덕분이에요. 그는 자카르타 어느 지방 술탄의 자식이죠, 귀족이에요. 영국이나 프랑스는 보통 식민지 귀족들에게 유화 정책을 쓰지요. 그쪽의 지배계급을 철저히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한 계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국에 데려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가령 프랑스의 식민지가 20~30개 되면 그 국가들의 상류층 아이들이 프랑스에 와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젊은 시기에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흠어지는 거죠. 수카르노

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 우리가 공부하면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하기로 하지 않았어? 이제 네가 대통령, 수상, 장관 됐지? 그럼 우리가 모여서 새로운 걸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하고 만난 게 1955년 반동 회의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국가 구성이 순탄치 않았어요. 뭐 우린 안 그랬겠어요? 김구, 이승만, 김일성 등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있었던 자생적 공산주의 같은 것이 다 막 섞이면서 잘 안 됐죠. 마찬가지로입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 잘 안 됐어요. 1960년대에 오게 되면 스스로 만드는 것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몇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나면 1950년대는 지도자들이 새로운 꿈을 꿨지만 이것이 전부 실패하고 좌절됩니다. 그럼 새로운 꿈에 대한 생각을 누가 갖게 되냐면 민중들이 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들은 꿈이 꺾이고 꺾인 꿈에 대해서 이른바 민중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식을 표명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영향을 줘서 1960년대에 가게 되면 저항예술이나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것이 지식인들과 결합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지식인들, 1950년대는 예술 쪽이었다면, 1960년대는 예술과 지식인들이 함께 가는 운동으로 전환됩니다.

대표적으로 1960년대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951년에 얘기하고 1952년에 발효했던 미일 안보조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960년에 신안보조약이 체결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과거 안보조약은 오키나와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정도인데 신안보조약에는 오키나와에서 미국의 모든 활동을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본은 군수물자나 무기를 생산할 수 없지만 식량을 보급할 수 있고 미군기가 거기서 출동할 때 석유를 보급하는 등 미국의 배후기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신안보조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많

은 일본의 청년과 지식인들은 우리가 전쟁의 가해자였는데 미국의 폭격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테니 전쟁의 간접적 가해자가 다시 될 수 있고, 전쟁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신안보조약에 대한 반대 투쟁을 아주 거칠게 합니다. 그래서 1960년 6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신안보조약이 통과되던 날 일본 의사당 앞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납니다. 아주 엄청난 집회가 일어나요. 그리고 1969년 동경대학의 야스다강당에서 모두가 체포당하고 그 강당이 불탈 때까지 거의 만 10년 동안 이른바 안보투쟁이라는 엄청난 투쟁을 하게 되죠. 그게 일단 하나. '신안보조약 반대투쟁'인데 보통 줄여서 안보투쟁이라고 불러요.

## 신안보조약과 고도 경제성장, 그리고 환경 문제

1960년대에 아주 커다란 문제 몇 가지가 걸쳐져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인데 하나가 이 신안보조약, 두 번째가 고도 경제성장입니다. 1960년대 일본은 1950년대 한국을 통해서 고도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렇게 마련한 경제적 자원들을 세상을 향해 변화시키는 과정을 겪습니다. 다시 말하면 1950년대는 일본 사람들이 원자폭탄 두 번 맞고 도쿄 공습당하고 그래서 거의 다 패잔병처럼 지냈는데 경제도 살아나고 하면서 1960년대는 뭐랄까요, 새로운 일본이 된 거죠. 전 세계가 이 새로운 일본한테 도장을 찍어준 사건이 바로 도쿄 올림픽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올림픽이었죠. 오늘 신문 보니까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차를 개발해서 발표했더라고요. 신칸센인데, 상용화하는 것은 시속 400km인데 실험은 시속 600km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빨리 날 때 시속 1,000km입니다. 대륙을 넘는 큰 비행기가 시

속 950km정도로 다녀요. 그런데 시속 600km면 거의 그에 준하는 엄청난 속도죠. 이 당시에 도쿄 올림픽에 처음 선보인 것이 신칸센이에요. 당시에 시속 200km를 넘어갔으니까 굉장히 놀라운 속도였던 거죠. 세 번째 1960년대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 문제였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해보지 못한 고도성장을 했거든요. 한국이 그 다음, 중국이 또 그 다음 수순이었지요. 환경 문제와 더불어 그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이전에는 몰랐던 병들이 등장합니다. 미나마타병이라든지 이타이이타이병이라는 게 생기죠. 미나마타병은 미나마타 지역에서 발생한 병이고, 이타이이타이병은 도야마라는 동해 쪽에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병인데 둘 다 임해 공업지역입니다. 원래는 어촌이었는데 거기에 공장이 들어선 거예요. 이 두 가지 병의 특징은 병의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어서 그 당시에는 국가도 기업도 보상해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보상투쟁이 1980년대까지 이어졌고 환자들은 다 죽고 자식들이 겨우 보상을 받는 단계까지 간 게 이 두 병의 특징입니다. 그 기간 동안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자료를 만들고, 기업은 기업대로 과학자들은 과학자대로 지역시민들은 지역시민대로 피해 사례를 모았습니다. 미나마타에 가면 시민들이 만든 박물관이 있어요. 수은을 강물에 버린 것이 결국 이 병의 핵심적인 원인인데, 수은을 먹은 물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그 수은이 사람에게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척추에 쌓여 있다가 몸의 약한 부분에 가서 문제를 일으켜서 서로 다른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조금 약해지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어제 괜찮다가도 언제 갑자기 증세가 나타날지 모르는, 쉽게 말하면 그냥 좀비예요. 감각이 없는. 그런 문제로 지역을 떠나잖아요? 미나마타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기피하고 안 받습니다.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좀비 취급을 받았으니까. 지금 후쿠시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들은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원도에 산불이 난 곳은 몇 년 지나면 돌아갈 수 있지만 후쿠시마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세대에서는 유목민으로 지내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배척받거나 자기 출신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현대판 ‘미나마타 노마드’가 된 거죠.

1960년대 고도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이 덕을 본 것은 한국전쟁이라는 수혜와 고도 경제성장을 하는 동안 안보투쟁이 있었지만 모든 안보를 미국이 책임졌기 때문에 일본은 군사비를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키나와가 희생을 당한 거죠. 1972년까지는 일본 경찰이 오키나와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사법권을 미군 헌병이 갖고 있었거든요. 또 집단 자결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감히 미국에 대항하기 어려웠어요. 심지어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믿었던 천황도 맥아더 앞에서 꼼짝없이 항복했는데 오키나와 안에서는 어땠겠어요. 미국도 나쁘지만 집단 자결을 강요한 일본 정부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키나와는 독립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이에요.

안보투쟁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일어났는데,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와의 전투가 지역적으로 벌어졌고 그 대표적인 예가 체게바라입니다. 체 게바라가 1928년생이에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늘 젊은 청년이지만, 체 게바라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니던 때가 1940년대입니다. 제2차세계대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뽕’이에요. 제국 간의 전쟁이지 세계대전이 아니에요. 남미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 중이면 체가 그렇게 한가했겠어요? 그렇게 체 게바라는 피델 카스트로와 1955년 멕시코에서 만납니다. 카스트로는 1926년생이에요. 카스트로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체 게바라가 카스트로의 영향을 많이 받죠. 아까 말씀 드린 베트남이 프랑스를 이긴 게 1945년입니다. 보응우옌 잡 장군의 전투는 남미에서는 전설이 되었어요. ‘우리도 언젠가 스페인

과 싸워 이기는 거 아냐?’ 물론 대부분의 남미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합니다. 남미의 독립은 1820~1830년대 초에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미국 독립혁명은 1776년이거든요. 미국이 독립운동할 때 보스턴 차 사건으로 영국, 프랑스와 싸우고 그랬던 게 18세기 말 19세기 초예요. 남미도 덩달아서 대부분 독립합니다. 남미는 독립은 하지만 여러 가지 실험을 해요. 예컨대 1945년에 제국 간의 전쟁이 끝날 무렵에 아르헨티나는 풍부한 농산물 수출로 세계 10대 부국이 됩니다. 1945년에는 남미 국가들이 전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고, 미국에 물품을 보급할 수도 있었죠. 남미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고, 권력투쟁들이 많았습니다. 페론 장군의 부인 에바 페론의 노래, ‘울지마오, 아르헨티나 Don't Cry For Me, Argentina’도 그즈음의 이야기입니다.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가 1955년에 멕시코에서 만나서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1955년 반동 회의가 열릴 때처럼 남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집니다. 제국으로부터 어떻게 제3세계를 지켜나갈까 모색하던 시기이고 그 시도들이 대부분 좌절당했지만 남미는 새로운 실험이 가능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1959년 이른바 친미국가였던 쿠바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올해가 쿠바혁명 60주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 사회주의 혁명을 지속해나가고, 체 게바라는 카스트로라는 거목 옆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남미 해방전선을 형성합니다. 남미 전체에서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나라는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두 나라입니다. 볼리비아는 볼리바르라는 남아메리카의 독립운동가가 수립한 나라인데 이 사람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를 해방시켰죠. 아까 일본 얘기를 했는데 유럽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체 게바라가 나중에 잡혀서 죽은 곳이 볼리비아예요. 1967년이었죠. 이 당시에 주목해야 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드브레라는 청년이에요. 나중에 프랑스 대통령 자문위원도 하지만 당시에는 젊은 청년이었고 누구

의 제자였냐면 알튀세르의 제자입니다. 1960년대 유럽에는 민중들의 예술과 새로운 좌파의 사상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마르크제라든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알튀세르도 그 중 한 사람이죠. 사르트르, 한나 아렌트, 이들이 모두 1960년대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 끝나고 전쟁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컸던 좌파 지식인들이에요. 이탈리아에 가면 팔라티노라고 하는 대형 서점이 있는데 1950년대에 시작한 서점이에요. 좌파 지식인이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체 게바라를 지원하기 위해 볼리비아로 갑니다. 그런데 체 게바라한테 가기 전에 그 연락책을 누가 맡냐하면 알튀세르의 제자인 드브레가 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체 게바라를 지원해주러 가는 것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체 게바라가 볼리비아에 있다는 것이 알려져 결국엔 잡히게 됩니다. 도와주러 갔다가 체 게바라가 잡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남미의 운동과 유럽의 좌파운동과 일본의 안보 투쟁이 다 연결된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된 핵심 중 하나가 베트남이에요. 체 게바라가 보응우옌잡 장군에게 영향을 받은 전투 원칙이 있었어요. 민중은 정규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전투는 농민지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 마오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나 좌파 진영 내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그런 운동들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 유럽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지났는데 세계질서를 만들지 못하고 여전히 미소는 대립하고 있으니깐요. 여전히 제국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당시 많은 청년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했고 그 저항의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로큰롤, 비틀즈라든지 퀸 같은. 퀸의 음악도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가사에 엄마 나 사람을 죽였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카뮈의 『이방인』에도 어제 엄마가 죽었다, 그런데 아무 감흥이 없

다고 하죠. 주인공 메르소가 알제리 해변에서 태양이 너무 뜨겁다는 이유로 아랍인 하나를 죽이잖아요. 그런 부조리 얘기를 하는 것이 1950~60년대예요. 말씀드린 대로 음악이 먼저 나오고 문학이 나온 것은 이 세상이 너무 한심하기 때문이에요. 음악과 부조리를 담은 문학들에서 새로운 결단력과 행동력을 보여주면서 1960년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호찌민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1955년 호찌민의 지도 아래에서 보응우옌잡이 이기고 나서 베트남이 한 동안 내부적으로 수습을 하고 있는데 남베트남, 지금은 호찌민이라고 불리지만 당시 사이공이라고 불렸던 베트남의 남쪽에는 미국이 진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북에는 소련이 들어와 있었고. 1960년에 존 F. 케네디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피스코 Peace Corps’란 걸 만들어요. 평화봉사단이라고 번역하는데, 평화봉사단으로 와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전문가가 됩니다. 미국 얘기를 잠시만 할게요. 1945년에 미국은 전쟁에서 이기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똑똑한 어벤저스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똑똑한 친구들 중에는 유태인이 많았는데, 미국 정부가 장학금을 줘서 현지로 보내요. 예컨대 브레진스키나 『국화와 칼』의 베네딕트 등도 그 지식인 중 하나예요. 그렇게 1945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을 지역 전문가로 키워요.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미국은 국비유학생을 키워서 다시 정부로 불러들이는데 그러면서 지역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교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것은 굉장히 희한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 유학생들은 공부하러 간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어로 책을 쓰고 그것이 다시 자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다시 말하면 베네딕트가 쓴 『국화와 칼』이 일본인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국화와 칼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브루스 커밍스는 그 멤버는 아니지만

『두 개의 코리아』,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는 분단을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미국이 해설해주는 것이 자국의 지배담론이 되는 시대가 1945년에 시작해서 1950년대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한편 존 F. 케네디는 지식인이 아니라 청년들을 보내는 작업을 해요. 그게 케네디가 당선 이 되고 시작한 1960년 평화봉사단의 해외파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파견돼요. 우리가 알 만한 사람으로는 주한 미국대사인 레이니 대사도 피스코 출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전문가로 활동 하면서 사실은 미국 소유의 글로벌 자산을 이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진행된 정부의 주도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게 남미에 대한 정책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들이 다 1950년대 그 지식인들에 의해 구성되고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1960년대가 되면 미국이 세계질서를 만드는 기본 지식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한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존재하는 거죠. 미국과 영프독 간의 차이는 영프독은 그런 전 세계적인 그림을 그렸다가보다 그냥 처음부터 제국이었고 처음부터 어떤 땅을 많이 따먹을까를 생각했던 거고, 미국은 식민지였다가 신생제국이 됐잖아요? 신생제국이 되면서 세계지도, 질서 자체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제국과 제국이 아닌 국가의 가장 큰 차이는 질서를 만드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미국 식약청에서 인증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며 싸워요. 우리가 질서를 만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국은 질서를 만드는 나라, 우리는 질서를 따르는 나라가 어느새 돼 있는 거죠. 중국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미국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강한 제국이 미국이고 가장 오래된 제국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린 제국과 가장 오래된 제국이 새로 경쟁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중국의 욕심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대단하죠.

## 모든 권력을 상상력에게

호찌민 얘기로 돌아가면, 1961년에 미국은 평화봉사단을 보냈고 베트남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63년 11월, 존 F. 케네디가 사망하고, 케네디에게 수모를 당했던 박정희는 그 바로 전 달인 10월에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케네디가 죽고 난 뒤에 부통령이던 존슨이 대통령직을 이어 받았는데 그는 케네디와는 다르게 굉장히 호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존슨은 전쟁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죠.

1964년 톱킹 만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베트남이 먼저 공격해서 우리도 공격했다는, 모두 조작된 사건인데, 그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오래된 기억으로 남아서 최근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자, 1964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전쟁의 민낯을 드러낸, 전쟁에 굶주린 제국의 국가들이 제국주의의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유럽 지식인들이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른바 60년대 유럽 좌파운동의 시작입니다.

60년대 중반이 되면 『뉴레프트리뷰』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좌파운동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60년대에는 소련이 우리의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을 아주 명확히 합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우리의 답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도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주의를 생각해보기 됐고, 새로운 사회주의 실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실행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반동 회의였지요. 하지만 196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수카르노가 수하르토한테 사실상 쿠데타를 당하면서 반동의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 확실하게 불가능해졌어요. 1966년에는 좌파진영의 또 다른 맹주였던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럽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또 다른 파시즘으로 가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반해 호찌민이 보여준 베트남식 사회주의가 사람들

에게 어필했고, 베트남 사람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놓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이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것은 1968년에 이른바 프랑스 낭테르대학에서 68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68세대가 힘을 보여주고 좌파 지식인운동을 확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68혁명이 낭테르대학에서 시작이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대학은 여학생 기숙사에 남자들이 출입을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낭테르대학에서 학생들 운동 열심히 하라고 수영장을 크게 짓고 개관식을 하는데 프랑스 장관이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때 한 학생이 장관 앞에 와서 다짜고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당신이 한 어떤 얘기에서도 섹슈얼리티 문제는 하나도 제기되지 않았다. 당신은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장관은 너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운동을 해라. 젊었을 때 운동하는 게 최고다, 라고 답한 거죠. 장관이 그런 대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치즘의 대답과 같았던 거예요. 나치는 청년들에게 섹스를 하거나 자유로운 상상력을 키우기보다는 몸을 열심히 키워서 조국에 헌신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 맥락이 사람들에게 와닿은 거고 거기에 저항감이 일어났죠. “우리가 성년인데 기숙사를 남녀로 갈라놓다니 우리를 아직도 미성년자 취급하는 거냐? 이것은 국가가 섹슈얼리티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증거다.” 1968년의 이 운동은 로마 등 여러 곳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이게 1960년대입니다. 그러다가 1969년에 체코에서 이른바 프라하의 봄이 일어나죠. 그리고 체코는 그 20년 후인 1989년에 벨벳혁명을 일으키고 다시 30년이 지난 올해 11월에 벨벳혁명에 관한 새로운 운동을 체코 광장에서 크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1960년대에 이런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 1960년대 한국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왜냐면

한국은 거꾸로 갔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68년에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고, 예비군 훈련을 강화하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고, 안보국가의 틀을 가지고 3선 개헌의 길을 가지요. 역사의 시계축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독재의 길을 강화해갔죠. 경제건설과 조국 근대화라는 박정희의 모토를 제외하면 거의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찌민은 1969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벨벳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68년과 1969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역사가 한 번 들고 일어났다가 꺾이는 경험을 동시에 합니다. 하지만 1968년과 1969년의 꿈이 지금의 유럽을 만듭니다. 물론 브렉시트도 있지만, 지금의 통합 유럽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다 68세대의 작품입니다. 68혁명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상상력에게 권력을’ 입니다. 그 상상력에는 인종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이것이 호찌민과 유럽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에서 일어난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신안보투쟁하고 맞물리면서 일본도 반전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해요. 이러면서 1960년대는 새로운 좌파진영, 새로운 사회주의, 새로운 상상력이 활발하게 가동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상상력이 풍부했던 정치인들은 1950년대에 활약을 많이 했고 1960년대의 사회주의는 굉장히 경직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굉장히 아이로니컬한 애깁니다만, 1960년대 이 문화가 그 뒤에 미국에서는 어떤 문화로 자리 잡게 되냐면 히피 문화입니다. 이들은 뉴욕에서 두세 시간 떨어진 농장에서 우드스탁 페스티벌을 열어 응집할 기회를 갖고 미국을 넘어 파리, 런던까지 퍼져 나갑니다.

## 가능했을 역사

아까 체 게바라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에는 68혁명이 나던 해 4월 3일에 암살당합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유명한 연설은 1963년 케네디가 암살당하던 그 해에 발표된 연설문입니다. 미국에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연설문 두 가지를 꼽으면 이것과 케네디의 대통령 취임 연설을 보통 많이 꼽죠. 그렇게 50~60년대는 정치가 어떤 쪽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 무역갈등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그런 상상력을 더 이상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껏 하는 것이 어떻게 취업률을 높일까, 어떻게 5G 잘 따라가서 먹거리를 계속해서 만들까 하는 것들이죠. 북한과 통일하면 어떤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것인가보다는 북한과 통일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많이 생길까 뭐 이야기가 주로 그쪽으로 모아져 있죠. 1960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분과 나눠보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 전 「한겨레신문」에 중앙대 독문학과 김누리 교수가 유럽의 68세대와 한국의 86세대의 큰 차이에 대해 칼럼을 썼습니다. 68세대는 정권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끊임없이 상상력의 나라를 펴서 지금의 유럽을 만들었다. 그런데 86은 정권을 바꾸고 독재자를 끌어내려 정권을 잡았지만 상상력의 빈곤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리고 브레히트 얘기를 빌려와, 우리는 파시즘과 싸워 물리치지만, 파시즘은 좀비처럼 사람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겨놓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86세대들이 그런 파시즘의 심리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끈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정권교체와 정치구조의 다이내믹한 변화를 통해서 정치 변화에 성공했지만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68세대들은 새로운 젊은

이들을 키우는 작업을 오랫동안 합니다. 가령 '에라스무스 프로젝트'라든지 유럽이 어떻게 유럽인의 아이덴티티를 갖는지에 대해 고민하는데, 우리는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데올로기적 상상력의 부재를 그대로 안고 있고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아마 유럽의 68과 크게 다른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60년대 한국과 지금 말씀드린 세계질서의 변화가 감이 잡히셨는지요.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가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1950년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조소앙의 삼균주의<sup>三均主義</sup>라든지 여운형의 건준(조선건국준비위원회)이라든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고 새로운 상상력이 많이 발휘가 되었던 국가 구상인데 그런 건 싹 사라졌어요. 이승만이 생각했던 미국식 민주주의를 강제 이식당했지요. 일본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 생각했던 다양한 사상적 자유가 왜 우리한테서는 발휘되지 못하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토론해보고 싶어요. 예컨대 1960년대 유럽에서는 다양한 실험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학인데, 80년대 우리에게 대학이라는 공간은 투쟁의 공간이었죠. 종교 집단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경직돼 있고 대학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교육부의 지침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본과 관료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니까 우리가 새롭게 숨 쉬거나 새로운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자본과 관료에 의해서 신민화된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깰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공간 중 하나가 여러분이 모인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이 틈새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하나 드리지 않은 얘기는 일본은 이렇고 나서 1969년에 정부에 지잖아요. 상당수의 좌파운동 그룹들이 지



방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하방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서 국가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로컬에서 새로운 실험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요.

1970년대 초반, 1969년에 실패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새로운 혁신자치체 운동을 합니다. 우리 요즘 혁신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미 50년 전에 일본에서 썼던 말이에요. 자치단체장이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 TOKYO는 혁신자치체가 운영이 됐던 대표적인 도시 다섯 개를 의미하는데 T가 도쿄, O가 오사카, K가 교토, Y가 요코하마, O가 오키나와입니다. 이 다섯 개 지역에서 혁신자치단체장이 당선되니까 그 당시 일본 수상이던 다니카가 아주 골치 아파진 겁니다. 일본이 70년대 고도 경제성장을 하는데, 일본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박정희가 돈을 다 은행으로 보내고 저축을 해서 산업자본을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초반에 환경 문제, 안보투쟁 문제도 있었지만 또 어떤 단어가 유행했냐면 당시 일본 인구가 1억인데 ‘1억 총(總) 중산층’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1억 명이 전부 중산층인 나라예요. 이것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실현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1억 명이 다 똑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폐단도 있었죠, 중산층이 된 일본 사람들이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해외에 나가서 저지른 피해는 땅을 많이 샀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사람처럼. 하와이 땅이 다 일본 땅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생관광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광재구 시인이 쓴 시에 정태춘이 곡을 붙여 부른 노래 ‘나의 살던 고향’ 중에 “육만 엔이란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육만 엔이면 은어 소금구이 먹고, 계집질도 하고 3박4일 풀코스 관광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197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녔죠.

일본은 돈도 많이 벌었지만 새로운 기술과 표준들도 많이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가라오케’, ‘워크맨’이 등록됩니다. 일본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리틀 도쿄>라는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미국 마피아와 일본 야쿠자가 미국의 시대가 가고 일본의 시대가 왔음을 상징하는 대화를 나눕니다. 마피아가 로스 앤젤레스에서 야쿠자한테 계속 당합니다. 야쿠자 두목이 마피아 두목에게 너희는 백전백패라며 세 가지 근거를 댁니다. 첫째, 너희는 충성심이 없다. 너희는 돈으로 조직을 스카우트한다. 우리는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 한번 충성은 영원하다. 둘째, 너희는 돈이 없다. 당시 일본에는 현금이 넘쳤거든요. 트럭 운전수가 병으로 사망했는데, 통장에 10억이 있어 주목받았어요. 그가 생전에 긴자 거리에서 10억이 든 돈 봉투를 주웠거든요. 동경에 큰 집을 살 수도 있을 돈이었어요. 트럭 운전수는 경찰에 가져다 줬지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일본법에 따라 주운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어요. 트럭 운전수가 자기는 10억 필요 없고, 나는 이렇게 매일 운전하며 사는 게 행복하다며 10억을 저금해 놓고 지내다가 그냥 자연사했습니다. 그 10억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검은 돈이었던 거죠. 돈이 넘쳐나서 돈을 찾아 굶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는 시대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마피아들은 아직도 무식하게 총을 사용한다는 거였어요. 최첨단 무기가 없는 나라들은 이제 일본과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기술 떨어져, 돈 없어, 충성심도 없다는 대사였지요.

1985년 뉴욕 플라자호텔에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모입니다. 달러화 가치를 내리고 엔화 가치를 높인다는 내용의 플라자합의를 봅니다. 미중 갈등과 똑같은 건데, 중국과 달리 일본은 절대로 맞짱 뜰 수 없었어요. 삼장법사와 손오공의 관계죠. 재주는 손오공이 좋은데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미국은 오키나와를 가졌고, 일본엔 군대가 없고, 자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미국의 설명으로 받아들인 나라니까요. 오죽하면 아베가 트럼프 영애님 생일 축하파티를 해줬겠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거의 뭐 하인 국가죠. ‘중속국가 client state’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자합의의 핵심은 너희 환율이 너무 낮으니 환율을 좀 올리라는 거예요. 환율을 지금은 25%라고 얘기하죠. 지금 일본이 (원화에 비해서) 1대 10 정도 하죠. 1994년까지 일본과 우리가 한 1대 7 정도 됐어요. 그런데 95년에 한 95까지 올라가서 그 이후에는 그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에 가기 불편하고 일본 입장에서든 관광 수입이 줄 수 있죠. 플라자합의의 핵심은 일본 돈이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 올리라는 거고 그래서 거의 30% 정도 올려요. 그게 어떤 효과냐면 지금 중국 관세를 25% 올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저렇게 맞짱을 뜨는데 일본은 그러면 수출이 잘 안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든 관세가 아닌 일본의 환율을 올림으로써 일본의 물건이 더이상 미국에 함부로 수출이 되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일본은 망합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버블경제로 1991년 일본의 모든 것이 폭락하죠. 수출도 안 되고 경기가 둔화되니까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버텼습니다. 지금까지 안 망가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대단합니다.

다시 1960년대 얘기로 돌아가, 그 시대가 보여줬던 다양한 상상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런 상상력을 새롭게 모색하려는 시점에 다시 썼는가 자문해봅시다. 이 문제는 항상 당대의 음악을 기준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마르타 쿠비소바 [Marta Kubišová](#) (1961~2017)의 음악을 들어봅시다. 우리나라로 치면 양희은과 같은 민중가요를 불렀던 체코의 국민 가수입니다. 비틀즈의 ‘Hey Jude’를 민주화를 염원하는 내용으로 개사해서 프라하의 봄에 많은 사람들과 불렀습니다. 카를교 [Karlův most](#)라는 유명한 다리를 건너면 오른쪽으로는 그림 같은 궁전들이 있고 왼쪽에는 강 옆에 1968년부터 항상 모이던 조그마한 광장에 존 레논 그림이 있어

요. 예술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어떻게 규합했는가를 알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음악이 주는 공공성과 진보성이 체코의 민주화를 추진해나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87년에 우리에게 음악과 미술이 없었다면 혁명이 성공했을까요? 저는 성공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도 있었지만, ‘걸개 그림’이라고 하는 판화 예술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사람들에게 구심점이 되었고, 새로운 공공의 장을 열어줬기 때문에 혁명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읽을 때 꼭 사건만 보지 마시고 사람들을 통해 표현되는 것들, 가장 먼저 음악을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최근 한류 문화를 비롯해 변화의 중심이 점점 더 아시아 중심으로 가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베트남하고 한국의 관계를 자세히 보시면 1950~1960년대 베트남이 그 한가운데 있었고 지금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 한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한반도의 변화에 베트남과의 묘한 관계가 연결돼 있다고 봐요. 그런 맥락과 또다시 과거의 중화주의를 재건하려고 하는 중국의 제국주의가 미국과 맞짱 뜨면서 다양한 축을 이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미일 안보조약만으로는 지금 아시아 질서를 움직이기가 어렵게 됐다고 보는 거죠. 옛것은 사라지는데 새로운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는 1980년대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 국익의 이율배반성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등장해야 하는데 등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연되면서 역사가 굉장히 늦춰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

럼프의 등장이 반증이죠. “몹시 창피하지만 굉장히 쓸모 있는 녀석이 나타났다”는 미국인들의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그들의 특징이죠. 자국의 국익을 앞세우겠다고 했던 첫 번째 대통령은 닉슨입니다. ‘national interest’, 우리는 일본이 번역한 그대로 가져와 ‘국익’이라고 말하죠. 국가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겠다. 그동안 감히 할 수 없었던 생각이었죠. 국가는 신성한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고 그래서 충성도 세금도 목숨도 바쳤는데, 국가가 기업처럼 이익을 생각해? 그 말이 처음 나온 게 1971~1972년이에요. 그 말에 가장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아마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느끼는 감정이 박정희가 닉슨한테 느꼈던 것과 유사한 심리 구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닉슨이 national interest를 얘기하면서 “미군이 그렇게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지금의 트럼프와 똑같죠?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라는 거죠. 1972년에는 한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군사력은 더없이 떨어지고요. 한국이 북한의 경제력에 비기거나 조금 넘어간 것이 80년대 초거든요. 전두환 정권이던 1983~1984년에 우리가 큰 수해를 입어요. 구호물자를 먼저 보낸 건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에요. 그때 북한이 보낸 검은 쌀이 우리 집에도 왔던 기억이 나요. 정말 맛이 없었죠. 딱 10년이 지나서 북한이 수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영 씨가 소떼를 몰고 갈 때 남한은 IMF 사태가 발발합니다. 2회에 걸쳐서 총 1,000마리의 소를 보내줬습니다. DMZ를 사람보다 소가 먼저 통과하는 모습이 가슴 뭉클했던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 문제를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겠다고 TV 토론회에 나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을 때 박정희는 1972년에 김정은과 똑같은 심정으로 핵무기를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1970년대 우리의 핵무기 프로세스와 북한의 그것은 아주 유사해요. 아주 아이러니컬한

건 남한과 북한이 아주 다른 나라 같지만 비슷한 일을 서로가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0년대도 중요하지만 4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70여 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어떤 것은 10년, 어떤 것은 60년마다 반복되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 있어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사는 게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 인물이 죽으면 우린 잊어버려요. 그리고 비슷한 행동을 또 하는 거죠.

## [질의응답]

Q. ‘그럼 나는?’, ‘그럼 우리는?’ 하는 고민이 계속 듭니다. ‘권력의 상상력’이라는 말씀이 뇌리에 남아요. 80년대를 열심히 살았던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세대가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서 한국이라는 사회를 살맛나는 세상으로 이행시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우리 아이의 개인의 삶은 또 어떤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오히려 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져가고만 있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성장하고, 관계력을 키우는 또 다른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또 다른 공동체가 과연 대안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80년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상상력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A. 왜 그럴까 토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빠요. 여유도 없고요. 뉴욕 한가운데에 ‘뉴스쿨’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좌파 지식인들이 새로운 지식을 전파했어요. 지금은 너무 제도화가 됐지만요. 그리고 미셸 푸코도 68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인물입니다. 피에르 부르디외라든지 프랑스의 유명한 좌파 지식인들 모두 그런 배경 속에서 탄생했지요. 혁명의 성공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대한 고민과 지적 자산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성과를 많이 남기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68세대가 남겼던 다양한 상상력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현재로 소화하느냐, 또는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언어로 표현해내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과거의 흔적들을 역사 속에서

채굴해내고 재구성해내는 능력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돌거든요.

Q. 68세대의 사상이 유럽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유럽공동체는 거의 실패 아닌가요? 쉽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새로운 대안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건가요?

A. 유럽연합 의장도 쉽게 대답할 수 없겠네요. 그것이 바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브렉시트 논쟁입니다. 제가 보기에 유럽은 어쨌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기본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고 유럽이 통합이 된 이후에 다른 갈등 국가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문제는 미국이 만든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 셰일 가스 같은 것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면서, 원유 매장량 전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의 석유파괴를 급락시켰어요. 베네수엘라가 더이상 석유로 돈을 벌지 못하게 제재했습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돈이 쿠바로 가고, 볼리비아의 새로운 사회 실험을 하는 곳으로도 가고, 콜롬비아도 먹여 살리고, 에콰도르로도 갑니다. 베네수엘라의 돈이 좌파 정권이 계속해서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종잣돈 역할을 했거든요. 차베스가 그걸 한 거죠. 그 돈을 완전히 차단시킨 거예요. 미국은 새로운 대안이 남미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지속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고, 그런 의미에서 유럽은 미국과 대안 세력이 되면서 새로운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토양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에 자본주의 국가가 거의 없어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 연구소에 핀란드인 학생이 연구원으로 와 있어요. 이 친구 말이, 핀란드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벌금이 4,000만 원 정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 벌금을 낸대요. 소득 비례해서 벌금을 내는 거예요. 조세 형평성을 벌금에서도 구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규칙을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TV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보셨어요? 가관이죠. 권력자들이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 하잖아요. 안에서도 별짓 다 할 수 있고요. 드라마지만 저는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핀란드처럼 사회주의를 하는 곳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럽은 통합이 되어서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양성의 원조는 아시아예요. 아시아만큼 다양한 국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도가 전부 획일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획일화된 제도를 좀 새롭게 바꾸려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중국이 만드는 제도는 또 다른 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시아에서 세계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일본이에요. 우리가 기껏 그리고 있는 게 신남방정책하고 신북방정책인데, 그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은 일대일로 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뿐만 아니라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보다 훨씬 많은 공적 자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전체 지도를 새로 그리는 것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지금 미국이 북한, 이란, 중국 이 세 나라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하면 베네수엘라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군사를 동원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하고, 이란 호르무즈에 대해서도 항모가 몇 척인가 갔잖아요. 지금 중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냐? 제가 보기엔 중국이라는 제국 주어진 바뀐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기대하는 것은 미국을 상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정도죠. 그 다음에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줄 거냐고 하는 것. 그리고 중국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남북 문제, 한일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죠. 그런 지도가 하나가 있고, 일본은 미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인도와 중국을 잇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고, 그걸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질서는 여러 개가 그려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기껏해야 1대 1 관계고 북한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북한과 철도 놓는 순간 공동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폭망' 하는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정말 새로운 그림이 새롭게 그려져야 하는데 그런 그림들은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지역에서 새로운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Q. 지금 이것(자치구 네트워크 단위인 함성과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동북권 내 대학의 교수가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 강좌)도 실험 중에 하나인 거죠? 혹시 교수님이 아는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네트워크도 있을까요?

A. 일본은 모든 혁신자치체가 그런 식으로 생겨나요.

Q. 아까 우리에게는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질 못했어요. 무조건 입시, 졸업하면 먹고살기 급급,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고, 기초 재료가 없죠.

A. 21세기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이 내년부터 제 수업에 들어옵니다. 90년대생, 80년대생들을 지금까지 교육을 한 셈인데요, 60년대생들과 같은 똑같아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아무도 새로운 것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아요. 수업이나 빨리 끝내주길 바라죠. 우리 세대야 못 배웠다 치고, 이른바 86세대들이 교육 제도를 지금 잡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스카이 캐슬’이 기승입니다. 학교 교육으로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파시즘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끈대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따라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 학력고사가 아니라 수능이라고 하죠. 수시로 해서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게 얼마나 학생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불평등 구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 제도를 통한 실험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디에서 자유롭게 상상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저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들은 대상화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 교육도 새로운 실험이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는데 여기 젊은 세대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젊은 세대들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젊은 세대들도 이른바 86세대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제가 아까 과거를 자꾸 발굴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간과 전략들을 발굴해내

지 않으면 있는 제도를 계속 바꾸는 것은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제도권에서 뭔가를 찾는 건 아닌 거 같고 현 정부도 하는 거 보면 여전히 탐다운 방식이라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있지요. 사람들을 포용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보다는 이게 옳은 거니까 이거 해, 라고 강요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 4강

## 흔들리는 분단체제와 한반도 국가

- 북한 문제의 본질과 한반도 체제 모색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눌 주제가 동아시아, 동북아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1박 2일로 동경에 잠깐 갔다왔습니다. 유사한 주제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조금 큰 흐름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본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집중 질문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오해도 약간 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가다가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보다 일본이 먼저 북한하고 국교 정상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한 지가 좀 됐는데, 최근에 아베 총리가 한 얘기를 보면 그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북에서 5월 4일과 9일에 걸쳐서 미사일을 두 번 쏘죠. 그리고 한국 정권에서는 발사체라고 그랬다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고, 이게 유엔 대북 제재에 포함이 돼야 하나를 가지고 논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보통 북에서 그런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그거 자체에는 으레 그러려니 하지만 일본이 호들갑 떠는 것에 놀랍니다. 예컨대 미사일이 보이지도 않죠. 한참 지나가서 저쪽 영해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비상 사이렌을 울리고 아이들이 머리에 뭘 쓰고 신칸센 중단시키고, 뭐 이런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이른바 ‘북풍’을 일본에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북풍이 아예 없었을 뿐 아니라 아베는 김정은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북에서는 무슨 곰발바닥처럼 낯짝이 두껍다고 그랬나. 북한의 그 독특한 표현들 있잖아요. 몸으로 그냥 느낄 수 있는 표현들. 아베는 거기에 대해서 관계없이 그대로 대화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4월 말쯤 제가 들었던 느낌은 ‘아, 먼저 갈 수 있겠다’였어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는지 그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시아 질서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제가 수업 듣는 학생들 약 70명한테 미래 자기가 어디

로 취업할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한 다섯 명 정도가 일본으로 취업하겠다고 그래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도 본인이 꼭 한국에서 취업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빠르게 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하려는 경향을 최근에 보이죠.

제가 한국 현대사를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 동아시아, 글로벌 질서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좀 기억해두실 것은 1952년, 그다음에 1972년, 1992년, 2012년, 그리고 2022년. 공교롭게도 20년 단위로 글로벌 역사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이것이 동아시아 질서를 마구 흔들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 아주 재밌는 세계를 구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 기억의 전쟁

1952년은 무슨 해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1953년생,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52년생입니다. 1952년 용띠. 이 해가 굉장히 재미있는 해인데, 제가 지난 한국 현대사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1948~1950년 이 기간이 완성된 때가 195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의 아시아 질서는 1952년의 질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시아 전체를 보시면, 일본은 1947년에 헌법을 발표합니다. 한국은 1948년에 분단정부를 수립합니다. 중국은 1949년에 국공내전을 통해서 지금의 대만과 중국으로 나뉩니다. 2019년 올해는 중국 건국 70주년이에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6·4, 천안문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문민정부가 발표한 5·18 민간인 사망자가 약 160명입니다. 최근 보고를 보면 결과적으로 700명 정도가 희생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천안문 사건은 당시 통계가 없는데 서양 신문 보도에 따르면 3,000명 정도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천안문 학살의 역사를 지워가고 있고 미국은 이 사태에 대해서 반인권 국가라고 뒷북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를 자세히 보면 역사의 축들이 흔들렸던 해이고, 과거의 숫자로서 20년 전, 30년 전이 아니라, 그것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두고 굉장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올해가 스리랑카 내전 10주년이에요. 그리고 1969년 프라하의 봄, 1989년 벨벳혁명, 올해가 여러 가지로 그런 기념적인 해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기념할지로 논란 중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미래를 우리가 기억할 것인가를 가지고 과거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크게 일어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올해가 어떤 해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시아의 기억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아시아인들에 의한 기억입니다. 지금까지 기억은 대부분 서양인들의 기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덩치가 커지면서 아시아인들의 기억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중국이 승전기념일 행사를 거대하게 했어요. 이른바 1945년으로부터 70주년이 되던 해 처음으로 중국이 승전기념일 행사를 한 겁니다. 그전에는 러시아만 했는데 왜 그때 처음으로 했을까요? 러시아는 5월 8일, 5월 9일이에요. 유럽 쪽에서는 전쟁이 그때 끝나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9월 2일. 왜 8월 15일이 아니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9월 2일에 미조리함에 일본 천황이 올라가 맥아더 앞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그 문서가 중국에 도달한 날짜를 중국은 승전일이라고 보는 거죠. 좌 박근혜 우 푸틴으로 시진핑이 근사한 그림



을 그렸던 게 2015년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기억의 전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하고 군함도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가지고 대립하고 있죠. 2015년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는 것에 반대 투쟁을 우리가 중국과 같이 했어요. 군함도에 대한 기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해방전을 기억하고 있죠, 강제징용당한 기억을. 그런데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지옥처럼 생각하는 군함도를 왜 굳이 기억의 전면에 내세웠을까요? 그것은 1945년부터 1976년 군함도가 폐광이 되기까지 기억이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처절하게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처절한 기억이지 아름다운 기억으로 미화돼 있어요. 하시마 섬은 대륙봉에서 뿔뿔 튀어나온 섬인데, 그 아래 석탄의 질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뿔뿔하게 나온 부분에 콘크리트로 인공 섬을, 탄광촌을 만든 거예요. 축구장 네 개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크기로. 그런데 여기에 일본 최초로 10층 이상의 콘크리트 아파트를 짓습니다. 밀집해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일본 최초의 최고층 아파트가 여기에 지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지내면서 석탄을 캐 일본 국내로 보내는 거죠. 1945년 이전에는 석탄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었어요. 그때는 석유보다 주로 석탄에 의한 경제였거든요. 석유, 오일 경제로 경제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을 전후해서입니다. 그래서 73년, 74년 ‘오일 파동’이라 불리는 이른바 ‘원유의 국유화’, ‘자원 무기’ 이런 말 많이 썼죠. 자, 1945년 이후에 군함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본의 경제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회고합니다. 당시 여기서 어린 시절을 지냈던 사람들이 대부분 1950년대생이에요. 일본에서 보통 ‘단카이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가 47년에서 51년 사이 출생인데, 우리로 치면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초기부터 그 이후 세대가 대부분 여기서 부모들이 일하는 걸 보며 자랐

고, 그 사람들이 지금 60대, 70대라 이제 은퇴하고 과거를 돌이켜볼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있고 그러다 보니 과거 자신들이 지낸 하시마에 대한 기억을 돌이키죠. 이걸 일본 정부가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경제 부흥을 했는데.’ 트럼프하고 똑같은 구호입니다. ‘Make Japan Great Again.’ ‘위대한 일본, 한 번 더.’ 아베가 계속 주장하죠. 그럼 위대한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에너지를 다 과거에서 가지고 옵니다. 과거에 우리한테 영광을 가져다 준 기억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한 거죠. 그리고 하시마에서 사람들은 별다른 소비 없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미장원이나 극장이 있었지만 거의 다 공짜고, 고생한다고 세금도 안 매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번 사람들이 육지에 나와 땅도 사고 한 그런 기억이 있죠. 자신들이 고생했고, 고생한 보람을 느꼈고, 그 고생이 일본을 ‘Japan No.1’ 으로 만들었고, 애국심과 맞물린 고향이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고향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된 일본에 다시 가져와서 새로운 일본을 부흥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기억의 자산으로 쓰려 하는 거죠. 그런데 주변 국가는 이걸 45년 이전에 대한 기억으로 갖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영화 <군함도>까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기억에 대한 전쟁이 지금 매우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에게 담론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현실적 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법제화, 제도화시키려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구축과 작동

1952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구축되는 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두 가지가 축이예요. 하나는 미국, 연합국과 일본. 다시 말하면 승전국과 패전국 간의 평화조약이 한 축입니다. 두 번째 축은 미일 안보조약이예요.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몇 가지 특징은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한 어떠한 나라도 이 체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 대만, 한국, 북한. 소련, 체코, 폴란드는 갔다가 회의장에서 문을 박차고 나와요. 미국이 다 짜놓은 판에 우리를 들러리 세우는 거냐, 그리고 나오죠. 사실 여기에 참여했던 총 18개국이 자연스럽게 일본과 국교 정상화도 같이 밟아갔습니다. 강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종전협정, 정전협정, 평화조약, 국교 정상화 3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전협정을 먼저 하자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게. 여기는 평화협정과 동시에 국교 정상화를 했어요. 이걸 3단계가 다 생략되고 한꺼번에 같이 간 거예요. 결국 이 소외된 국가들 중에서 일본이 가장 처음 국교 정상화를 한 나라는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예요. 러시아하고 1956년 가장 먼저 하죠. 왜냐하면 러시아의 쿠릴 열도를 중심으로 한 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51년 9월 8일, 미일 안보조약이 옆 회의장에서 동시에 이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란성 쌍둥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난 두 조약이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부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르면, 모든 연합국의 군대는 이 조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일본을 떠나 군대를 철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단, 일본이 원하면 일방 또는 그 이상의 국가와 조약에 의하여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일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일 안보조약이예요. 그래서 ‘일본의 요청으로 미군이 거기에 주둔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입장에서 군대가 다 빠져야 전쟁이 비로소 끝나고 강화조약을 맺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군대가 계속 남아 있으니 보기가 이상하죠. 그래서 그

군대를 전부 오키나와로 뺍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오키나와는 일본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주둔할 뿐 아니라 미국이 사법권까지 갖게 돼요. 다시 말해 ‘오키나와가 미국에 할양됐다’는 것이죠. 마치 홍콩이 과거 영국에 의해서 할양된 것과 똑같이 말이죠. 그래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 특히 우익들은 ‘오키나와를 빨리 갖고 와야 우리가 자주국가가 된다’는 생각을 당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의 외삼촌이자 60년대 수상을 했던 사토 에이사쿠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노벨 평화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오키나와를 반환받는 데 성공합니다. 아베 집안의 내력이기도 하죠. 미일 안보조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2년 4월 28일 동시에 발효됩니다. 2015년 4월 28일에 아베가 일본 총리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의 내용도 의미가 있는데 그건 좀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1952년 미일 안보조약에 의해서 본토에 주둔해 있던 군대가 오키나와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일본 전체의 미군 75%가, 일본 전체 인구의 1%가 사는 오키나와에 집중이 돼요. 아주 놀라운 얘기죠. 오키나와 인구가 지금 140만 정도 되는데, 당시에는 그 정도도 안 됐거든요. 지금은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이고, 1970년대에는 1억 정도였는데, 오키나와가 아마 100만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75%의 화력이 전부 오키나와로 집중이 된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 토지의 대략 20% 정도를 미군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오키나와는 그냥 아름다운 섬으로 기억이 되죠. 실제로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1952년이라는 해는 그런 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작동이 되었고, 그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미일 안보조약이라는 군사주의고, 미국의 일방주의, 또 하나는 냉전체제 혹은 분단체제가 기본이죠. 그래서 이 냉전과 분단을 관리하는 것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고, 미국 일방주의이고, 관리의 힘이 문화적 헤게모니가 아닌 군사적 헤게모니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군사주의적 성격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72년, 92년, 2012년에 흔들립니다. 흔들린다는 얘기는 아직 존재는 한다는 뜻이에요. 체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건재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크게 요동치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 중입니다. 문제는 사실상 그 체제가 더 유효하지 않고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데도, 새로운 체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유효한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두고 지금 우리가 경쟁이 붙은 겁니다. 신문 보시면 미국이 '인도-태평양 구상' 등을 줄곧 얘기해요. 이는 사실 미국이 아니라 아베의 구상입니다. 2006년 아베가 등장할 때 한 13년 전 구상을 지금 미국이 받아서 추진하려는 것이고, 아베는 속으로 쉬고 있죠. 제가 얼마 전 일본에 간 날이 트럼프가 떠난 다음날이었어요. 행사를 13개인가 했는데, 8개를 아베가 따라다니면서 안내했어요. 겉으로 보면 아베가 완전히 트럼프의 푸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누구를 갖고 놀았는지는 정말 알 수 없어요. 아베가 간 빼주고 쓸개 빼주고, 국민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자기 것을 관철하려고 했던 바가 있는 것이죠. 그의 임기는 2021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베가 전체 임기를 십몇 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한번 1~2년을 했고, 2012년부터 거의 십몇 년을 하니까 아마 한중일 역대 정권 중에서 박정희 다음으로 오래예요.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마오는 오래 했지만 좀 특이한 경우고요, 마오가 70년에 죽은 뒤 중국은 다 10년씩 했는데 시진핑이 10년을 넘게 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겁이 나는 카리스마와 독불장군들이 다 등장하는, 독불장군이 독불장군을 불러오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1972년에 어떻게 체제가 조금씩 무너져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이 되면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변화하게 되는데, 72년은 72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변화는 72년에 일어납니다만, 핵심적인 변화의 시작은 68년에, 또 68년의 변화는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죠.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68년은 유럽에서 68혁명이 일어났고, 일본에서는 68의 끝 무렵 69년 1월 동경의 야스다강당이 불타면서 이른바 안보투쟁 세대가 다 연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 '유럽의 68이 실패로 끝났느냐'입니다. 72년의 시각에서 보면 실패로 끝난 것이 맞아요. 68세대의 꿈은 잊힌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성장해왔고 이들이 정치를 하면서 지금의 EU를 만든 거죠. EU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동북아 공동의 집'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72년, 이때 나옵니다. 'Common House in Europe.' 유럽의 공동의 집을 구상하자. 그 이야기가 72년에 나오는데, 그것은 68세대의 영향이 매우 큼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냐면,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1974, 75, 76년 헬싱키에서 회의를 해요. 헬싱키는 핀란드의 수도죠. 지도를 보시면 핀란드 헬싱키에서 모스크바까지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핀란드는 사실 작은 나라입니다. 덴마크는 힘이 센 나라예요. 바이킹, 노르웨이도 있는데, 핀란드는 작은 나라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덩치 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못 살겠다고 도망친 게 아이슬란드예요. 또 재미있는 것이, 아이슬란드 전체 인구가 30만밖에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다섯 사람 내지는 여섯 사람을 통하면 다 안다고 하잖아요. 아이슬란드는 두세 사람만 통하면 다 아니까 나쁜 짓을 못 한다고 하죠. 그리고 군대가 없어요. 군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게 해안 경비정 딱 두 대예요. 그 중 한 대를 제가 보고 왔어요. 아이슬란드 군사력의 50%를 제가 딱 보고 온 거죠. 아주 재밌는 나라예요. 그래서 핀란드 헬싱키에서 했던 이

유는 헬싱키가 가장 힘이 없기 때문에, 가장 힘없는 나라에서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래요. 제가 북한 사람들하고 회의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럴 때 북한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 꺼리는 장소가 있어요. 북경을 싫어해요. 누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회의를 아예 먼곳에서 하죠. 제가 2004년 북한 적십자사 대표와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했어요. 재미있지 않아요? 유럽에 가도 아주 한적한 데서 해요. 그래서 이 헬싱키 프로세스가 68혁명 이후 지금의 EU를 만든 과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68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유럽에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들이 정치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60년대의 기억을 안고 성장해갑니다. 그런 변화도 있었고, 68년에는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닉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1972년 국제정치에서 처음으로, ‘국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말을 쓸 수 있냐고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죠. 국익, ‘National interest’. 이 ‘interest’는 이자, 이익이란 뜻인데, 이 말은 자본주의 상인이 쓰는 거예요. 국가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품격 있는 것인데, 국가가 어떻게 interest를 생각하고 정책을 세울 수가 있나. 국가는 훨씬 더 ‘public’하고 ‘justice’가 있어야 하는데. 닉슨은 국익을 최고로 우선시하면서 미군을 전 세계에서 그렇게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지금 트럼프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트럼프와 차이는, 당시는 미국만큼 잘사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닉슨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군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것뿐이었어요. 상대국이 돈을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돈 내, 너희들이.” 그거잖아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것은, F-35기 최신 전투기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지 않아요. 어렵잡아 10대. 그런데 아베

가 지난번 트럼프와 만났을 때 그 전투기 100대를 사겠다고 했어요. 이게 100대면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하고 전쟁나면 우린 꼼짝없이 화력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지스함도 우리보다 2~3배 갖고 있고요. 이지스함 한 대가 보통 사단 병력을 커버해요.

68년 닉슨이 국익에 의해 세계질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해서 국익 개념이 나오고, 또 하나 ‘데탕트’가 나와요. 냉전체제가 해체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새롭게 긴장 완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냉전체제 완화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는 핵무기 감축을 목적으로 SALT<sup>5)</sup>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시작하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은 국교 정상화 수순을 밟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탕트가 이뤄지는데, 이것을 잘 보시면 닉슨과 트럼프가 매우 유사합니다. 기질은 다르죠. 닉슨은 초엘리트입니다. 아이젠하워 때 이미 비서실장을 했고, 30대에 장관급을 다 거쳐요. 닉슨이 69년 4월 괌 독트린<sup>5)</sup>을 발표하자 박정희 정부가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1968년, 1969년이라는 시점은 우리가 경제력도 없고, 군사력도 약해서 미군이 빠지는 순간 위험해지는데 북한에서는 그때 전쟁해서 통일하겠다고 하고, 68년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684 부대를 만들고, 정보부장 김형욱이 해임되고 이후락을 집어넣은 것이 이 닉슨 때문이에요. 당시 김형욱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어서 박정희가 이

5) 괌 독트린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 ② 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한다.
- ③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영 개입은 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각국의 자주적 행동을 촉진 지원한다.
- ④ 아시아의 각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 중심으로 바꾸며 여러 나라의 상호 원조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 ⑤ 아시아 각국이 장래 5~10년 안으로 상호안보장치를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 제어하기 어려웠어요. 결과가 좋으면 자기 보스가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에 움직이니, 박정희도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락을 쓰고, 1972년 미국이 빠지지 않도록 박정희가 최선을 다하죠. 박정희는 참 특이한 인물인데, 이력은 다들 아시잖아요? 만주에서는 아베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밑에서 일했죠. 1968년을 지내면서 박정희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죽 인생을 살다보니까 미국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공산당 운동하던 자신을 한국군 장교로 전환시켜 줬지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혈맹이자 우방국 대통령 케네디한테 돈을 빌리러 갔더니 케네디가 독재자한테 돈 안 빌려준다 해서 크게 망신당하고 왔죠. 더 치욕적인 것은 돈 빌려주겠다는 독일 갈 때 비행기를 안 빌려준 거죠. 그 수모감이 박정희한테 굉장히 컸어요. 어쨌든 미국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자주국방’ 하자고 그러죠. 그래서 70년대에는 김일성과 박정희가 사실상 노선이 똑같아요. 핵심은 자주노선이에요. 그래서 핵무기 개발하고 그랬던 거죠.

69년 괄 독트린을 발표하고 나서 미국은 중국에 어떻게 노크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미국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겁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겁이 많은데 자기들 맘대로 해. 예를 들어 사담 후세인 죽일 때도, 모든 전투를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요, 겁이 많으니까 좋게 말하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보병이 건지러 들어가죠. 보병이 싸우러 들어가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육군을 ‘땅개’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모질게 전투하는데, 미국은 그러지 않아요. 군사지역에서 셰퍼드가 지뢰 탐지하고 나면 사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 접근할 때 셰퍼드가 필요했어요. 그 셰퍼드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1971년 나고야에서 탁구대회를 하는데 그때 중국이 국교 정상화가 안 되어 있었는데 미국이 “야, 불러 임마” 해서 갑자기 특별히 부른 거죠. 지금 북

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미국뿐 아니라 남한의 의사도 있고 해서 아베가 그걸 허용할 가능성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99%라고 봅니다. 어쨌든 72년에 그렇게 하고 나니 갑자기 일본이 중국하고 먼저 국교 정상화를 해요. 미국하고 중국은 언제 국교 정상화를 했을까요? 68년 선거해서 69년 1월에 정권을 잡은 닉슨이 79년에 합니다. 딱 10년 걸렸어요. 올해가 미국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 40주년이에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처음에는 말싸움 정도 하다가 지금은 ‘단도’ 정도는 든 거 같아요. 나중에 ‘기관총’을 들지도 모르겠지만. 72년에 이렇게 해서 세계 정치를 흔들려고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애깁니다.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72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개방과 개혁 쪽으로 변화가 유도됩니다. 한반도에서는 데탕트의 제스처를 어떻게 취했냐면,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남도 북도 3대 평화통일 원칙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언제 빠질지 모르고, 언제 전쟁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10월 유신을 만들고 긴급조치를 해 거의 개헌 상황으로 갔고, 북한은 북한대로 같은 72년 12월 주체사상이 ‘신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72년의 큰 변화예요.

72년의 결정적인 변화는 한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어나는데, 일본에서는 72년 오키나와가 반환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드디어 해체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본에서는 72년을 국권 회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미국이 갔으면 우리를 한국처럼 독립을 시켜줘야지 다시 또 일본에다가 묶어놔? 우리는 원래 ‘류큐’라고 하는 나라야.” 1879년 ‘류큐 처분’이라 해서 일본이 가고시마 쪽 밑의 ‘류큐’라는 독립된 왕국을 ‘변(藩)’이라는 일본의 행정구역 안에 마음대로 편입을 시켜요. 류큐는 제가 아이슬란드 얘기를 했듯, 전통적으로 군대가 없는 나라입니다. 군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질 게 뻔해서 아예 군대가 없는 것이 현명하다는 전략

적 선택을 이미 500~600년 전에 했어요. 대신 조공을 다 바치겠다, 조공 달라고 그러면 다 주겠다, 대신 우리는 우리 걸 지키겠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조공 바치는 것을 너무 비겁하다고만 보실 게 아니에요. 오키나와가, 당시 류큐라는 나라가 중국하고 싸우면 이길까요? 아주 잔인하게 다 죽죠. 그러니까 조공 열심히 바치고 건드리지 말라고 한 거죠. 그렇게 사쓰마 번에다가도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오키나와는 72년 일본으로 귀속이 되고 드디어 일본 사람들이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오키나와에 여행을 갈 수 있게 됐어요.

미국은 1969년부터 1979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 시작할 때는 마오가 있었지만 등소평으로 바뀌었고, 미국은 닉슨에서 포드, 카터, 레이건까지 이어지는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은 개인적으로 레이건을 가장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정치가 낳은 결과는 닉슨하고 유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본이 북미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또 맛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92년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87년, 88년의 변화가 여기 또 영향을 줘요. 87년, 88년, 89년, 92년. 72년은 오키나와가 반환되고 한국에서 유신헌법이 선포되면서 분단, 냉전체제가 훨씬 심화됩니다. 기본적인 골격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데탕트지만 흐름이 전혀 바뀌지 않아서 흔들려도 여전히 계속 가는 거죠. 그게 92년 또 흔들립니다. 일단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데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85년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필리핀의 아키노가 살해되면서 이른바 노란색 물결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시아 민주화 운동이 아주 거세게 불타던 것이 80년대

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85년, 87년, 88년 이렇게 가죠. 똑같은 양식으로 폴란드의 바웬사가 유럽에서 등장하기도 하고요. 베를린 장벽이 오보에 의해서 무너진 건 다 아시죠? 베를린 장벽의 동독 쪽 베를린 시장이 술 먹고 와서 자유화를 하겠다 얘기한 거예요. 동독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게 해외 여행 자유화였는데, 이걸 지금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을 잘 못 하는 이탈리아 기사가 이탈리아 신문에 동독 지역의 베를린 시민이 서독에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써놨더니,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장벽 앞으로 다 몰려간 거예요. 벌떼같이 몰려간 거죠. 경비병이 아무 지시도 못 받았으며 못 간다고 하니 “넌 신문도 안 보냐!”고 거기 모인 어른들이 야단을 친 거죠. “어 그런가?” 하면서 한번 열어줬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벽을 다 부수기 시작한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동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독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이미 88년 올림픽을 치른 한국에서는 노태우 정부가 이른바 ‘북방 정책’을 실행해요. 올해 공교롭게도 다뉴브 강에서 사고가 났는데, 한국이 최초로 동구하고 국교 정상화를 한 나라가 헝가리예요. 그래서 올해가 헝가리 수교 30주년이지요. 그런데 다뉴브 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서로 난처한 거예요. 국교 정상화에 대한 기념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니. 1989년에 우리가 동유럽의 붕괴를 예측하고 북방 정책을 편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를 잡은 듯 보이는데, 하여튼 방향은 잘 세웠어요. 중요한 점은 북방 정책을 편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민주화 운동에 있었다는 거죠. 민주화 운동을 하고 나니까 국내 정치에서 노태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가장 중요했던 경제개발, 민주화, 남북통일 중에서 경제개

받은 그냥 진행되는 거고, 민주화는 자기가 할말이 없고, 그래서 한 게 북방 정책입니다. 노태우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변화하는데 그 핵심은 남북 관계 변화예요. 89년에 헝가리와 국교 정상화를 맺고 폴란드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요. 1991년에는 고르바초프의 소련하고 국교 정상화를 했어요. 그런데 91년 크리스마스에 소련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92년에 러시아하고 국교 정상화를 다시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북한입니다. 북한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1989년에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쿠가 처형되자 북한도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북한은 남한하고 관계 정상화를 맺기를 희망하죠. 그런 기류가 형성된 거예요. 그때 노태우가 굉장히 파격적인 정치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태우의 국방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평가를 박하게 하는데 좀 제대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들을 사실상 많이 실행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야 할 것은 민주화 운동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의 동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태우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힘이에요. 그러니까 노태우는 계속 잘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거대한 힘에 주눅이 든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뭐냐면 87년에 민주화 운동이 있고 그해 선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노태우가 되고 나서 88년 2월 28일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88기독교선언을 해요. 그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 게 이 선언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재정립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젠더 문제는 약하지만 민주화와 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봐도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88선언이 나가니까 그때 노태우 대통령 측

에서 88선언을 작성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선언문의 내용을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 7월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고 정부안이 나와요. 89년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아주 획기적인 발언을 합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겠다. 그리고 전술핵 철수하겠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하겠다. 이게 북한에 엄청난 사인을 주죠. 그 합의가 1991년 3대 합의를 만들어내요.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선언, 남북 유엔 동시가입. 이 세 가지로 91년, 92년에 걸쳐서 남북 관계가 새롭게 정립됩니다. 92년이 되면 남과 북이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새로운 통일을 그리는 그림으로 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92년이라는 해가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고 90년 1월에 3당 합당을 하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92년에 후보로 나오죠.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의 입장에서 상당히 거목이지만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타고난 반공주의자예요. 그리고 한미 관계에서는 동맹노선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미국 측에서, 지금 트럼프하고 똑같아요, 한미 군사훈련을 이렇게 1년 동안 안 하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와 비용을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죠. 김영삼 입장에서는 북한을 별로 신뢰하고 싶지 않고 또 하나 김영삼의 멘탈리티는 모든 역사가 자기한테서부터 시작돼야 하죠. 어쨌든 91년, 92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92년이 되면 남북이 획기적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를 해요. 이때 김일성이 중국을 굉장히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국교 정상화를 할 때, 중국이 미국한테 요청해서 북한하고 미국도 국교 정상화에 교차 승인해서 네 나라가 근사하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중국이 북한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중 국교 정상화를 해버린 거예요. 박정희가 미국을 못 믿는 것처럼, 김일성이 그래서 중국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군사훈련 안 하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해야 된다 그러고, 1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NPT 탈퇴한다고 한 게 93년. 그다음에 93년 제1차 북핵위기에요. 그러면서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가 발생하는데, 94년 지미 카터가 방북을 하죠. 평양 갔다가 오면서 김일성과 김영삼이 최초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죠. 역사가 이렇게 아이로니컬합니다.

아무튼 92년에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한 번 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무렵에 일본도 무라야마 연립정권이 오면서 바뀌죠. “야, 이제 새 시대가 온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오면서 90년대의 역사가 바뀌고 있구나. 동구권이 무너지고 있고, 남북 관계가 새롭게 변화하고 일본도 55년 체제가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KBS가 특집방송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세가 다시금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하고, 무라야마도 끝나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흔들렸지만 다시 또 굳어지는 거죠.

## 국가와 내셔널리즘

2000년대로 넘어오면 2002년, 2012년, 2022년이 또 이어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2년은 굉장히 안 좋은 해예요. 일단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기죠. 독도 방문을 해요. 역대 대통령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독도를. 사실은 방문 안 해도 독도는 우리 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도 알면서 눈감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방문하니까 일본 언론이 보도할 수밖에. 보도하니까 독도가 한국 거 맞냐고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일본 정부가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없죠. “아니, 저거 우리 거야.” 이렇게 시마네 현

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2월 22일에 행사를 하기 시작하며 열도에 새로운 긴장감이 돕니다. 또 중국은 기존의 영토 분할을 이해할 수 없으며 노골적으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방문은 이명박이 해서 방아쇠를 당겼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영토가 맞느냐, 독도만 한국 것이 아닙니다, 센카쿠 열도와 다오위 섬은 중국 거다, 라고 주장하죠. 여러분 일본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일본이 아주 커요. 우리가 400km, 800km 라면 거기는 거의 2,000km 나오고, 저 위 쿠릴 열도에서 오키나와 밑까지면 굉장히 길거든요. 소련에서 저 남태평양 열도까지 일본 열도가 그려져요.

중국은 2012년을 지나 2013년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바뀌면서 다오위 섬을 양보 안 하겠다고 했어요. 중국은 78년 등소평 때부터 개혁개방을 시작했고 79년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했는데, 등소평이 “우리는 이제 개혁개방을 시작했으니 몇 년이나 늦은 거냐?”라고 했어요. 1945년에 해야 하는 걸 1979년에 했다는 거죠. 올해가 중국 입장에서 건국 70주년이에요. 미국하고 국교 정상화 40주년.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기념해야 될 게 많은데, 미국이 얄밟게 천안문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면 자기들이 지워버린 역사를 꺼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등소평이 우리는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날카로운 칼을 품에 숨겨야 된다고 합니다. 도광양회죠. 아주 번쩍이는 검을 품에 숨기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등소평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었던 거죠. 그것을 장쩌민, 후진타오가 이어받습니다. 다만 그 도광양회의 그림이 후진타오로 가게 되면 대국굴기의 그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003년 후진타오가 대국굴기를 CCTV에 시리즈로, 아홉 개 나라 열한 편으로 전 국민을 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한국 EBS는 긴급편성하고, 그게 전부 한국어로 번역되어 CEO 필독서로 유행하게 되죠. 아이로니컬하게도 지금의 결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인 중



국이 다시 부활해서, 제국의 귀환이죠, 가장 신생 제국인 미국과 맞짱을 뜨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맞짱 떠서 서로 피 보지 말고 사이 좋게 가자는 뜻으로 시진핑이 2013년 4월 미국에 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G2' 얘기를 처음 합니다. G2하고 G2는 역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 다시 제국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 G2예요. G20도 제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미국은 G2를 쓰지 않아요. 미국의 공동성명문에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2012년은 새로운 분절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계질서가 바뀌고 미국의 일방주의가 관통했어요. 그런데 2012년 이후 가장 큰 차이는, 여전히 유효한 군사주의에 비해 미국의 일방주의, 냉전체제, 분단체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주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2012년에 다시 재구성됩니다. 영토 문제를 가지고 민족주의가 부활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당시의 미 일방주의, 냉전체제, 분단체제는 커다란 세계질서 속에 편입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2012년 이후에는 군사주의와 미국의 편이 아니라 민족주의와 국가를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시키면서 2012년 이후의 세계질서는 이제 국가와 내셔널리즘으로 치닫게 되죠. 이는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의 봄'이 있고 난 뒤에 ISIS가 나오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에르도안이 나왔죠,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가 나왔고. 뭐 이런 정치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 2012년은 이런 해입니다. 2012년이면 오바마가 대통령, 힐러리가 국무장관 할 때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2001년 9·11 테러가 나고 나서 2011년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오사마 빈라덴을 사실상 10년 만에 처형해 테러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10년 하는 사이에 놓친 게 있어요. 미국이 유지해왔던 세계질서가 그새 많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

지 않아야 할 게, 미국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거기도 대통령 하나고 참모들도 그렇게 뭐, 하여튼 미국은 90년대 최고의 호황기를 누립니다. 미국의 일방주의가 최고조에 이른 것이 1990년대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85년 '플라자합의'라고, 지금 관세를 25% 올리는 것처럼 미국이 일본에 대해 강제로 환율을 올리게 한 거죠. 더는 일본이 싸게 물건을 팔 수 없게 만들었어요. 수출이 안 되니까 4년 후 90년대 일본의 버블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크면 자기 품을 떠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본 경제가 미국의 뺨을 칠 상황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손오공의 금고아' 같은 걸 씌워놓고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90년대 가서 보면 그 금고아를 벗어 던질 것 같아서 씌워놓은 것이 플라자합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블경제를 계속 만들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은 승승장구해요. 신자유주의, 미국의 일방주의가 승승장구한 시기가 90년대입니다. 조금 크려고 하면 IMF가 가서 다 정리해주고.

사실 중국은 미국에 2013년부터 맞짱을 뜨기 시작했고, 시진핑은 '중국몽 中國夢'을 발표하죠. '도광양회'에서 이제 '대국굴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몽은 구체적으로 '일대일로' 아래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만듭니다. 핵심은 미국이 가진 모든 중심축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기축통화는 앞으로 블록체인이나 전자화폐가 대신하게 될 건데, 그래서 만든 게 중국 14억 인구가 쓰는 유니온페이예요. 이제 유니온페이 안 쓰는 나라가 없고, 중국 가보시면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를 안 받는 곳이 아주 많아졌어요.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중국의 공산당은 풀뿌리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러시아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여기는 농민부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역사도 다르지요. 그러니까 유니온페이가 기축통화 이상의 효과를 갖게 되

죠. 그리고 국채 다 샀죠? 지금 국채를 풀까 말까 하는데, 국채를 풀면 중국도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함부로 안 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화웨이 문제가 발생했지만, 미국이 화웨이를 건드린 이유는 앞으로의 새로운 질서를 중국에 뺏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화웨이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제2의 아편전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1848년 겪었던 그 아픔 이후 거의 200년 동안 중국이 호령하지 못하고 지냈던 그 기억에 기반해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가를 되물은 거죠. 이제 모든 게 디지털화가 되니까, 모든 인프라가. 돈, 사람, 움직이는 것 모두가. 사물인터넷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전기자동차, 에너지,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이 이제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의 움직임은 그런 새로운 변화가, 맞짱 뜨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큰 변화를 이뤘다면, 2012년에는 중국이 (미국한테) 대드는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2012년에 한국만 계속 중국 눈치 봤다가 실패하고, 롯데 투자 실패하고, 사드 배치 한 번으로 관광객이 발길을 끊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2012년에는 것처럼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 인도-태평양 구상과 한반도

이런 변화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가 고민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베가 2015년 미국에 가서 ‘앞으로 일미 관계는 대등한 동맹 관계, 희망의 미래를 만들자’고 말했어요. 희망의 미래, 대등한 파트너십. 지금까지 대등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베는 돈 더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돈 더 내라고 하면 얼마든지 더 낼게. 대신 대등하게 가

자. 그런데 대등하게 가는 과정에서는 비굴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실력이 월등하면 나이 불문하고 찾아가서 배워요. 아베도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미국과 사이에서 얻을 것을 얻을 때까지는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죠.

한편 북한은 굉장히 실용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2012년 지금 외무장관 리용호, 대변인 최선희하고 제가 뉴욕에서 2박3일을 같이 보내요. 한신대가 만든 프로그램에 마침 왔는데, 그때 그 회의에 키신저가 왔었어요. 키신저가 69년부터 79년까지 국무장관을 하면서 미중 국교 정상화를 이루거든요. 지혜를 듣고 싶다고 해서 초청했어요.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최선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을 하고 오바마 집권 2기에 국무장관을 했던 존 케리한테 “왜 미국은 한국만 사랑하느냐? 우리 북한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다오.” 그러면서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면 너희 미군 부대를 우리한테 뒤도 좋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귀를 의심했는데, 무언가를 가슴에 못 담아두는 문정인 선생님이 진심이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선희가 머뭇거리 없이 물론이라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라면 미국이 핵우산을 씌워주면 그걸 받을 용의가 있다. 사이만 좋아지면.”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귀를 씻고 다시 한번 듣고 또 쉬는 시간에 가서 묻고 그랬는데 “우리 미국하고 친하고 싶다”고 했지요. 그 정도 각오를 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 기억들과 이번 하노이 회담을 보니까 김정은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 짐작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012년 3월 8일, 9일 그 회의를 제가 1년 반 계획하고 1, 2월 두 달 동안 뉴욕에서 살며 회의 준비를 했는데, 12월 17일 김정은 아버지가 죽잖아요, 김정일이. 그래서 우리는 그 회의가 취소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공들여서 준비했던 회의가 2012년 3월 8일에 열렸고, 비용을 댄 독일의 배려로 호텔 한 층을 다 빌리고 엘리베이터에 보디가드를 세워서 기자들 출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허심탄회

한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명박 쪽에서는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데 북에서는 미국하고 아주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는 얘기를 한 거죠. 북한이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일본이 저자세로 나오고, 만약 일본이 한국이 1965년 국교 정상화하면서 했던 것 이상의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 저는 북한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만약 파격적인 제안에 더해 북미 국교 정상화에 일본이 더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구상이 그대로 굴러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들어오니까. 판을 쓱 도둑질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군사주의, 내셔널리즘, 제국주의, 국가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담론, 상상력의 싸움이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그걸 계속 치고 나가는 거예요. 14억이 가면 길이 되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의 인구가 8천이고, 일본이 1억 2천이에요. 합치면 2억인데,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70억 중에 2억이 움직이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숫자예요. 중국하고 미국이 양쪽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과 가장 새로운 제국으로 위치하는데, 이 두 제국의 헤게모니를 넘어설 수 있는 그림을 한국, 북한, 일본이 같이. 대만까지 들어오면 인구가 3천만 좀 더 되니까 2억 3천만 이거든요? 많아요. 동남아까지 들어오면 한 20억 돼요. 그러면 정말 새로 한 번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죠.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그리는 건 인도-태평양 구상이예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괌, 하와이 이렇게 해서 횡으로 가는 거죠. 우선 횡축을 만들어 중국이 남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종축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종축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러시아부터 내려와요. 러시아, 몽골, 중국, 북한, 남한,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그렇게 해서 종축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구상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대일로를 이렇게 해서 옛날 실크로드, 바닷길하고 육로를 만들고 있고, 지금 미국은 인도-태평양으로 중국을 어쨌든 차단하려 하고. 지금 바닷길의 핵심 요지들에서 미국과 중국이 다 부딪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문제도 미중 갈등이 빚어낸 또 하나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은 체스 두듯이, 중국은 바둑 두듯이 두고 있는 거예요. 바둑에서는 집을 만들면 살고 좀 불안하면 다른 곳부터 뒤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잖아요? 중국은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다른 중국과 미국이 지금 붙어서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 90년대 미국이 그렇게 했는데 9·11 테러가 일어나고, 2011년 오사마 빈라덴을 죽이고 나서 보니까 중국이 세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힐러리하고 오바마가 같이 순방을 해요. 오바마는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쪽을 힐러리는 호주를 순방했는데, 둘 모두 비슷한 시기에 'Pivot to Asia'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심축이 아시아로 간다는 거예요. 미국은 아시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아시아하고 모든 걸 같이하겠으니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거죠. 그 얘기를 뒤집으면 중국을 봉쇄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미국도 듀얼코어가 안 돼요. 그래서 2011년 오사마 빈라덴을 죽이고 나서 보니까 중동 지역에 반미 정서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 플로리다 주 바로 코앞의 쿠바부터 남미를 완전히 좌파정권이 잡은 거예요. 차베스뿐만이 아니라 볼리비아는 최초의 평민 인디오 출신인 모랄레스가 대통령이 됐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티나가 예전의 페론주의를 다시 부활시켜서 민중을 일으켰고, 콜롬비아는 내전이 있었지만 어쨌든 반미국가가 됐고. 미국이 석유 산유국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의 석유파이를 죽이기 위해 셰일가스를 개발하고, 그러면서 여러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 남미를 지원한 게 중국이거든요. 2012년 이후에는 상당히 점잖게 하다가 2019년 올해부터는 미국과 중국이 대판 싸움에 들어갔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북한을 어쨌든 안고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문재인 정부만 갖고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자기편으로 확실하게 붙들려는 거고, 아베하고 그 부분이 맞는 거죠. 여러분 순방을 3박4일이나 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할 일도 없지, 지금 이 엄혹한 시국에 순방 가서 골프나 치고, 11월에 또 가서 천황과 관계된 행사에 참석한다고 해요. 그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갈까 말까 한데, 새로운 천황을 확실하게 붙잡으려는 거죠. 사실 아베하고 천황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베가 미국 트럼프를 통해서 확실하게 자국 내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거예요. 헤이세이 아키히토 천황하고 지금 레이와 나루히토 천황의 관계를 보면, 헤이세이 천황은 전전과 전후를 다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쇼와 천황이 가졌던 전범에 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레이와는 그런 부채가 없거든요. 부채가 없는 이 천황을 아베가 굉장히 잡고 싶은 거예요. 그 전 천황은 대단히 꺾끄러웠거든요. 정치 개입하면 안 되니까 반대는 안 하지만, 뭐 할 때마다 천황이 나와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아베와 대비됐지요.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 아주 놀랍게도 천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 새로운 시민의 논리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을 보면, 왜 2022년이나 하면요 2018년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남북 관계가 변화해요. 그리고 2020년 동

경 올림픽을 해요. 그리고 2022년 북경 올림픽을 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올림픽을 한 나라가 한중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1964년 하고, 1988년 하고, 2008년 해서 거의 20년 간격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1964년 올림픽을 하고 나서 4년 뒤인 1968년 세계경제 2위가 돼요. 한국은 1988년 올림픽을 하고 나서 세계경제 10위 근처를 얼쩡거리고, OECD 가입을 하죠. 이걸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2008년에 하고 그 뒤인 2010년, 2년 지나서 세계경제 2위 대국이 돼요. 이 올림픽은 누가 빨리, 누가 더 거대하게 경제대국이 되는가에 대한 씨름이에요. 그런데 2018년부터 두 번째 사이클로 서울, 동경, 북경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거의 20년 간격이다가 지금은 2년 간격이에요. 그리고 더이상 경제를 뿔내지 않아도 돼요. 다 잘사는 줄 아니까. 제가 올 1월에 스코틀랜드에 갔는데 거기 아주머니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국에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에 왜 그렇게 가고 싶냐고 했더니 그렇게 첨단에 있는 선진적인 나라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영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산업화에 있어서 제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유럽 한번 가 보세요. 100층짜리 빌딩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옛날 중세 도시예요. 우리는 그런 거 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중세시대 같은 곳에 살고 있다가 상해나 서울이나 동경 같은 세련된 도시, 유럽에서는 구사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도시를 죽기 전에 경험해보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2018년, 2020년, 2022년. 세 번의 올림픽은 이제 새로운 문화와 평화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일본에서 2020년에, 만약에 2020년에 안 되면 2022년에라도 ‘한중일 시민 올림픽 평화대회’를 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사실은 올림픽 하다가 패럴림픽도 하게 된 거고, 저희도 88년 올림픽 할 때 올림픽 학술회의라고 크게 ‘WACSO The

World Academic Conference of the Seoul Olympiad '88'라는 회의를 정부 돈 몇 십억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그런 회의를 이제는 정부 돈 받지 않고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세계 변화 속에서 깨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한중일 시민 올림픽 평화대회를 통해 정부와는 조금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북아 질서는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울초 고노 외상이 일본 국회에서 이제 일본은 미국과 혈맹관계이고,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변 근린국가라고 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국방백서에 '일본과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라는 두 축을 공동의 가치로 공유하는 국가'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뻘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제가 첫날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데 반대한다고 한 바와 같은 그림이에요. 동북아에 대해 자본이나 국가, 민족주의 논리가 아닌 새로운 시민의 논리로 한번 다시 상상력을 발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제질서라는 바둑판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놀란 감독의 <인셉션>을 보면 굉장히 많은 차원들이 등장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차원이 필요해요.

문화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저는 BTS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편인데, '21세기 비틀즈'라고들 하죠. 21세기 비틀즈가 되려면 20세기 비틀즈를 이해해야 돼요. 비틀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 일단 비틀즈는 런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리버풀의 아주 젊은 청년들이 시작해 자수성가한 에너지가 있었고, 그들이 생각했던 음악은 60년대 정서를 담고 있을 뿐만이 아니에요. 1969년 체코 프라하의 봄이 있고, 20년 지나 1989년 벨벳혁명을 할 때 그 구심점이 된 게 비틀즈예요. 1969년 비틀즈가 'Hey Jude'를 발표하고, 그 노래를 번안해서 혁명의 광장에서

부르기 시작했죠. 노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시대를 읽어낸 것이지, '칼 군무', '꽃미남' 등과는 좀 다르죠. 무라카미 하루키나 고은이 노벨 문학상을 타는 그런 성과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시민이 정말 공통의 정서를 갖고 있다면, 같이 문학 작품을 만들어도 좋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뮤지컬을 하고. 그렇게 소리를 같이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계속 민족주의 담론과 자본주의 담론에 놀아나기만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5강

## 지역운동과 새로운 정치

- 마을정치와 마을활동가의 리더십

오늘 주제는 지역운동과 새로운 정치입니다. 사실 새로운 정치를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강의 때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지, 단지 꿈인지 아니면 현실로 가능한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했던 그룹이 일본에 하나 있는데, 우리와 가장 유사하기도 하고 해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한신대에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이 생겼어요. 사회혁신이라는 말처럼 정치적인 단어들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정치적 맥락이 많이 달라지지요. 예를 들어서 '자유'란 좋은 말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말이 어떤 콘텍스트에서 더 많이 쓰였느냐면, 자유민주주의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라는 말의 콘텍스트는 사실 '반공주의'였죠, '공산당'하고 반대되는. 그런 의미에서 최근 '혁명'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과격한 운동 이미지이고 단어 자체가 사회주의 쪽에서 많이들 써왔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지 않으려다 보니까 '개혁'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써요.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이전에는 80년대 운동을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그때는 '변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혁명과 개혁의 중간 정도 되는 언어로 많이 썼던 겁니다. 변혁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는 원래 뜻은 체제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수정 보완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체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사회변혁이라는 단어를 썼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지난 20년간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 지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이명박 정부 전후해서 '혁신'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변혁이라는 단어는 70~80년대 사회운동하면서 한국의 사회적 맥락

에서 변혁운동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개혁은 정권을 잡은 김영삼 씨가 이제 문민정부라는 차원에서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담론을 김영삼 정부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의 심벌로 자리 잡았죠.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체제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어떤 부조리라든지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이룬바 수정하는, 예를 들면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같은 것을 개혁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개혁도 해보고 민주화도 해봤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느냐면, IMF 이후 주로 SK 쪽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혁신이라는 단어는 사회적인 단어가 아니라 기업에서 주로 기술혁신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스티브 잡스, 구글 등 이전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사회 전체를 창의적으로 바꾸는 개념으로 혁신이라는 개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란 주로 기술과 자본에 의해 주도되던 개념인데, 그 뒤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으로 사회에서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도 이제는 거의 거부감 없이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회혁신에서 혁신이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혁명, 변혁, 개혁, 그리고 혁신이라는 담론으로 넘어오는데 또 하나는 ‘사회’, ‘소셜’이 붙었을 때 뭐가 바뀌겠느냐는 문제가 있죠. 무엇을 ‘소셜’로 볼 거냐?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은 어떻게 다르냐? 또 ‘국가혁신’은 어떻게 다르냐? ‘지역혁신’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혁신 얘기가 나오고 사회적으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협동조합법이 생기고, 사회적기업도 생기고, 마을기업도 생기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들이 다양할 수 있다는 개념이 일단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혁신’ 얘기를 왜 하느냐면, 담론이 형성될 때 내용을 누가

채우고, 사회적으로 누가 보편화시키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91년 우리가 처음으로 지방자치, 물론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의회 중심의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시민사회 쪽에서 많이 얘기한 것이 ‘생활정치’예요. 이 생활정치 개념을 당시 민자당이 바로 가져갑니다. 아예 자기들이 생활정치를 한다고 온 동네에 다 뿌렸어요.

이처럼 언어와 담론과 실천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 우리가 담론 지형뿐 아니라 실천 지형에서 격돌, 갈등, 경쟁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이 실패하게 되면 김영삼 정부 때 개혁 담론처럼, 아마 문재인, 박원순 정부에서 그냥 시대를 하나 부르짖고 마는 담론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염려스럽다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혁신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인 얘기는 공동체 발전, 건강, 행복이라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 필요를 읽어내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개념, 아이디어, 행동 조직, 이게 방법으로 다 나와야 하죠. 그래서 보통 사회혁신을 디자인한다고 할 때 이론가들, 특히 혁신이론가들이 얘기하는 네 가지 P이론이 있습니다. 일단 사회혁신의 공간 **place**을 어디로 볼 것인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공간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공간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동선도 중요하고, 크기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공간 안에는 여러 가지 쓰임이 있는데, 요즘은 ‘장소성’이라는 말을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씁니다.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거냐. 장소가 갖고 있는 맥락, 장소가 갖고 있는 특징, 이런 맥락에서 플레이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음으로 ‘Purpose’는 목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삶의 목적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뒤서

행복에 대한 인덱스가 지난 10여 년간 매우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람들만의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둘러싼 환경, 생명권, 누군가의 행복이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행복으로서의 인권 문제, 평화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했습니다. ‘MDG’와 ‘SDG’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데, 유독 한국 사회에서만 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92년, 72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1992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민주화 가치가 중요했지 환경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왜 환경 문제가 중요하지?’ 하고 의아해하기도 했죠. 1992년 리우 회의가 있었어요.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 회의가 열렸는데, 굉장히 독특한 회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회의는 정상들이 세계질서를 어떻게 바꿀까, 또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잘살까를 얘기했는데, 이제 지구를 걱정하는 모임이 하나 생긴 겁니다. 리우 환경 회의 때 생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데, 안 끼워주니까 옆에서 따로 모임을 합니다. ‘세계시민사회포럼’이라는 게 그때 시작이 되거든요. 그걸 보통 병행하는 시민회의라고 해서 ‘패럴렐 미팅(parallel meeting)’이라고 합니다. 평행선을, 또 하나의 대등한 축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계시민사회포럼이 나중에 아시아시민사회포럼으로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의제 설정을 국가나 정부만 하지 않도록 견제합니다. 세계시민사회포럼이 만들어지면서 무엇이 생겼냐면 유엔에서 그것을 수용해 우리가 21세기 밀레니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해서 만들어진 게 ‘MDG’, 다시 말하면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새천년개발목표’라는 것을 정했어요. 15개 개발목표를 정했는데 주로 개발과 평등, 정의 같은 것이 강조됐습니다. 이게 15년 계획으로 설립이 되는데요, 2015년 이

걸 평가하면서 2015년 이후의 목표를 ‘MDG’에서 ‘SDG’로 바꿨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즉 ‘지속가능개발목표’로 바뀌었는데, 여기 중요하게 들어온 개념 중 하나가 인권, 정의, 평화, 생태 등입니다. 이 개념들이 17개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주도보다는 마을 주도로, 그런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Purpose’, 목표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유엔이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유엔이 힘이 없어서 이것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걸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Process’라고 하는 것은 과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회혁신을 디자인하고 실천할 것이냐 하는 프로세스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프로세스에 우리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싸우기도 하고, 이해가 다르기도 해서 합의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Project’는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중 하나는 기존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 창의력으로 새 사업을 구상해야 하는데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와 함께 조직력, 리더십, 시대적인 적합성을 얼마만큼 드러내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프로젝트를 할 때 아라비안나이트 얘기를 합니다. 삼형제가 있었는데, 각자 신기한 물건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든 볼 수 있는 천리안’, ‘날아다니는 양탄자’, ‘무엇이든 낮게 하는 사과’. 사회혁신 혹은 시민운동을 하려고 하면 저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 세 가지와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천리안. 과거를 돌이켜보



는 것은 반성하기 위해서인데 반성하라고 하면 잘못된 것만 찾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반성이라는 것은 일 전체를 돌아켜보는 겁니다. 영어의 반성, reflection은 비춰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비춰보는, 돌아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고 뭘 잘했는가도 보고 어떤 일이 있는가도 보고. 총체적으로 자기를 돌아켜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성하라고 하면 반성문 쓰는 연습에 익숙해 있어서 자백록이나 참회록 같은 것을 쓰는 그런 기분을 갖죠. 사실 반성이라는 것은 잘한 것 전체를 돌아켜보는 겁니다. 반성문의 문제점은 ‘점, 점, 점’으로만 얘기가 되지, 그것을 통사적으로 끌어내지 못해요. 자기 생의 이야기, life story를 흐름으로 이어내지 못해요. 성찰이나 통찰은 전체를 흐름으로 이해해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1952년, 72년, 92년, 2012년, 2022년을 얘기한 것도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어서 보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성찰을 했으면 성찰한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양탄자를 타고 가야 하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접목해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뛰어들었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느냐?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최근 헌신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지역자산화 운동도 하고, 지역 자산이 무엇인지 찾는 운동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사과’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나온 김에 ‘참여’하고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영어로 참여는 ‘participation’이고 헌신은 ‘commitment’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devotion’을 쓰기도 하는데. 참여와 헌신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정치사상을 공부하시던 예전 제 지도교수가 당신 선생에게 배운 얘기래요. 예를 들어 여기 식탁에 계란 프라이가 올라오면 여기 있는 닭이 우리 식탁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닭이 돼서 올라오면 그건 헌

신이라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참여연대에 헌신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조직에 매년 10만 원인가 회비를 내요. 저한테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다 쓰느냐, 자기 인생의 무엇을 어디에다 쓸 거냐 했을 때, 참여하는 것하고 헌신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헌신하지 않으면 월급은 정말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 주는 사람은 헌신하기를 바라죠.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월급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받고, 헌신은 다른 데 가서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헌신 없이는 변화를 일으키기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촛불 집회 같은 경우 여러분이 시간 여유가 있어서 가면 참여지만, 만약에 일부러 지방에서 자기 돈 들여서 올라왔다. 그건 헌신이죠. 무슨 애긴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그때 연구원이었는데, 제가 헌신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행기 표 사서 그거 참여하려고 두 번이나 왔으니까. 제 관심도 그랬고, 가서 이걸 못 느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월드컵 경기 볼 때도 어떤 사람은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그래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지난 시간에 60년대 안보투쟁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일본 국회의사당에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요즘에는 일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모였던 거죠. 1960년 6월 18일 안보투쟁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60년대 내내 투쟁을 했던 사건이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보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966년 10월에는 일본 사회당 당수인 아사누마가 연설을 하는데 열일곱 살짜리 우익 청년이 이 거구인 사람을 칼로 찌르죠. 아사누마는 병원에 실려 가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어요. 어쨌든 1960년에 시작해서 1969년 1월 도쿄대학 야스다강당이 불탈 때까지 딱 10년 동안



안보투쟁 당시 국회의사당 앞 시위 모습(좌)과 아사누마 피살 현장 사진(우)

운동이 있었는데 끝나버리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오늘이 6·10 항쟁 32주년이잖아요. 우리 운동을 성찰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상하게 일본과 한국이 다른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비슷해져 있어요. 오늘 핵심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와 유사한 과정을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통해 그 흐름을 짚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려드리고 우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진들을 기억하시나요? 1960년대의 자화상, 동경 올림픽 픽과 신칸센입니다. 1964년 당시 신칸센은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립니다. 서울과 부산과의 거리가 400km 되잖아요? 동경과 오사카는 600km 정도 되는데, 거의 3시간 내로 주파하니 놀라운 속도죠. 일본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그 이면에서는 미나마타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국가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이게 다 60년대에 압축적으로 일어났어요. KTX가 개통된 해가 2004년입니다. 40년 차이가 나요. 지금 삼성바이오 문제도 그랬고, 최근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분단체제였기 때문에 당시 민주화 운동이 일본처럼 생태운동이나 환경운동과 맞물려 일어나지 않고 일어났는데 일본은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964년 동경 올림픽 포스터와 신칸센

1960년대가 지나고 다나카 수상이 1970년대 수상이 됐어요.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과 60년대 안보투쟁이 다 끝나자 그는 오로지 앞으로 달려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 댐 건설, 도로 건설 등 인프라, 토목사업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편 1960년대에 국가에 대항해 싸웠던 많은 활동가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죠. 일명 ‘하방운동’을 합니다. 일본 지역운동이 많이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로 60년대 운동의 경험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뿌리내린 것을 꼽을 수 있죠. ‘도쿄(T.O.K.Y.O.) 작전’이라는 게 있는데 동경, 오사카, 교토, 요코하마, 오키나와 이렇게 다섯 개의 혁신자치체를 중앙정부가 무너뜨리고자 한 작전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우리도 혁신자치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몇 개 있었어요 서울, 성남이 그랬죠. 중앙정부하고 많이 갈등했지요. 우리가 일본과 굉장히 유사하게 되풀이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일본의 3대 도시라고 하면 동경, 요코하마, 오사카인데, 여기에 더해 문화적 상징 도시인 교토, 군사주의가 남아 있는 오키나와, 이 다섯 곳이 어쨌든 혁신자치체 운동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혁신자치체 운동이 예산을 과다하게 썼어요. 요즘 보면 현 정부나 서울시가 너무 유사하게 가서 조금 걱정이 돼요. 이웃 나라를 보면 아주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혁신자치체 운동이 크게 성공합니다.



요코하마 전경

요코하마 같은 경우 어떻게 성공하느냐, 아스카다라고 하는 시장이 1963년부터 1978년까지 16년간 계속 재선돼요. 그리고 인기가 워낙 좋아서 사실 1978년 이후에도 할 수 있었어요. 16년이면 박정희가 집권한 18년에 준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10년 이상 돼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요코하마 시장이 재임할 때 ‘미나토미라이’라는 도심 강화사업을 계획했는데, 이게 개장한 게 1998년, 99년이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완성돼요.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코하마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오늘 핵심은 일본의 흐름을 짚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와 유사한 과정을 겪었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지방자치제는 선수 제한이 없는데도 아스카다 시장이 왜 그만뒀냐면 민주당 쪽에서 이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보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서는 관두죠. 요코하마가 굉장히 앞서나갔던 게 뭐냐면 1978년이면 중국이 개혁개방운동을 한창 했던 무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코하마의 항구는 상당히 멋있는 얼굴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모든 도시가 도시의 얼굴을 어떻게 만들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만든 곳이 몇 군데 있죠. 싱가포르, 홍콩, 상해 같은. 거기에 지지 않게 만든 게 요코하마, 동경이고 최근에 인천 송도가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싱가포르나 홍콩, 상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서양에서는 그런

걸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좀 흉내 낸 게 런던 정도고요. 우리가 예전에 근대화된 도시 유럽을 보러 갔는데 요즘은 유럽에서 최첨단 미래 도시 아시아가 보고 싶어서 오는 데가 싱가포르, 홍콩, 동경, 상해 이런 지역입니다. 요코하마 같은 예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방자치는 발전보다 중앙정부와의 싸움이 더 치열했어요.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이 중앙에서 권력을 안 주려고 했어요. 그러다 일본 지방자치제가 변화하게 된 계기가 1995년의 고베 대지진입니다. 사실 일본도 얻어맞고 정신 차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얻어맞는 걸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좋는데 우리는 우리가 얻어맞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일본은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일본 정부는 재해, 방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강도 7 정도의 지진에도 끄떡 없다고 했는데, 고베에 지진이 일어나자 일본 중앙정부는 고베 시내에 진입할 수가 없었어요. 다 무너져버리니까. 그때 고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근처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베 시 바로 옆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요. 시민들은 정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방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이웃밖에 없으니 이웃 간의 안전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핵심이 됐고, 지방정부들도 파트너십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평적 연대를 말하는 NPO법이 98년 만들어집니다. 아까 신칸센과 KTX는 40년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이 법을 2000년에 제정했으니 2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그 뒤로 훨씬 더 빨리 분화되고 발전하게 되죠. 어쨌든 이때 가장 많이 논의된 바들이 요즘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들이예요, 아주 놀랍게도. 바로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새로운 공공성, 마을이 중요하다, 마을기업, 주민들 간의 안전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 일본 생활클럽 생협운동의 실현, 주민에 의한 정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생태문화 리더십'이고, 리더십, 생태, 문화 얘기를 사이사이에 할 거예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런 강의를 20년 전, 2001년쯤에 한살림에서 했습니다. 그 뒤로 이게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유효하고 요즘 우리의 화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얘기를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별세계' 얘기처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과 유사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리더십입니다. 일본의 생협운동은 처음부터 생협운동으로 출발하지는 않았어요. 시작은 1960년대 하방운동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습니다. 중앙만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럼 지방이 바뀔 수 있느냐. 새로운 정치의 핵심이 뭐냐. 정치를 주민이 하는 게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공공성', '마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돼야 하는데, 마을에 내려가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지역에서 청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1960년대 일본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0~30대 남자들이었어요. 지방에 가니까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지역의 주인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구나. 여자들이 정치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자들, 주부들이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생활클럽 생협운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정치를 생각하고, 생활클럽을 수단으로 삼은 거지요. 생협운동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첫 번째가 정치였고, 두 번째는 정치 리

더십을 키우는 것, 세 번째는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담론과 언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언제쯤 정치의식을 가질까를 고민했고, 주부들이 정치 얘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협운동으로만 시작한 줄 아는데,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치를 지향했던 거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한 20년 하면 주부들이 정치를 의식하지 않을까? 그럼 20년 해보자." 여러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기가 매우 중요해요. 20년을 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3년을 책정해놓으면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5년 아니면 4년으로 돼 있죠, 임기 때문에. 남북문제도 똑같아요. 임기 안에 하려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 참가하는 시민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담론을 만들어내는 주민의 힘

이 사람들은 20년 안에 리더십을 키운다는 목표를 정했어요. 현재 한국에서 위탁사업 하면 정부에 3년 계획으로 1년 단위 보고를 하게 돼 있죠. 그 안에 허겁지겁 1년이라는 단위가 뭐 하려면 끝나잖아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과거에 어디서 지원을 많이 받았냐면 캐나다하고 독일 쪽입니다. 독일은 5년 단위로 평가하고 10년 동안 지원해줍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제국주의의 본질은 질서를 만드는 헤게모니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요. 제국이란 그저 큰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나라거든요. 일본은 제국의 경험을 해봤고 중국도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어요. 경제질서는 기축통화, 환율, 무역협상 이런 걸로 만들

지요. 우린 그걸 해본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요. 심지어 의약품의 안전성 기준도 미국 FDA를 얘기하고 외국 것을 가져와서 얘기해요. 우리 안에서 기준을 만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제국이 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를 준다고 할 때, 지금 교육제도가 6·3·3이잖아요. 다 외국 것을 따온 거예요. 아이들의 신체발달 상황이나 현재 우리의 여러 구조를 보면 6·3·3이 과연 맞을까요? 외국에서는 오랜 경험치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준거라고 얘기하는데, 70년 정도 지났으면 우리가 우리 경험치를 가지고 충분히 규율을 만들 수 있거든요. 기간을 정할 때 평가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국의 시민들이 가진 또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시민들도 질서를 만들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규칙을 만들 줄 알아요. 7년쯤 전에 한반도 문제에 유엔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려고 뉴욕에서 한 달쯤 지내면서 매일 유엔에 갔어요. 그 유엔본부에 회의실이 여러 개 있는데 1년치, 2년치 예약을 미리 해두고 시민사회가 유엔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유엔은 정부들의 회의는 물론 시민들한테도 회의공간을 빌려줘요. 그럼 리우 회의처럼 거기서 회의를 하고 시민들의 어젠다를 제안서로 만들어 제출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끼어들면 정부들 사이에서 협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제국의 시민들은 끊임 없이 법 제정과 질서 만드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 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대체로 누구냐? 다 유럽 시민들이예요, 미국하고. 근데 미국 시민들도 잘 안 해. 유럽 시민들이 주로 와요. 정부 쪽은 미국이 다하고 시민사회에서는 유럽 시민들이 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 안 와요. 한국? 전혀 올 생각도 안 해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회의에 가보니까 유럽 시민들은 정말 사교성도 좋아요. 금방 명함 주

고받고 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요. 저도 몇 번 인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유럽에서 학교 교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걸 가르치는데, EU에서 이번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내가 아이들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싶은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이 사람들은 시민사회운동에서도 자기들이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질서를 만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만들지만 담론도 만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몇 가지 용어를 새로 만듭니다. 우리는 서양에서 만든 시민사회운동을 번역해서 쓰잖아요. 이 사람들은 용어를 만들어서 유럽하고 미국에 수출해요.

예를 들어서 ‘citizen’을 어떻게 정의할까. 이 사람들의 정의는 ‘I among Others’가 한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자들 속에 있느냐. 여러 사람 속에 있는 내가 시민이지, individual한 것은 시민이 될 수 없다고 해요. 이것은 서구의 시민사회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함께 있는지 항상 봐야 비로소 시민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부 같으면 내가 있는 지역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마을, 지역이 보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보인다는 이야기이고요. ‘참가형 시민사회론’ 개념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최근에는 참여연대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익숙해져 있지만, 참가형 시민사회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참가형 시민사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지역에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제가 혁신에서 ‘place’를 얘기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지역으로 잡은 거죠.

## 가나가와네트워크, 일상에서 시작되는 지역정치

주부들이 정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계기와 과정을 생활 속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합성세제가 사람들에게 문제를 매우 많이 일으킨다는 걸 주부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합성세제를 추방하자는 운동을 시작해서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22만 명의 서명을 받아요. 매우 폐쇄적인 일본 사회에서 22만 명의 서명을 받으려면 주부들이 대문을 두드리고 발로 뛰면서 엄청나게 서명을 받으러 다닌 거죠. 이것을 일곱 개 자치단체에 제출했는데 어떤 의회에서도 시민 입법 청원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부들이 화가 난 거예요. 보니까 1980년 일본 가나가와 현에 있던 의회 전체에 여자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만드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자기들이 의회에 진출해야겠다 하고 운동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이 생활클럽에서 정치운동으로 바뀌게 된 첫 번째 계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인을 정치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너를 뽑았고 네가 우리를 대신하니까, 가서 우리 의견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너를 뽑았으니까 네가 가서 우리를 대표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리인'으로 데라다<sup>6)</sup>라는 사람이 당선됐어요. 이 여성 의원의 당선 기사가 지방신문에 났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재미있는 것은 헤드라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성도 생각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제안." 그 전에 여성은 제안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성이 정말 생각을 안 했겠

6) 寺田悦子, 데라다 에스코. 1983年の第10回統一地方選挙で、川崎市議会議員選挙に、川崎市宮前区から寺田悦子が立候補し、初当選。

어요? 신문이 이렇게 제목을 뽑았다는 것은 일본의 여성들에 대한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가 1983년이고 이 사람 나이가 40대 중반쯤 됐던 것 같은데, 재선을 하지 않고 지역으로 들어가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마을기업을 하고 있어요.

1983년에는 데라다 1명이 됐는데, 4년 뒤 87년 15명, 91년 27명, 95년 41명, 99년 49명, 2003년 39명, 그 다음에는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은 가나가와네트워크가 거의 힘을 잃었는데, 1999년부터 2003년에는 일본에서 새로운 지역정당으로 바람을 일으켰어요. 이 생활클럽 생활운동은 일본 전역에 20만 명 정도의 회원조직을 갖고, 이 운동을 바탕으로 지역정치를 하는 지역이 한 일곱 군데 있었어요. 그중에서 가장 잘 되는 데가 가나가와하

고 동경이었습니다. 동경은 심지어 1999년 후보를 65명 냈는데 65명이 다 당선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정말 당선될 사람만 후보로 낸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거기에도 여성 비하적인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 몰래 선거운동을 했는데 했다가 떨어지면 집안 망신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을 온 지역이 힘을 모아서 당선시키는 식입니다. 가나가와는 반은 당선되고, 반은 떨어져요. 그 대신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죠. 동경은 23구인데 구 단위가 다 독립채산제예요. 그래서 큰일을 못 해요. 왜냐하면 구에서 돈이 나와봐야 그렇



데라다 의원 당선 기사

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나가와는 전부 현 단위로 해요. 예를 들어 45명이 지역에서, 여기 보면 현의원은 한 서너 명밖에 없고 나머지 40명 정도가 다 기초예요. 여기는 월급을 어떻게 받느냐면 시의 재정자립도하고 예산 규모에 따라서 월급이 지역마다 달라요. 제가 조사했을 때 제일 적게 받는 지역이 1년에 3,5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요코하마 시의원 같은 경우는 연봉이 1억이 넘었고 가나가와 현의원은 1억 8천쯤, 문재인 대통령 공식 월급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가나가와네트워크의 특징이 뭐냐면 출마하고 싶은 사람보다는 출마했으면 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4년 주기인데, 이들은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해요. 처음 2년은 누가 나가면 좋을지 조사하고 설득해요. 조사를 아주 암행어사처럼 하죠. 어떨 때는 기분 나쁠 정도인데, 소문을 다 수집하고, 리더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완성된 인물을 찾는 건 아니고 자질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설득해요.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되면 선거 운동에 쓰이는 돈을 조직에서 다 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시의원에 당선되면 본인이 활동비로 20만 엔, 대략 1년에 2,400만 원만 받고 나머지를 전부 기부해요. 그래서 이 가나가와네트워크와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2002년까지만 해도 우리 돈으로 50억이나 댔어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갖춰지니 뭐든지 자신 있게 실험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동아일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이 재벌하고 똑같이, 재벌 부럽지 않게 살려면 돈이 재벌만큼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큰돈이긴 하지만, 현찰로 50억 정도만 은행에다 넣어두고 있으면, 재벌하고 똑같이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찰 50억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의외로 많아요. 재벌은 보통 조 단위로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 갖고 있어봤자 다 못 쓴다는 거예요. 50억 갖고 있으면 전세 비행기나 요트 같은 건 못 사지만 그게 있는 친구를 두면 되죠. 왜냐

면 그거 관리비가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별장하고 그런 건 그거 가진 친구 있으면 되고, 그 대신 그 친구하고 밥 먹을 때 기죽지 않고 똑같이 밥 사먹을 수 있고, 뭐 어디 크루즈 여행도 할 수 있고 하면 되는 거예요, 50억 정도 있으면. 가나가와네트워크도 웬만한 정당 부럽지 않게 한 50억 정도 있으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시민이 만드는 정치학교

또 하나, 이들은 1995년부터 정치학교를 시작했어요. 저도 몇 개 다녔는데, 이곳의 룰이 정말 재밌는 게,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시민들이 정해요. 배우고 싶은 커리큘럼을 10주 분량으로 짜서 예를 들어 10주를 다 등록하면 10만 원, 한 강좌만 하면 만 원, 실습을 가게 되면 실습비는 별도. '가나가와NPO대학'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정치학교인데, 과목을 보면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키나와에서 바라본 국제정치', '정치란 무엇인가', '지방정치의 방식과 시민' 같은 여러 주제를 다루는데 딱딱하지 않고, 시민이 많이 모이지 않더라도 강의를 해요. 폐강 기준을 최소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가와네트워크가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폐강하지 않고 하다 보니 지속성과 보편성을 갖게 되는 거죠.

당시 마쓰시타 게이치라는 일본 사회 시민정치의 대부로 불리는 학자가 'Civil Optimum'이라는 개념을 써요. 시민사회에 최적화optimize된 것. 우리는 정부가 많을수록,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많고 빠르게 아니라 그 지역에 최적화된, 시민한테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쓰자는 거죠. 강의가 끝나고 가나가와네트워크 대표와 사무국장, 마쓰시

타 본인, 게이오대학 박사과정에 있던 제 후배와 제가 함께 뒤풀이에 가서 인상 깊은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생협운동을 만든 이들이 ‘여성들의 리더십’을 키우려고 했잖아요? 마쓰시타가 “이제는 너희들이 ‘남자’ 리더십을 키워야 할 때가 왔다”고 했어요.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대학교수들이 어젠다를 모른다는 거죠. 그대로 인용하자면 “저 쪼다 같은 교수들을 너희들이 의식화시키고, 책상에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저 쌤들한테 어젠다를 갖다 주고, 이 대학에 와서 강의하며 질문을 받게 해야 그들도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과 대학이 연결된다, 그렇게 아카데미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고. 그래서 온 교수가 몇 있어요. 그 사람들이 ‘쪼다’ 같은 사람들은 전혀 아니고, 예를 든다면 류코쿠대학의 히사바 교수가 와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는 방법을 알고, 시민들은 과제를 아니까 둘을 접합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게 ‘새로운 공공성’과 ‘새로운 공공권’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퍼블릭한 노동이고 퍼블릭한 스페이스냐. 그중에 하나 이들이 주목했던 게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노동임에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돈도 지불되지 않는 노동 **unpaid work**, 여자들의 가사노동이었죠.

### 현장과 대학의 연결, 그림자 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당시 90년대 일본 사회에서는 치매 노인 돌봄이 핫이슈였고, 치매 노인을 돌보는 서비스를 새로운 공공 노동으로 보고자 했죠. 여성들의 노동이 어떻게 화폐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지 등을 측정해서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고, 그것이 사회적인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조사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가나가와네트워크 회원 5천 명 중 반 정도를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unpaid work’ 시간을 측정했어요. 남

자들은 0.6시간, 36분을 대부분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데 썼다고 한 데 비해 여성은 하루에 7.2시간을 가사, 육아, 장보기, 간단한 사회적 활동, 부모님 돌보기 등을 한다는 거예요. 단 이는 평일에 한해서고, 주말이 됐을 때 시간은 따로 측정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주말에는 남자들이 3.6시간 unpaid work를 한다, 그럼 여자들은 3.6시간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늘어나 7.6시간이 되는 것을 알게 됐죠. 남성도 집안일을 하지만, 집에 있는 남편 때문에 여성이 노동을 더 한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렇게 조사를 토대로 조례를 작성하는 등 행동과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증식하는 시민자본 섹터

이들이 했던 또 하나의 작업이 ‘시민자본 섹터’ 넓히기입니다. 처음 생협운동은 먹거리, 직거래, 유기농, 공동구입 등으로 민주주의적인 지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운동의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이게 좀 잘 안 되는 게 ‘노동시장 유연성’이 생겨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일본도 유목민처럼 점점 이동하는 사회가 되니까 한 지역에 여성들이 오래 있지 못해 주부운동이 잘 이뤄지지 않아요. 빠른 도시화로 인한 또 하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가와 같은 의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 3백 명이 조금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들은 시의회나 구의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구에 어떻게 돈이 돌아가는지, 무엇이 자산으로 있는지를 잘 아니까 나와서 대부분 마을기업을 하며 새로운 공공성을 정의하고 확대해가는 방식으로 ‘시민자본’의 영역을 넓혀가고자 했습니다.

무엇이 시민자본이냐? ‘위숍 **We Shop**’의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 생활클



럽 생협에서 운영하는 중고가게입니다. 원칙은 쓰지 않는 물건을 무상으로 내놓고 생협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물건을 싸게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이 위숍의 경우 수익금 전액을 일본이 제국주의 하면서 침략했던 국가의 빈민 여성들을 돕는 데에 썼어요. 아시아 여성들에게 주는데, 한 개인이 아니라 주로 마을에 줘요. 그럼 그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보육원이나 학교를 짓는데 썼어요. 2000년 전후반 베트남에서 2천만 원이면 학교를 지을 수 있었어요.

재밌는 것이 ODA [Official Development Aid](#)라고 이른바 OECD 국가들, 잘 사는 국가들의 공식 지원금이 있어요. ODA 얘기를 왜 했느냐면 베트남에 학교를 지어줄 때 ODA로 지으면 1억이 든대요. 일본 정부가 베트남 현지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ODA를 쓸 때 가능하면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일본 물건을 사다가 쓰려니 원자재 값이 비싸고, 그걸 갖고 가야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베트남이 고마워하기보다 저 전범국가, 돈 많은 나라가 대단하게 지어줬네. 그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천만 원을 갖고 가면 이걸 어떻게 모았는지 감탄하고 감동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돈을 주고 투명하게 하니까 신뢰도를 높이면서 공적으로 기금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고마우니까 학교를 짓고 나면 일본어 학습과정을 그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위숍에다가는 여러분이 지원해준 기금으로 여기에 이렇게 지었다며 사진도 붙여놓고. 우리가 지원한 곳이 어떻게 사는지 가보려고 해서 스터디투어를 갔다가 거기서 감동받고 온 사람이 또 다른 지원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대해간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민 섹터를 만드는 과정이 이처럼 처음에는 협동조합이다가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다음으로 ‘더블유시WC’, Workers Collective라는 사회적기업이자 마을기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부들이 세 명, 다섯 명 모여서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재미있는 것은 기업이다 보니 회계 처리를 해야 해서 회계를 가르쳐주는 사회적기업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주부들이 회계를 배우고, 배워서 가르쳐주고, 가르치다 보니 노하우가 늘어서 전국을 다 돌고, 지역에서는 지역대로 또 그런 순환을 만들고. 중요한 것은 브랜치를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회적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예를 들어 요코하마에서 빵 가게를 만드는데, 가게가 잘되면 규모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규모를 늘리는 대신 나누어서 가게를 따로 더 만들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조직이 20명 이상 되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규모는 항상 20명 이내로, 구조 자체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 거죠.

그러다 2005년 사고가 하나 터집니다. 가나가와네트워크의 원칙이 세 가지 있는데,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 ‘주변에서’ 출마했으면 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 기초에서 임기에 제한이 없음에도 기회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돌려 다양한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 재선까지만 허용한다는 것, 그리고 급여 중 일정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다 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임기 2년, 두 번 갖고는 뭐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소질이 있어, 더 하고 싶어. 어떡할까요? 가나가와네트워크를 탈퇴해야죠. 그래서 탈퇴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코하마 정당이라고 정당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한 10년 하다가 망해서 지금은 없어졌어요.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일종의 작은 사고죠. 시민사회 역사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고요.

끝으로 하나 더 ‘더블유시WCC’, Women Citizens Credit라는 여성 시민신용조합 같은 것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금융 쪽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했어요. 그래서 결국 신용조합 형태로 하는데, 그걸 뛰어넘어 시민들이 좀더 많은 물적 토대를 만드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해놨습니다.

## 새로운 담론과 정책 생산을 통한 이니셔티브 주도

이 얘기의 핵심은 결국 문제는 정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의원을 선출해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새로운 담론, 정책을 만들고 실험해 관과 기존 정치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 이니셔티브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가나가와네트워크가 5천 명까지 늘었는데 그 후 20년 동안 5천 명에서 더 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뀌지만, 늘지는 않자 사이즈의 한계가 아닌가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일본의 고민인데, 우리는 또 다른 자산과 자원들이 여럿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TV 드라마 (스카이캐슬)처럼 학교를 둘러싼 관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학교 중심으로 펼칠 수 있는 바들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대안학교가 있긴 한데 폐쇄적인 것 같고, 지역학교는 주로 재해 단위로 많이들 구성돼 있어서 정치 쪽으로는 조직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비교적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누구나 정치평론가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지역자산, 새로운 공공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와 일본의 경험이 최근 우리 안에서 압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지역시민사회 리더십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를 고민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제가 플레이스 얘기를 했는데 이 플레이스 중 중요한 것 하나가 ‘문화’ 같아요. 세계의 마을에 가보면 마을에서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 예술가들이 마을의 시대 문제를 매우 빨리 포착해서 보여

줍니다. 그것이 굉장히 전달 효과가 커요. 그건 꼭 미술 하는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축가도 그렇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구조에서, 사람들이 마을에서 공감대를 구성할 수 있는 문화적 양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 정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은 주로 도시재생과 관광 쪽으로 문화를 많이 대입하는데, 이를 정치 쪽과 연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올해는 프라하의 봄 50주년, 벨벳혁명 30주년이에요. 벨벳혁명과 그 후의 움직임들을 보면 다 문화로 합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가수, 벽화 같은 것들이 정치적인 구심점을 형성하는데, 우리 80년대 운동과 6·10 항쟁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그런 노래, 문화가 사람들에게 큰 공감대를 형성하며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주기도 했고, 분노하게 했고, 슬픔을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도 그런 문화적인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 부러웠던 것은 페루 리마에 가서 방을 하나 빌렸는데, 그 집에 온 좋게 빈 방이 생겨서 들어간 저 빼고 그 집을 통째로 젊은 예술가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워크숍도 하고 밥도 같이 먹는데 보니까 국적이 다 달라요. 남미는 브라질 빼고 전부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심지어 포르투갈어는 스페인어의 사투리예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80~90%는 대화가 돼요. 그래서 남미는 젊은 예술가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1년에 한 번, 예술가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자기 지역에서 어떤 예술활동을 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발제한다요. 저는 못 알아듣으니까 옆에서 보고만 있는데 그림이 굉장히 멋져요. 사진도 있었는데, 주로 마을에 대한 거예요. 예술이 어떤 식으로 마을을 바꾸는가. 꼭 예술적인 것이 아니라 동선 하나만 바뀌어도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집 안은 다 엉망이지만 길가에는 화초

랑 꽃을 심어 녹색지대를 지나는 느낌을 줘요. 집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비좁죠. 바르셀로나 같은 곳은 베란다가 다 예뻐요. 어쨌든 예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지내느냐 하는 문제들을 더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국이 놀랍게도 플라스틱 소비량 전 세계 1위예요.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해도 우리가 1, 2, 3위 안에는 다 들어요. 그런데 왜 1위일까 생각을 해보면 배달문화 등이 연결돼 있죠.

생태, 문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누면 좋겠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질문이나 의견을 같이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 [질의응답]

Q. 동경 같은 경우에 출마한 전원이 당선된 줄은 몰랐거든요. (한 번 그렸고, 그후에도 당선율이 한 90% 됩니다.) 기존 정당들과 선거 연대나 정책 연대가 있었나요?

A. 일본에 여러 지역정당들이 있는데, 가나가와네트워크처럼 생협에 바탕을 둔 정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어요. 생협운동을 제외한 다른 조직들은 지역에서도 하고 중앙에도 보내는데, 생협운동은 그러지 않아서 내부 논쟁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생활클럽 생협의 지역정당은 중앙정치를 정책 연대를 통해 해결해요. 생활클럽 생협이 내건 정책에 일치하는 정당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지지해요. 당 차원에서 우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너희를 지지한다. 그런데 대부분 민주당, 사민당 정도예요. 왜냐하면 공산당은 지지하는 순간 오해를 받아요. 거기도 ‘빨갱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공산당이 전체 지지율의 10% 정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민당, 공산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에서 선택적으로 지지를 하죠.

Q. 일본의 종교단체가 세운 공명당 같은 정당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A.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일단 종교하고 정당이 분리돼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해요. 한편 종교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너그러워요. 정말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 때 여러 사머니즘 혹은 토테미즘에 해당하는 종교들을 전부 국가 ‘신도’로 묶어서

일본식 종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원체제라 기독교를 믿어도 신사에 가죠. 신도를 일본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 즉 죽은 자에 대한 예의 정도로 생각하니까요. 일본은 처음에 국가를 만들 때, 유일하게 학습을 해서 국가를 만들어요. 1871년 이와쿠라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당시 일본의 국장급 이상, 장관, 차관, 국장의 반을 이끌고, 1년 10개월 동안 세계 유랑을 해요. 국가를 어떻게 만드느지를 배운 거죠. 그 사람들이 72년 돌아와서 몇 트럭 분량의 보고서를 써요. 거기에서 메이지 국가의 설계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유럽의 잘사는 나라들, 이른바 근대화된 국가를 조사해서 보니까 전부 종교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중심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대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시민성, 정신, 윤리, 공동체 구성원리가 신성을 모아 주고 있고 거기에 국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종교가 뭐냐? 다 찢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때 국가 신도라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신이, '가미사마'가 되는 거죠. 가미카제가 그런 거잖아요.

1950, 60년대에 가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명당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흥 종교예요. 독일이나 우리는 일본처럼 신흥 종교를 만들 필요가 없죠. 기존의 종교가 탄압받았고, 그 조직이 있었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리처럼 신학자, 선교사들이 와서 만들었던 게 아니라 신도가 전범을 옹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흥 종교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종교들이 일본 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조직으로 기능했어요. 그래서 종교집단들이 대학도 만들죠. 처음부터 종합대학을 만들어요. 창가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당까지 만들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Q. 제가 마을에서 독서회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시야가 넓어지지 않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책 읽기가 내 아이들의 교육에서 시작해서 나의 치유까지 오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사회 문제를 얘기하면 일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는 게 있습니다.

A. 생협운동도 지역에서 주부들을 만나기 위해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도 보니까 예전에는 TV에서 공부보다 연예 프로그램이 인기였는데 요즘은 연예인들이 인문학을 함께 배운다든지, 유튜브에서도 '알쓸신잡' 등이 트렌드예요. 살날은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나는 뭘 해야 될까 하는 막연함과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져서 공부 욕구가 매우 큰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것을 단지 새로운 지식을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활과 자기 공동체가 바뀌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작업들이 아직 모자라다는 거죠. 예컨대 여행을 가면 현지에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여행 간 사람들끼리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런 한시적 공동체가 이후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공부하는 모임보다 결속력이 더 강해요. 그 뒤에 변화하는 임팩트도 훨씬 크고요. 예컨대 다른 자원봉사를 간다든지, 어학연수를 가서 아예 눌러앉아 몇 년을 지낸다든지. 전에는 꿈도 안 꿨던 것을 하는 이들이 꽤 많이 나오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요.

야카 미나마타 지역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60~70년대까지 공포의 도시이던 곳이 90년대 후반 들어 오명을 벗고 변화합니다. 일단 희생자에 대해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재판과정이 있었고, 다음으로 그 지역의 리더 중심으로 새로운 미나마타를 건설하자는 움직임이 일어 이 도

시가 연속 세 번인가 친환경 도시로 상을 받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그 핵심을 '풍토학'이라고 얘기해요. 바람과 흙. 미나마타가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니 외부에서 답사들을 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왔대요. 돌이 없는 사막 지역에서 온 그들이 보기에 미나마타 지역에 흔한 돌들이 귀한 자원 같았고, 그렇게 미나마타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자원을 새로 본 거죠. 새로운 바람이 들어와야 못 보던 것이 보인다는 의미에서 '풍', 그 다음 '토'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봐야지 없는 것을 가져오려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미나마타의 정체성을 찾는 운동을 하게 되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사업 기간 3년, 주부들이 스스로 정치를 얘기하는 데 20년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미나마타는 지역이 넓어서 임업, 농업, 어업도 하고 공업지대도 있어요. 그런데 공업이 문제를 일으켜서 피해를 어업이 보는데, 이 문제를 임업 하는 사람들이 해결해요. 어업 하는 사람은 물고기를 하루 잡아서 하루 먹고 사는, 생활 단위가 하루인 거예요. 농업 하는 사람은 1년 단위, 그런데 임업 하는 사람들은 녹지가 조성되어야 하니까 한 20년에서 30년 단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도시 계획을 보니까 임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도시를 어떻게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20년 단위로 사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나마타 지역에 폐수를 없었는데 그걸 한 사람이 임업을 하던 미나마타 시장이에요. 일본에서는 지역에 근본을 둔 학문을 지모토학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새롭게 주민자치, 지역자산화 전략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 학문이 지금은 거의 완성이 돼서 책이 여러 권 나왔어요. 주로 사례 중심으로 나왔는데 미나마타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요즘 미나마타 가보시면 평균 수명이 아니라 평균 연령이 80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답니다.

# 6강

## 토론

- 마을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체제와  
대안으로서의 지역운동

오늘 토론해보면 좋을 주제 서너 가지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그 전에 6월이 독특한 달이 되어서 그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월은 6일 현충일하고 6·25 한국전쟁이 이어서 있어서 순국선열, 호국보훈, 이렇게 국가가 중심인 달이 됐어요. 재밌는 것은 6·25도 있지만,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죠. 6·15는 최초로 남북이, 6·12는 최초로 북미가 모여서 정상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6월은 평화가 공존하는 달이기도 한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6월 4일, 천안문 사건이죠. 한편 6월 20일에는 북미도 만났지만, 북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시계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맥락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지금 매우 중첩돼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먼저 한반도 문제가 있고, 이 한반도 문제는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이렇게 동북아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미국, 유럽연합, 아세안 국가들과 아프리카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한반도 문제, 동북아 문제, 아시아 문제, 글로벌 차원의 문제가 다 중첩되어 일어나고 있어요. 한반도 내 남쪽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남 갈등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다룬 것이 마을에 관한 얘기입니다.

## 한반도의 미래, 어떤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인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역사를 보면 1945년부터 완전히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까

지는 ‘단기<sup>權紀</sup>’를 썼어요. 옛날 달력 보시면 단기가 더 크게 표기가 돼 있었고요, 제 기억에도 1975년이 ‘4308년’이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를 말하기 위해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세계화가 발전하면서 우리의 시계는 서양의 시계로 갔죠. 서양과 공존해야 하고, 무역과 노동의 질서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비교하면 일본은 지금 ‘레이와 시대’라고, 계속해서 쇼와 시대, 헤이세이 시대, 레이와 시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역사의 시간축을 보면 역시 천황이 마음속에 계속 내재해 있는 거죠. ‘서기<sup>西紀</sup>’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혹은 서양의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런 시간축이 우리에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1945년 이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945년을 ‘영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의 역사는 1945년에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해서 『영년』이라는 책도 있어요.

최근 환경론자들은 ‘AP<sup>After Plastic</sup>’와 ‘BP<sup>Before Plastic</sup>’로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그 얘기가 꽤 설득력 있는 것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순인데, 정말 물질적으로 바뀐 것은 철기 이후에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체계만 보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철기까지는 재생산이 되는 재료였지만 플라스틱은 재생산이 되지 않는 재료라 플라스틱이 나온 이후의 세상은 모든 게 다 바뀌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어떤 시간축에서 살고 있느냐, 어떤 역사를 살고 있느냐를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까지 오는 ‘인간이 어떤 것들을 삶에서 가장 긴요한 도구로 쓰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체계라고 한다면, 단기와 서기는 ‘어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한 ‘자신들의 전설,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쓰는 나라는 의외로 많지 않은데, 동북아 국가에 몇몇 있죠. 바로 우리 이웃나라입니다. 일본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죠.

북한은 올해가 주체 108년입니다. 김일성이 탄생한 1912년부터 따져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은 완전히 왕정 같죠. 그런데 임금이 바뀌었는데 ‘주체’는 계속 똑같이 쓴다는 사실, 그리고 김일성이 ‘주석’인데 지금은 주석이 없잖아요? 감히 그 호칭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썼던 호칭이 ‘국방위원장’이에요. 지금 김정온도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김일성이라는 시조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역사의 축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역사는? 우리도 사실 그 논쟁이 있었죠.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을 이명박 때 만들고 박근혜 때 했던 것은 ‘1948년 이후’를 대한민국 역사로 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논쟁들이 최근에 많이 불거졌을까 하는 문제제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그리고 또 하나 논쟁된 것이 있어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삐걱거리릴 때, 김정은이 ‘북한은 우리의 시간, 주체사상의 시간에 맞게 시간을 30분 당기겠다’며 표준시를 바꿨어요. 서울의 시는 도쿄와 같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쿄와 서울은 동서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선 5시가 돼도 안 어두운데, 일본에 가서 5시를 맞이하면 굉장히 어둑어둑합니다. 어떤 나라는 한 나라 안에서 시차가 15분 단위로 차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30분 단위로 차이 나는 나라도 의외로 많이 있고요. 그런데 중국은 나라가 커도 시차가 없어요. 똑같이 씩니다. 북경에서 아침 8시면 저쪽 우루무치에서도 8시인데, 우루무치는 아직 해가 안 떠서 어둑어둑한 아침 8시고, 여기는 해가 밝은 8시죠. 중국은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시간을 통일해

서 쓰겠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승만 때 시간을 다시 고종 때로 돌렸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표준시를 그대로 쓰다가 이승만이, 이승만의 입장은 김일성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김일성과 상당히 유사한 정책을 편 사람이 이승만과 박정희예요. ‘주체’, ‘자주’ 등을 굉장히 강조했죠. 북한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시간을 다시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안 맞춘 거예요. 30분을 빼격거리게 한 겁니다. 그랬다가 박정희 때 경제개발 하면서 다시 시간축을 동경하고 똑같이 맞춰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다 김정은이 시간축을 조금 바꾸겠다고 했어요. 북한은 남한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거죠. 그러다 이 시간축이 다시 맞춰진 것이 2018년 판문점 선언 무렵입니다. 판문점 선언 끝나고 남과 북이 앞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간축을 맞춘 거죠. 시간의 축 그리고 역사의 축을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우리는 어떤 시간축, 어떤 시간대에 사는 것이 좋은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같은 서울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강남과 강북의 시간이 매우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도봉구와 국제회의를 하는데, 재밌는 점이 서울에서 그렇게 많은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도봉구에서는 국제회의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했다는 겁니다. 종로, 중구, 강남, 서초, 이런 곳은 빈번히 국제회의를 하는데, 도봉구가 주체하는 국제회의는 처음이래.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국제적이고 다양한 경험들에 있어 시차가 매우 크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축에 사는지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스페인보다 더 잘살아요. 그런데 이번 도시혁신 심포지엄에 참석한 빌바오 메트로폴리30 알폰소 소장은, 와서 보니까 한국의 도시재생이 스페인보다 40년가량 뒤쳐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제나 기술개발 등은 훨씬 빠르게 발전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애

기를 후반부에 말씀드리려 합니다.

## 촛불 집회와 정치 공간의 의미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려는 것은, 그런 시간축이 다르다는 것과 ‘마을의 시간표’를 다시 짜보자는 게 핵심이에요. 마을의 시간축. 낮에 수원역 지하백화점을 보니까 꼭 20년 전 일본 백화점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일본의 20년 전하고 우리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 일본을 쫓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20년 전에 일본에 있을 때는 한국과 일본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5년 동안 일본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삶의 방식, 학교 건물까지 일본하고 굉장히 유사해서 이따 마을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을정치와 마을 시간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뒷부분에서 여러분과 얘기하려 하는데, 요지는 우리 국내정치 문제를 글로벌까지 끌고 갔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촛불 집회가 만든 정치 공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부는 정말 촛불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가에 관한 얘깁니다. 도시혁신 심포지엄에서 알폰소 소장이 한 얘기의 핵심도 정치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촛불 집회가 이뤄지고, 87년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광주 집회가 있었고, YH 사건, 4·19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운동들이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매우 역동적인 사회이고 시민사회가 살아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집어서 보면 정치가 굉장히 낙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그렇게 시민운동이 벌어져 펼쳐진 정치 공간은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진정 실현해내는가, 혹여 그 공간이 비용 면에서 시민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촛불 집회가 만든 정치적 공간의 의미를 살필 때 하나의 큰 특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기대와 불신을 항상 가진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기대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정치가 다 잘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며 열심히 선거를 해요. 투표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렇게 선출한 다음 기대에 못 미치면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죠. 우리처럼 정치에 대해 많은 기대와 실망과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는 나라가 과연 또 있을까요?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의 정치 구조로 이 문제를 과연 풀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죠. 아까 제가 시간축 얘기를 많이 했어요. 1945년을 영년으로 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위를 해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45년이라는 시대는 ‘국가의 시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국가’가 주인공이 되도록 만든 정치가 시작되었고, 국가가 없으면 힘이 없어 식민지가 될 수 있고 모두가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절대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위치를 1945년 이후에 가졌고, 따라서 우리는 국가권력에 상당히 많은 것을 기대해왔죠. 특히 약소국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가의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국가를 부정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다시 말해 국가를 배제하거나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우리가 진정 어떤 나라를 꿈꿨는가 하는 문제를 되짚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에 ‘이게 나라냐’ 했는데 지금 ‘그럼 이걸 나라냐’라고 맞서고 있어요. 돌아보면 우리는 1945년 이후 이런저런 것들을 꿈꿀 시간이 없었어요.

도시재생을 마을 단위에서 마을 문제를 바라보는 것으로 한정짓거나 아니면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볼 때 도시재생은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유



럽에 가서 보면 바로 그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실행한 도시재생을 환경, 미관, 인프라, 민관 협력적 제도 측면에서만 관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원래 그들이 꿈꿨던 비전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자꾸 나라를 가지고 싸움을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라의 근본 틀 자체를 바꾸는 방식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 북미 북일 미중 갈등 속 한국 정부의 외교 대안

제가 철도나 도로 연결 같은 것 없이 남북 관계를 새로 만들어보려고 했잖아요. 6월 6일 현충일과 6·25, 6·15와 6·12. 흔히 앞서 두 날은 전쟁, 뒤의 두 날은 평화를 모색한 날이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주 정반대 같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모두 국가가 주인공이에요. 남북 문제, 북미 관계, 북중 관계 모두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국가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되죠. 저는 국가 중심적 사고에 기초해서 남북 관계나 동북아 질서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새로 만든다면 우리는 계속 쳇바퀴를 돌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국가는 자본에 대한 친화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현 정부가 자본에 대해 얼마나 엄격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엄격할 수 없다고 봐요. 일본 사례를 보면 세수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1945년 이후에 만들어진 국가 중심의 사고 틀로 국가가 매우 약화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챔피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몇 가지 조건들의 효과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는 북핵위기 같은 안보 논리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국가가 최고 주체가 돼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정부와 전 정부가 구조가 똑같은 것이 뭐냐 하면 다 청와대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이승만하고 박정희는 철저히 가부장적이라 애국심과 충성심을 강조했고 거의 임금처럼 지냈어요. 그 구조는 오히려 김일성 쪽, 북한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때로 넘어오게 되면 전두환하고 노태우는 임금이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누가 그 사람들을 존경하겠어요. 자기들도 그걸 기대 안 했어요. 대신 그때는 정부의 정당성을 떠나 관료의 힘이 막강했고, 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쓰는 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엘리트들이 끌고 가는 체제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엘리트들이 끌고 가는 체제가 아니라 정치가 끌고 가는 체제예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박근혜 때는 박근혜가 끌고 간 거 같지는 않아요. 최 뭐가 끌고 갔다고 얘기는 하는데, 박근혜 때는 좀더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끌고 가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끌고 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굉장히 불안한 거였죠. 이명박, 박근혜는 제쳐두고 생각해보면 전두환하고 노태우 때 굉장히 중요한 틀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전두환이나 노태우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정말 비판해야 하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놓은 여러 정책들을 보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장기 집권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로니컬하게도 정책의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88올림픽을 서울에서 하잖아요? 그걸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운 건 78년 박정희 때입니다. 유치를 따온 것은 전두환 때, 올림픽을 실제 치른 것은 노태우 때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정권이 바뀐 것 같지만 다 한 통속이잖아요. 그러니 정치를 긴 호흡 속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김영삼부터 지금까지 보면 정치가 다 5년으로 끊어지니까 민주화가 된 것 같은데 긴 호흡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지금도 여전히 국가가 중심이라면 국가의 자원 동원 능력이나 호흡의 길이, 공간 등이 장기적이고 폭이 넓어야 하는데, 그것이 마치 마을정치를 하듯이 이뤄지고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

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도 국가가 중심이면 아주 위험한 발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새로운 한반도, 새로 만들어진 국가를 위해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하면 결국 또 다른 권력 중심, 재벌 중심으로 남북 관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70년이라는 분단의 고통만 분담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마을과 마을이 협력하는 기본 단위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가는 일단 뒤로 조금 물러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 촛불 집회와 적폐 청산의 문제

또 하나, 우리가 촛불 집회에서 가장 크게 외친 ‘적폐 청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요새 야당의 요직을 맡고 있는, 지난 정부의 계승자 둘을 보면 참 미워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인데 한국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예컨대 과거 박정희처럼 산전수전 겪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우리하고 같이 호흡했던 세대에서 만들어진 최고 엘리트가 어떻게 자기 모습을 규정짓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잘라낼 수 있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만든 자화상인데. 지금 문제인 정부가 얘기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국가 정책의 아주 중요한 모토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혀 포용국가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현 정부가 얘기하는 포용은 약자들을 포용하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시혜적으로 주는 복지를 확대해서 불러들인 사람들이 자생 능력을 갖고 자생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혁신적이냐는 거죠. 그리고 태극기부대 등을 계속해서 강한 도덕적 우월성, 정당성을 가지고 잘라내는 방식으

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저는 비판적이에요. 이따가 토론하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 전 지구적 차원에서 위기의 시대

다음으로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전 지구가 위기입니다. 1945년 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실험들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국가가 자기혁신을 하지 못하는 데서 만들어진 정치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중동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고, EU도 새로운 지역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브렉시트뿐만 아니라 새로운 난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 전체를 포괄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매우 불명확한 시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전쟁이 영웅을 만든다고, 루스벨트는 확실한 위기를 맞았다는 모두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만 해결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위기 자체가 너무 복잡적이고 다양해요. 에너지 문제, 남녀 성 문제, 난민 문제, 기후위기 문제 등.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사람이 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일 수 있고, 이러면서 한 개인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가 이 문제를 풀기에 더이상 적절하지 않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유럽은 국가가 이런 문제를 풀기보다는 지역사회가 이런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를 보면, 지역정당도 있고요 사회주택 같은 것도 있지요. 예컨대 일본의 협동조합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생활클럽 생협은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착근시키기 위해서 협동

조합을 수단으로 선택한 경우이고, 협동조합이 주부들의 정치적 활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협동조합이 가장 잘 발달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공동체에서 시작하거든요? 왜 협동조합이 정치공동체에서 시작하느냐면, 무솔리니 같은 파시즘, 프랑코 같은 스페인 독재정치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동체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정치로 하면 맞아 죽으니까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그것을 협동조합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매우 경제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경제만 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이 경제뿐 아니라 교육도 했고, 잘 아시는 FC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이란 게 그런 맥락에서 탄생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급하니까 수입해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축을 다시 보자 하는 것은 뿌리를 다시 보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지를 점검해보자는 것이죠.

여섯 번의 강의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문제는 정치인데, 국가로는 더이상 풀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마을정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문제를 국가가 아닌 마을이 푸는 것을 실험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을로 남북 문제를 푼다는 것은 여기 있는 마을과 여기 있는 마을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마을하고 관계를 맺고 여기 있는 마을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런 관계가 북한 마을을 안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계선이 아주 뚜렷하잖아요. 나중에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경계를 넘는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멕시코 국경을 넘어본다든지, 또는 제가 넘어려고 했다가 모두가 말려서 못 넘는 게 과테말라하고 코스타리카 국경

을 넘어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 국경을 넘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서 두만강하고 압록강에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탈북자 아니에요. 기획 탈북을 하는 기독교인들과 「조선일보」가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전략 속에서 그 사람들을 탈북자라고 지칭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잠깐 넘어갔다 오는 거고요,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사이가 좋아요. 왜냐하면 공생해야 하니까. 근데 국가가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죠.



유럽 지도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잖아요? 덴마크는 유럽에 붙어서 이렇게 튀어 올라온 나라예요. 그 옆에 라트비아가 있고 몇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가장 발달된 도시가 바로 그쪽에 붙어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핀란드는 차로 서너 시간이면 가는 거리에 있어요. 굉장히 가깝죠. 그 발트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 서로



일본 지도

협력해서 국가를 넘어서는 발트해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거기 가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모델을 갖고 와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려고 했던 게 우리로 치면 동해죠. 니가타, 도야마, 블라디보스토크, 부산, 울산, 포항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내셔널리즘이 너무 강한데다가 거기 독도가 있잖아요? 독도가 있는 한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독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런 문제도 사실 있어요.

일본은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경,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가 다 태평양 연안에 있어요. 이쪽은 다 산이고요. 그래서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쪽은 낙후되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커요. 마치 한국의 영호남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태평양 쪽 해안은 아주 번쩍번쩍합니다. 이쪽 해안이 전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미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 통계를 보면 해외여행을 미국으로 제일 많이 갔다 와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자매결연을 가장 많이 맺은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중국이 가장 많이 맺은 나라도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이 가장 많이 맺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위가 일본, 2위가 중국. 중국은 일본이 1위, 한국이 2위. 근데 일본만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한국이 3위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포지셔닝은 실제로는 섬이지만 이 사람들의 시공간은 유럽에 가 있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다, 섬이라서 아시아에 귀속하지 않고 유럽에도 속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국가 디자인은 유럽에서 왔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많이 느낄 겁니다. 역사를 쪽 살펴보면 일본은 서양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서 제국주의가 됐고 모든 나라가 다 제국이 됐다가 그 제국주의가 한번 빵 크게 터진 것이 바로 제2차세계대전이라 불리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이른바 7년 전쟁이에요.

## 국가에서 시민국가로, 마을정치 새롭게 디자인하기

전쟁이 끝나면 제국은 평화를 지향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모든 국가가 전쟁국가를 지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란 기본적으로 힘을 지향하고, 이 힘은 군사력에서 비롯되고, 군사력은 결국 헤게모니를 지향하며, 헤게모니는 또 다른 제국을 지향하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국가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아나키스트는 아니에요. 스스로 잘못을 고백할 수 있고, 무오류성을 주장하지 않는 국가라는 의미에서 저는 '시민국가 Civic State'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민국가는 연방주의에 가까운 거죠. 다시 말하면 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여서 각 지역이 모두 자율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국가가 자율성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7년 카탈루냐 독립투표가 가결되니 국가가 바로 아주 잔인하게 들어와서 방패로 패고 결국 독립을 못 하게 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실제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1998년에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서 독립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재밌는 나라예요. 인구가 2억이 넘는데 그 인구가 인도보다 훨씬 더 많은 언어를 사용해요. 어떤 사람은 인도에 언어가 500개 정도 있다고 하고 700개 정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만은 태평양쪽 해안가에는 원주민이 살았고 17세기에 청나라에 멸망한 명나라 장군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산 쪽에서 살았어요. 1945년에 장개석이 국공 합작을 끝내고 국공 내전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다시 오는데 이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내성인이라고 하는데 이 내성인들 사이에서는 사이가 나쁘고 좋고 할 게 별로 없었어요. 다른 영역에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장개석이 와서는 이 전체를 굉장히 폭압적으로 다뤄서 우리하고 똑같은 43 사건이 대만에서 일어나요, 이른바 2·28 사건이라고. 그러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전체를 지배하는 역사를 만듭니다. 보통 장개석하고 대만 원주민하고 싸웠다고 하는데 인구 구성비를 보면 대만 원주민들은 1%밖에 안 돼요. 결국은 명나라에서 넘어온 내성인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이들이 독립운동 비슷한 걸 한다면 자기네들의 역사를 담은 교과서를 보면 대만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자기들이 와서부터라는 거예요. 원주민 역사가 싹 빠집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내성인들에 대해서도, 외성인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구조죠. 원주민들은 30여 개의 다른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차이잉원이 2016년에 대만 총통이 되면서 자기 고유의 언어를 쓸 수 있고 자기 교과서를 쓸 수 있는 원주민의 언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대만에는 지금 13개 아니면 16개의 공식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을 존중해줘요. 이렇게 다양

성을 존중해주는데 외성인이 있고 내성인이 있고 원주민이 있는데 지금 또 문제는 중국 본토가 또 있어요. 아주 복잡한 거예요. 거기에 홍콩 문제까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간단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인도네시아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인도네시아는 인도보다 훨씬 더 섬이 많아요. 몇 개나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전라남도에 섬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1,004개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통계는 89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밀물 때, 썰물 때 보이는 바위의 숫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독도도 똑같잖아요. 독도도 섬이 아니라 바위거든요, 원래. 아무튼 독도 같이 바위인데 섬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섬을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국의 영토가 섬이 되면 거기서부터 자기네들 해리가 넓어지니까.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해요. 지도 보시면 중국은 남쪽으로, 지금 미국하고 갈등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예요, 거기 보시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바다에 인공섬 박아놓고 다 중국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쪽에서 보면 정말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죠. 이웃국가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인도네시아에는 동티모르뿐 아니라 아체라는 곳이 있는데 말레이시아 쪽 끝에 위치합니다. 아체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착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예요. 우리는 자꾸 이슬람 사람을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해외 여행할 때 가장 환대해주는 곳은 이슬람이에요. 어쨌든 그 아체 지역이 독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줬냐면 결국에 독립은 못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2004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발생한 쓰나미 때문에 아체의 경제가 마비가 돼서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됐어요. 아체가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 자생력을 상실해버리고 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체가 독립하려고

무장투쟁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실제로 그런 지역이 많아요. 왜냐면 거기는 이슬람하고 가톨릭의 갈등도 있고, 경제 갈등도 많으니까요.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1965년 수카르노에서 수하르토로 바뀌면서 200만이 넘는 사람을 학살해요. 우리가 한국전쟁 3년 동안 200만 명 정도 사망했다고 하는데 불과 몇 달 만에 그 정도 죽었다는 얘기는, 동북5구 인구가 200만이 안 되니 여섯 개 구의 인구를 죽여서 반공 국가를 만든 거예요. 희생당한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한 대부분이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광주 항쟁도 그렇고.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기억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죠.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아체 독립을 어떻게 막았느냐면, 세금을 국가에서 굉장히 적게 걷고 아체 지역에서 세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고, 지역정당을 허용해 지역에서 자기들 정치를 구성할 수 있게 해서 독립한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만들었어요.

스페인의 바스크는 독립운동을 작년 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까지 항상 테러가 있던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바오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산세바스티안이 유럽 전체의 문화수도가 된다든지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하죠. 그 이유는 EU라는 지역공동체가 유럽의 오랜 전통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빌바오와 바스크 지역이 협동조합으로 유명해진 것은 자생구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 하나 바스크 지역이 독립운동을 안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스페인이 바스크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치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바스크 지역은 세금을 거둬서 자기들이 써요. 그 구조를 이해 못 하고 빌바오 같은 도시재생이 왜 우리는 안 될까 하면 곤란하죠. 빌바오의 알폰소 소장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자기 마을을 고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오너십이 생기고 오너십이 생겨야 거기에 헌신하게 되고 헌신해야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그것이 도시재생의 가장 밑바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죠.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건 바스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인 거예요.

홍콩의 경우도 지금 범죄인 인도법을 철폐하라는 것은 정치적, 사법적 독립성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홍콩도 중국 땅인데 범죄인을 우리가 양도 못 받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권 문제니까. 그런데 홍콩은 스스로 주권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범인을 양도하고 못 하고는 굉장히 중요한데, 동두천에서 윤금이 피살 사건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미군 하나 처벌하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홍콩만 못한 거예요. 지금도 성조기 들고 나가고 이런 걸 보면. 성조기에 있는 별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독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북한의 국기에도 별이 있죠. 쿠바 국기에도 별이 있어요. 성조기의 별이 주state라는 것도 맞는데, 결국에 한 주, 한 주가 독립하면서 얻어진 것이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별을 그리는 것은 주권국가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정치적으로 독립했다는 거고. 쿠바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다 별 달린 국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쿠바를 미국의 속국처럼 대하니까 1959년에 혁명이 일어난 거죠.

얘기인즉슨, 국가의 시대에서 이제 도시의 시대, 자치의 시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마을자치의 시대로 와야 되는데 왜 도시의 시대로 가느냐? 그것은 도시화가 마을의 새로운 공동체 경제 원리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시 문제는 조금 더 깊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마을로 왔는데 그 마을이 도시 단위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공간이 더 많이 도시가 되는 이유는 도시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고령화된 농촌 사람들을 돌볼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농촌에 사는 노인들에게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줬죠. 지금 추세를 보면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건설에 열심이지요. 지금 장년들이 20년 지나면 70대가 됩니다.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나이예요. 요양병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아직 활동할 수 있는. 그럼 실버타운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노인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콤팩트 시티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 사는 노인들이 뭐라고 비판하느냐면 “어떻게 내가 살던 마을에서 떨어져서 살 수 있냐. 여기는 너무 갑갑하다.” 좀 더 신랄하면, “우리가 언제 죽는지 확인 못 하면 문책당할까 봐 행정편의주의로 우리를 한곳에 모아놓고 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시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콤팩트 시티에 모여 살면 복지 혜택을 주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하죠. 좋게 얘기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편한 거죠. 일본에서 콤팩트 시티가 여러 군데 만들어진 지 5~6년 됐어요. 우리가 변화가 더 빠르니 제가 보기에 앞으로 3~4년이면 콤팩트 시티를 만들기 시작할 거고, 가서 거주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마을 단위의 새로운 정치 구상, 마을 단위의 공존 공간, 다시 말하면 하우징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마을을 다시 구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정치·경제·교육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도시재생, 마을정치의 가능성

최근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이 전부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하청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호흡을 갖자는 분들이 나타났는데, 저는 거기서 한 걸

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자율적 구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키울지, 얼마만큼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또 하나의 핵심은 지역정당을 만들어 지역정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구조에서 정치는 당을 막론하고 지부를 만들어서 공천 등 다 위에서 결정합니다. 이걸 국가 시대의 정치 구조예요. 이 패러다임으로는 초기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만들어지기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마을정치를 새로 시작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실험을 우리가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도시재생을 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발견했으면 이 사람을 지방선거에 의원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구청장을 내보내면 참 좋겠어요. 서울시 예산이 지금 한 35조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면 25구니까 평균 1조 정도 쓸 수 있는데, 동북5구의 비극은 뭔가 새로운 걸 해볼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것을 그저 유지하는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 구가 행정의 자율성을 갖기보다 ‘위’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 위탁사업 형식이 되는 거죠. 전부 탑다운(top-down)이에요. 정당 구조도 정치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도 그렇고. 다만 어떤 부분의 영역이 조금 더 넓혀졌냐는 차이만 있을 뿐 근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비전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고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모두가 다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실험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안’이라고 하면 사회적경제, 마을경제, 협동조합 등을 생각하고, 공간 얘기하면 도시재생 얘기하고, 교육 얘기하면 대안학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육체계가 이러니까 교육체계 안에서 대안교육을 찾고, 경제가 이러니까 그 안에서 조금 다른 것을 찾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저는 전체를 보면 좋겠어요. 어떤

마을을 만들까? 어떤 리더십의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교육 커리큘럼이 이 마을을 새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까? 이 마을을 새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려면 어떤 정당, 어떤 정치가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실행해보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몇 년 해야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네의 자원도 새롭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꼭 차근차근 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또 어떤 것은 한 동네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 외국에 있는 다른 동네하고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국가의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공성 만들기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시간축을 얘기했는데, 결론은 우리가 또 다른 마을의 시간축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국가의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마을정치를 실험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캠퍼스타운 사업을 받아서 그런 시도들이 가능한 여지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캠퍼스타운 사업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업해서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항상 재정지출과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하던 일에도 돈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 증빙하는 과정에서 행정업무가 늘게 되다 보니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자율성보다는 관료적 효율성 그리고 통제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알게 모르게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습성을 몸에 배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두려움도 조금 있어요. 관료적으로 간다거나, 굉장히 마이크로한 이슈에 집착하게 만들어 큰 틀을 못 보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됩니다.



## 나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저는 한살림, 아이쿱 조합원이고 정당에 가입해 있어요. 쪽 직장을 다니다 2년 전 그 직장에 비상근으로 일하게 되면서 시간이 나니까 조금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박근혜 같은 사람이 다시는 대통령이 되지 않게 좀더 부지런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저 나름의 '한계'들을 느꼈어요. 생협에서 조합원들에게 정치에 대해 얘기하려면, 참 건강한 분들인데도 왜 정치 얘기를 하냐고 해요. 정당은 정당대로 당이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나눠보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음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들으면서 지자체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해야겠구나 하고 희망을 가지기도 했어요. 문재인 정부, 촛불,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 공천을 하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거법도 바뀌어야 되고, 지역정당을 하려면 정당법이 바뀌어야 해요. 지금 정당법으로는 지역정당 만들 수 없으니까요. 국회의원도 바뀌어야 하고. 제가 동네 사람들 몇 명하고 공모 지원금을 받아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선거법 공부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능성에 대한 배움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서울시는 왜 이렇게 돈을 소모적인 방법으로 쓰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말씀 들으니까 그런 하나하나, 조그만 데서 우리가 움직이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2014년 선거 때 모처럼 마음먹고 선거운동을 해서 크게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세월호 사건 이후 한 달간 선거운동을 중단했는데 모든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전국민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국민장 같은 분위기인데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선거운동은 뭐지? 선거운동은 난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장 부리면 안 된다, 이런 엄숙한 분위기에선. 그러면 선거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아닌 거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당시 선거 프레임으로 '안전사회'가 크게 걸리고, 최소한 성장 지향적인 재개발, 재건축은 안 된다고 했어요. 당시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박원순이 정몽준한테 10% 지고 있었어요. 필패론이었죠. 성북구도 전멸이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데 극적으로 반전해서 다 이겼거든요. 성북구청장이 2014년 선거 끝나고 한 6개월 간 세월호 때문에 당선됐다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앞으로 세월호 정신을 이어받아 뭔가를 하겠다고 했어요. 박원순 시장은 거리감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발언을 했겠지만 뭘 하겠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때 그 분위기가 그 후의 한국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억해요. 세월호 국면에 저 정치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기준이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때 생각 못 했던 말을 들었는데,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철새 정치가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는 선거 때마다 당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 한국당 갔다가 민주당 갔다가 선거 때마다 여당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전통적 의미의 철새 정치죠. 두 번째는 선거 때만 나타나는 운동권 철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선거 때만 나타나는 거죠. 전통적인 철새들은 동네 유지라, 일거수일투족이 동네에서 확인되어 그 게 때로는 동정일 수 있지만 인간적인 신뢰를 얻죠. 그런데 운동권 철새는

행적이 드러나지 않고 입만 살아서 신뢰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선거 끝나고 제가 검토를 해보니 운동권 중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최소한 지역에서 5년 이상 지속적인 활동을 했더라고요. 지속적인 활동을 해서 신뢰를 얻은 거예요. 제가 선거 끝나고 평가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선거에 당선되려면 연말까지는 놀고 2015년 1월 1일부터 선거 운동을 하면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당선될 수 있겠다. 3년이면 될 수 있겠다.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직관적으로. 마을정치 다 좋은데 지난 시간에 그러셨잖아요. 일본은 20년 정도를 준비했다고. 마을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들 중에서 정치할 사람을 찾아냈다고 했는데 그게 애초부터 그런 전략을 가졌는지, 하다 보니까 그런 전략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목표는 풀뿌리운동인데, 그조차도 호흡이 너무 짧아요. 매번 선거 때만 선거 얘기를 합니다. 선거 끝나면 잊어버리고 실제로 뭘 잘 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긴 호흡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신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제일 싫었던 것이 정치개혁공동행동이었습니다. 선거 때 되니까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싶었죠. 그런 유를 2014년에 동네 주민들은 가장 싫어하는 철새 정치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유의 행동을 주민들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명분이 좋은데 왜 싫어하냐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은 명분을 보고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몇 년간 무슨 행동을 했는지 중요한 거죠.



유권자들이 투표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정책인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해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정당을 보고 찍고 또 다른 때는 인물을 보고 찍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요..



처음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 두 가지는 마을 사업이 관에 너무 종속되어 있다는 것과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기득권층화됐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년쯤 하다가 그만뒀어요.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중간지원조직 아래서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마을 활동이 위탁사업처럼 운영되는데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접고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준비해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3년 지원해주고 자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생을 해요. 3년 동안 지원할 테니까 적당히 시간 보내다가 그만두라는 말로밖에 안 들려요.



춧불로 태어난 정권인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국회가 그대로구나. 국회를 바꿔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알려고 하는데 오히려 시민단체에 있거나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정치에 관심 있다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회가 정말 엉망이고 이상한 사회인데 다 합법이에요. 비정규직도 그렇고요. 왜 합법이라면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런 법에 따라서 사회가 굴러가니까. 노동법 하나만 봐도 국회의원들이 개악하고, 개악하고, 개악하죠. 국회가 바뀌어야 해요. 우리가 지역에서 20년간 풀뿌리운동을 하면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오신 분들 많잖아요. 민주노동당이 생긴 때가 언젠데. 내가 정말 사고를 깨야겠다 생각한 게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예요. 시민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선거를 해서 사람을 뽑는다는 사고의 틀을 깨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또다시 생각하면 거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 뽑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국가가 아니라 마을이나 풀뿌리 단위로 뭘 해보자는 데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무능력이나 한계를 전제로 마을에서 시작하자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가 아직은 어떤 집단보다 힘이 있고, 적어도 다른 나라와 교섭할 때는 국가라는 틀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한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마을에서의 움직임, 마을 활동이 지속 가능할까? 위탁사업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협치조정관을 하며 느끼는 것은, 과거 ‘관변’이라 불린 분들이 구청이며 동사무소에 자주 다니셨어요.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구청에 자주 다니고, 일도 많이 하다 보니 그분들도 관변이라고 불려서 구관변하고 신관변이 지금 공생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냉정히 말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역 활동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이 거주지 또는 활동지를 중심으로 모이는 건데, 현재는 중간 지원조직 같은 데서 활동하는 분들 중심으로 그 모임이 이루어지다 보니 나머지 분들이 거의 안 보여요. 주민들이 참여하려면 밤에 하거나 주말에 해야 하는데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낮에 다 올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가능하면 근무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는 얘기도 나오죠. 이런 걸 돌아볼 틈도 없이 바쁜 상태에 있는 듯 보입니다. 정비 좀 하자고 생각은 하는데 여력도 없고, 늘 보던 분들이 만나 하던 얘기를 또 하니깐 별 필요를 못 느끼는 상태에 있죠. 이 바쁜 사업의 시기가 지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치고 소진된 상태에서 그분들은 그냥 사라질 것 같아요. 다음에 모일 근거가 사라질 것 같다는 우려, 그게 마을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발을 담갔어요. 뭐 하는 건가 궁금해서 학부모협의체에 들어갔는데 꼭 동아리 활동처럼 운영되더라고요. 그 이상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강의 들으면서 '도대체 마을은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마을은 어디까지 일까요? 내 이웃은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까요? 어릴 때는 내 마을, 내 동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한 집에서 16년 이상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을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아이 유치원 때문에 정치하는 엄마들 커뮤니티를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사람들 말이 젊은 엄마들이 안 모인대요. 온라인 활동만 하기 때문이에요. 마을이 절대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학교나 직장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역정치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홍성에 가서 지역정당 얘기를 했는데 지역정당을 하면 풀뿌리운동이 흩어지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지역 유지들이 주로 지자체 의원이 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당선되는 거 아닌가 싶고. 저도 국회의원보다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에게 관심이 덜 가긴 하거든요. 중요한데 더 모르는 거죠.



저는 정당정치에 별 매력을 못 느낍니다. 내가 사는 곳은 마을이고, 생활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뜻한 바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봐왔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역정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습니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질서는 정말 대단한 대가가 나중에 따르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업들도 거의 그래요. 이렇게 꽃아지는 위탁사업들 이후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그 질서가 우리에게 정말 좋을까요? 이 활동 안에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시민운동이 지금 있나요? 그 안에 다 매몰되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청년층에서 보기에 이런 점이 매력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르게 사고하는 방식을 지역 안에서 다 같이 논의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동네, 마을, 국가, 1945년 이후의 세계 앞에서

아주 구체적인 어젠다부터 철재의 두 종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동네인가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건축이나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물리적 공간에서 도시는 보통 10분 정도 걸어서 가는 거리, 700~800미터 정도의 반경을 동네라고 생각해서 그에 맞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 행정 중심보다 지진 같은 재난이 벌어졌을 때 재난 공동체 중심으로 동네를 설계해요. 공간 자체는 중학교를 베이스로 운동장에 모일 수 있는, 중학교 사친회 정도가 매우 중요한 동네 사람들의 근간이라고 하죠. 행정적으로 보면 보통 한 2만 명 정도가 되면 한 동네, 한 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정치학 쪽에서는 최근의 사회 변화에 따라 마을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을이 가는 곳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사이버스페이스도 있고, 이른바 오타쿠들의 네트워크라는 것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혹은 공동체 자체가 매우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마음과 관심, 소속감이 드는 곳이 동네가 되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그게 물리적 공간과 일치했지만 지금은 유체이탈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이탈한 유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그렇게 이탈한 유체가 그 공간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녁이 있는 사람들이 내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젊은 친구들은 물리적 공간보다 인터넷 공간, 관계 속에서의 공간을 더 많이 찾으려 하는 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 수업 시간에 왔다고, 학교 같이 다닌다고, 같은 과 친구들과 친해지지 않아요. 동네 친구, 학교, 부모님 때문에 지연, 학연, 혈연이 끈끈하게 자기 공동체가 됐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의 유체이탈 능력은 5G를 능가해요. 그것을 새

로운 공간, 동네, 공동체로 인정해야 대화가 시작되죠.

혈연, 지연, 학연이 민주주의의 걸림돌 같지만 저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없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연사회가 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다시 말하면 혈연, 지연, 학연을 지우는 방식이다 보니 사람들이 공중에 붕 떠서 정당의 힘이 더 강화된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아까 국가가 여전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금의 국가는 1945년 이후의 산물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국가가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역사를 보면 주 하나하나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는, 아이슬란드에 가시면 두 지반이 충돌해서 굉장히 기이하게 형성된 아주 원시적인 지형의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거기 둘러앉아서 시작하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수가 몇이냐, 그게 딱 마을의 범주예요. 사실 로마도, 런던도, 파리도, 심지어 서울까지도 과거의 성곽이 만들어진 크기는 딱 10리 거리예요. 10리면 4km인데 걸어서 1시간 정도의 반경이 과거의 서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나 파리에 가면 과거의 중심지로부터 한 시간 정도 걸어 다니면 그 10리 안에 볼 게 다 있습니다. 그 정도가 한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크기였기 때문이에요.

국가 얘기로 돌아오면, 국가는 기본적으로 아주 강해지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약한 사람을 돌보는 기능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복지국가 얘기하고 포용국가 얘기하는 건 국가가 그런 성격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원래부터 국가가 아니라 지방이 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얘기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에는 서로 다른 작은 지역들이 있었는데 강한 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언제 또 식민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방의 작은 지도자들이 국가에 합의한 거예요. 당시 수카르노라

는 탁월한 정치인에게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우리가 너에게 맡길게” 한 거죠. 여러분 혹시 ‘족자카르타Djakakarta’라고 들어보셨어요? ‘족자’, 혹은 욱야카르타Yogyakarta라고도 부르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술탄이 실제로 정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 아체 등 여러 지역과 역사가 있는데요, 모든 술탄이 귀족으로서 지위를 갖지만 실질적인 행정적 정치는 전부 국가에다 넘겼어요. 그런데 족자카르타만 상징적으로 남기고 자카르타를 수도로 둔 겁니다. 족자카르타에 있는 술탄이 세습은 안 하겠다고 선언해서 자기 이후는 전부 선거를 해야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면 기본적으로 아시아에는 국가가 있지 않았어요. 아시아에서 국가, 제국으로서의 국가를 만든 것은 중국, 그리고 근대국가로 빨리 선점한 일본이 있고, 조선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는 그냥 작고 평화로운 땅이었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계속 조공을 바쳤고, 싸움하려고 군대를 만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쟁 등의 역사들을 계속 얘기해서 조선시대가 마치 강건한 국가였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전쟁하려고 하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아예 전쟁을 포기한 경우가 오키나와 같은 나라예요. 류큐는 처음부터 군대를 만들지 않았어요. 군대를 만드는 순간 멸망할 거라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고 조공을 바치는 대신 속국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겠다고 했죠. 사실 류큐가 평화국가인데, 결국 완전히 짓밟히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강한 국가에 대한 꿈을 갖고 국가로 간 것이죠.

## 국가 시대에서 마을 시대로

저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여러 문제들의 핵심이 정치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치를 바꾼다는 것이 선거법, 공천권, 정당법 같은 제도를 바꾸

면 되느냐.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국가 시대에서 마을 시대로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씀드린 것도 결국 정치를 되찾아오자는 전략이 핵심이예요. 한국 사회에서 정치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은 기대와 불신인데, 그러다 보니 아무리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투표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철인이 아님을 다 알면서 정치를 철인같이 해주기 바라는 이윤배반적인 심리를 갖고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아무도 정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많다는 거예요,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되거든요. 지금의 제도는 이런 구조에서 작동해요. 그리고 이걸 정당들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돈 있고, 배경도 있고, 나름대로 얼굴도 두꺼워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목소리도 커야 하고, 체력도 좋아서 하루에 경조사를 여러 개 다녀도 끄떡없어야 한다, 이 정도 돼야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자도 강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정치의 원심력이 굉장히 강하게 발동한 겁니다. 우리는 기대와 불신을 갖고 정치인은 정치를 계속해서 유리시켜서 자기들 안에서 움직이기 편하게 만든 거죠. 정치적 편의주의로 가는 거예요. 공천도 그런 거예요. 연동형 비례제로 바뀌면 조금 더 나아지겠고 큰 틀에서 보면 조금씩 발전을 해나가겠죠. 그럼 비례대표는 누가 공천하지? 그런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결국은 정치의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문제는 정치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치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정치는 프로페셔널리즘과 아마추어리즘이 절묘하게 조화되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 정치는 프로페셔널리즘을 지향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반대의 아마추어리즘이 있어요. 아마추어가 프로페셔널처럼 행동하는데 프로페서

널도 아니고 아마추어도 아닌 거죠. 그런데 정치에는 프로페셔널이 들어가야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프로페셔널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을 어떻게 적당히 섞느냐가 정치가 예술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더티’한 것이 되느냐의 차이예요.

두 번째는 정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이 곧 정치예요. 독일에서 성인교육이란 정치교육이에요. 정치에 대한 기대와 불신의 핵심은 정치에서 유리되는 것에 있어요. 사실도 훗날도 어떤 의미에서는 철세예요. 온 국민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960년 4·19 때 전부 모였어요. 80년 광주, 87년 6월 항쟁 모두 화끈하게 모였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에는 정치인들에게 그 자리를 항상 내줍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운동권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세 번째는, 그래서 정치는 마을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치는 규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규모가 커지는 순간 정치는 공허해지고 기대와 불신이라는 두 심리가 작동하면서 우리는 정치에서 유리됩니다. 제가 아까 아이슬란드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과거의 정치는 규모의 정치가 가능했어요.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도 함정이에요. 여러분 5인 가족이 있으면 5인이 항상 모여서 합의하나요? 어떤 때는 아버지가 아들하고 합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식들끼리 합작하기도 하고, 그 안에 굉장한 정치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정치와는 다른 본래 의미의 정치, 곧 서로에 대한 존재를 긍정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을정치의 핵심은 상명하달로 전달받는 행정지원체계의 말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주권을 주민들 스스로가 자각하되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이를 조정해가는 과정을 살려

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치는 매우 귀찮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정치적 자유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선택의 어려움,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이 함께 따르기 때문이지요. 누구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누구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이 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되지 않더라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주민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이해가 이뤄지는 과정이 곧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는 교육이 중요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른 이들과 대화하며 공동으로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마을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실험이지요. 이 실험은 한반도 통일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정치의 토대를 잘 닦아놓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그리고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동아시아 틀을 짜는 밑거름이기도 합니다.

지은이	이기호
발행일	2019년 12월 18일
발행처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주소	(01414)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21 두승빌딩 201호
전화	02-906-2018
전송	02-906-2019
메일	info@dbnpo.kr
홈페이지	<a href="http://www.dbnpo.kr">http://www.dbnpo.kr</a> <a href="http://blog.naver.com/dbnpo">http://blog.naver.com/dbnpo</a> <a href="http://www.facebook.com/dbnpo2018">http://www.facebook.com/dbnpo2018</a>
기획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 다다름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21세기를 둘러싼 질서

경쟁과 대안으로서 지역운동